



9

1988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9호

(루게 491)



## ◆◆◆◆◆◆◆◆◆◆ 차 례 ◆◆◆◆◆◆◆◆◆◆

아, 조국이어 .....	4
장 래 .....	5
룡성번영하는 공화국과 더불어 찬란히 개화발전하여온 우리 문학의 영광의 40년 .....	13
절세의 영웅 .....	19
하늘땅에 넘치는 향도의 빛발 .....	19
붉게 핀 꽃송이앞에서 .....	20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리 .....	21
백두산에 솟아오른 향도의 별 .....	21
어머님께서 피우신 꽃 .....	22
어머님의 영웅메달 .....	22
9월의 하늘을 우리려... ..	23
수령님과 영웅의 어머니 .....	25
그 목소리 들려온다 .....	27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	28
불멸의 꽃 .....	30
붓 나 무 .....	32
주체의 조국 .....	33

동구의 은행나무 .....	36
나는 조선사람이다 .....	45
언제나 한마음으로 .....	48
고향사람 .....	49
가을은 오고 다시 와도 .....	50
순천의 숨결 .....	51
국기가 오른다 .....	53
메 달 .....	55
병사의 어머니들이여 .....	56
생활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정신 .....	57
김철이여, 너처럼 .....	58
삶의 령마루 .....	59
기 뽕 (외 1 편) .....	71
한그루 나무라도 .....	71
점 검 시 간 .....	72
작가의 문체 .....	73
남녘의 어머니에게 .....	77
위훈에로 부르는 기발 .....	78
꿇을수 없는 인연 .....	79
선생님 .....	80

# 아, 조국이여

차승수

내 얼마전  
수령님 모시고 투사들이 걸어간  
혁명전적지를 밟으며  
조국이여  
걸음마다 그대앞에 머리를 숙였노라

살아온 반생  
한순간도 그대 떠나 산적이 없건만  
그대 땅을 밟으며 숨쉬는것만이  
그대와 함께 사는것이 아님을  
자욱마다 깨우쳐준 투사들의 걸음이여

그들이 끌어안고  
더운 눈물 떨구던 진달래송이에서  
나는 그대의 꽃향기를 느꼈더라  
그들이 단가슴 추기며  
불굴의 힘을 키운 삼지연못가에서  
나는 그대의 물맛을 알았더라

어머니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그들이 잠결에도 안고자던  
리명수폭포의 장쾌한 음향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대 물소리의 의미를 알았더라

알았더라  
잠들줄 모르던 투사들의 체온이  
지금도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겨레의 고통으로 달아오른 뜨거운 숨결이  
구호목에 살아있는  
투사들의 목소리에서

깎고 누울 나무껍질 벗기려다  
축축한 락엽우에 그대로 누워잔  
그 뜨거운 숨결 어려있는 나무등을 쓰다듬으며  
나는 알았더라 조국이여

그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세월의 년륜처럼  
가슴에 지니고 키워야 함을  
그대를 떠받드는 그 마음  
소리없이 뻗어가는 뿌리처럼  
가슴에 지니고 자래워야 함을

오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눈을 뜨고도 바로볼수 없는 그대의 모습이여  
피를 바쳐 지켜내지 않고서는  
살아서도 바로 느낄수 없는 그대의 숨결이여  
그대를 다 안다는것은  
결코 생의 길이로 채일수 없거니

두고가는 조국땅을  
한줌의 흙속에 안고가던 투사들처럼  
내 그대의 물 한방울 모래 한알의 무게를 느낄 때  
내 그대와 함께 산다고 말할수 있으리

그 무게로 솟아오른 절정으로  
백두의령봉을 우러러보고  
그 무게로 고여오른 정수로  
천지의 푸른 물을 감수할 때  
내 그대의 아들로 살고있음을 알게 되리라

아 조국이여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 장 래

현승걸

## 1

인생의 마지막이 아직은 좀 멀리에, 몇 년 후에야 있을것으로 믿었던 허헌은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전혀 뜻밖에 강물우에서 일생을 마치게 될줄은 몰랐다. 피로운것은 생과 작별을 하게 된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꼭 글로 남기려던 인생체험을, 오직 자기만이 느낀 그 체험을 시작도 못한채 눈을 감게 된 것이었다. 오늘 여기서 생이 끝날줄을 알았다면 일찍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제는 도저히 만회할수 없는 실수가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장마비에 한껏 불어난 강물은 방금전에 있던 적기의 폭격에 치명상을 입은, 칠순을 바라보는 병약한 늙은이를 사정없이 아래로 떠밀었다. 그래도 허헌은 요행 폭격에 부서진 나무배조각에 의지하여 기력이 쇠진해진 몸을 좀더 지탱할수가 있었다.

애석함이 어린 눈으로 허헌은 저쪽 벼들방천너머의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거기 점점 부푸는 회백색의 구름사이로 이 며칠동안 몹시 그림던 파란 하늘의 한 모퉁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인제는 장마가 걷히는 모양인가. 유별하게도 긴 장마때문에 장군님께서 크게 걱정을 하셨는데... 전선에 군수물자를 제때에 수송 못한다고 비가 걸히기를 기다리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는 장군님의 그 다정하신 모습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도 더는 뵈울수 없고 들을수 없게 되었다는, 여직껏 체험해보지 못한 쓰라린 비애가 가슴을 옥죄었다.

어제밤 모란봉지하극장의 휴계실에서 장군님을 만나뵈온것이 결국 마지막이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날밤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해방기념행사가 있었고 뒤이어 휴계실에서 장군님의 말씀이 계시였다. 엄혹한 전쟁시기인데도 훌륭한 지하극장을 지었다고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폭격속에서도 공연을 보게 되었다고 그이께서는 기뻐하시였다.

웅장화려한 지하극장을 보며 허헌은 전쟁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듯하여 마음이 즐거웠다. 그래서 휴계실의 흥성거리는 분위기를 타고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였다.

《장군님, 래일 제가 정주에 다녀오겠습니다. 대학에서 개학식을 합니다.》

장군님의 사려깊은 눈길에 백발의 머리와 자신도 스스로 못마땅해하는 창백한 얼굴빛에 미치는것을 느끼며 허헌은 구뭇했던 어깨를 폈다.

《정주에 가려고 합니까? 그쪽은 요즘 폭격이 심합니다. 그러니 당분간 떠나는걸 고려해야겠습니다. 내가 오늘아침에 전화로 알아보았습니다. 거기 나가있는 부총장동무가 신입생들도 다 도착하고 기숙조건도 원만하게 준비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총장선생, 그러니 개학식은 걱정할것 없습니다.》

장군님의 어조는 가볍지 않으시였다.

허헌은 자기가 걸음을 할 때마다 매사에 걱정을 하시는 장군님의 성품을 잘 알고있었다. 거기에 습관이 된 허헌은 잠시동안 망설이다가 한걸음 내디디였다.

《장군님, 전쟁을 하는데 폭격이야 어찌 없겠습니까.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이 돌아왔는데 총장이 가보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폭격을 살펴 보면서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기셨다가 계속하시였다.

《총장선생, 개학식에 가고싶어하는 총장선생의 심정은 이해됩니다. 폭격도 폭격이지만 요즘 장마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고 도로가 망그라져서 화물차도 달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년로한 몸에 건강도 좋지 못한데 지금은 안됩니다. 거기에 젊은 부총장동무가 있으니 그 동무가 책임지고 하면 될것입니다. 정 떠나겠으면 강물도 찌고 도로수리도 한 다음에 떠나는게 좋겠습니다. 떠날 때는 경비대동무들이 돌보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허헌의 가벼운 손을 잡았다놓으시며 장군님께서 말씀으로써는 못다하신 심중의 당부를 표현하시였다. 그래서 허헌은 더 길게 이야기 못하고말았다.

《장군님, 생각해보겠습니다.》

허헌은 작별인사를 드리였다. 보통때처럼, 래일에 또 만나뵈울듯 범상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였다.

집으로 돌아온 허헌은 밤새 생각을 거듭하다가 새벽녘에 결심을 하고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였다. 떠날 차비란 간단한 것이였다. 검은색 가죽손가방에 알팍한 사업일지와 문건들, 세수도구들을 챙겨넣는 것이였는데 늙은 부인이 장기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고있어 허헌은 그 모든 차비를 자신이 하였다.

아버지의 이런 형편을 알고있는 딸 허명주가 집으로 달려온것은 얼마후였다. 내각에서 사업하는 허명주는 일이 바쁜 관계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보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또 전시라 허헌은 딸이 사사로운 일로 직무에서 떠나는것을 엄격히 단속을 하여왔다. 수척한 몸에 처녀시절처럼 지금도 자기를 잊고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딸을 두고 허헌은 은근히 걱정을 하고있었다. 인제는 타일러줄 나이도 지난것이다. 두루 차비를 살펴보며 아침식사는 어찌 하였는가고 묻는, 성의를 다하지 못해 미안해하는 딸에게 허헌은 일없다고 손을 흔들어보이였다.

《장군님께 말씀을 드려다오. 내가 정주에 잠깐 다녀오겠다 하더라구 말씀드려다오. 전시에 대학을 개학하는데 총장이 어찌 안가보겠느냐. 장군님께서는 날 녀려하시여 만류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할수 없구나. 전선에서 싸우다가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 얼굴도 봐야겠구 또 장군님의 말씀도 전달해야겠다.》

이 며칠동안 허헌은 최고사령부의 소환을 받고 전선을 떠나면서 써보낸 병사대학생들의 편지를 자주 받고있었다. 모교에 대한 그리움과 전선을 떠나기를 아쉬워하는 심정들이 담긴 그 편지를 받는것은 허헌에게 있어 큰 기쁨이고 행복이였다. 나라를 위해 피흘린 그들이 모교에 돌아온것이다. 자식처럼 사랑하던, 평화시기보다 몇곱절 더 귀중해진 그들이 돌아온것이였다.

《지금같이 어려운 전시에 싸움터에서 대학생들을 소환하여 공부를 시킨다는게 간단한 일이나. 세상 교육력사에 없는 일이다. 나는 어떻게 하나 가 봐야겠다. 장군님께서도 내 심정을 이해해주시리라고 믿는다.》

나직한 목소리였으나 거기에는 완강한 성미와 늙은이다운 고집이 어려있었다. 만년의 생의 기쁨인 교육사업에 대한 로인의 애착을 잘 알고있는 허명주는 아버지의 걸음을 막을수가 없었다.

《아버지, 너무 지체 마시고 인차 돌아오세요. 거기 숙식형편이 어려워서 오래는 계시지 못해요.》

마당가에 나서면서 허헌은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네 얼굴이 말이 아니다. 지하실에서 일을 보는것만큼 자주 밖에 나와 햇빛도 받고 바람도 맞아야지 그러다간 앓아 눕겠구나.》

허헌은 대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잠시동안 말없이 안경을 벗어서 닦았다.

아버지의 그 낯익은 버릇을 잘 아는 허명주는 마음이 긴장해졌다. 아버지가 심중한 말을 하려고 하는것이 분명하였던것이다.

《내가 떠나는 길에라도 들러서 장군님을 만나 뵈고 가야겠지만 만나시면 또 못간다고 만류하시겠기에 그냥 가겠다... 지금 온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시기다. 조국의 운명이 장군님께 달려있다. 이런 때 모두가 한사람같이 장군님뒤리에 굳게 뭉쳐 미국놈을 때려야 하는거다.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내 보기에는 이 시련의 시기에...》

허헌은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을 이었다.

《장군님을 받들지 못할망정... 장군님곁에 있는 일군들가운데 양봉음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그걸 알고있다. 이번에 갔다와서는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 안팎이 다른 나쁜 사람들의 검은 배속은 언젠가는 꼭 세상면전에 드러나는 법이다. 인민들의 눈은 속이지 못해. 전쟁때문에 장군님께서 여러가지로 괴로워하시고 바빠하시니 말씀드리는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장군님을 따르지 않는자들의 종말이란 뻔한게다. 나는 그런자들의 종말을 내 눈으로 보았다. 력사와 인민은 그런 인간들의 진면모를 밝혀낼게다...》

그제서야 허명주는 아버지의 이번 걸음이 개학식참가라는 단순한 의례적인것이나 도덕적인 의무감때문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의리와 량심을 등진자들에 대한 울분, 그럴수록 강해지는 장군님을 받들고싶은 마음, 미국놈들에 대한 원한, 이 모든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험한 길도 마다하고 길을 떠날것을 추동했을것이였다.

이때야 허명주는 아버지의 옷차림을 살펴보게 되였다. 여름옷치고는 지나치게 거무칙칙하고 색이 바랜, 이제는 다림질로써는 도저히 바로잡을수 없게 된 아버지의 옷은 허명주의 마음을 괴롭히였다.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여름옷을 한벌 마련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내각에서 녀성들한테만 따로 공급해준 여름옷천이 있었다. 자기가 못해입더라도 교육자인 아버지를 위하여 옷을 해드리고싶었다. 거기에는 처녀시절부터 줄곧 아버지와 헤어져있는, 그리하여 부모를 돌봐드리지 못한 자식의 애절한 마음도, 녀성의 절절한 심정도 깃들어있었다.

그때 허헌은 좀더 많은것을 이야기했어야 할것이였다. 허헌은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작별로 될줄은 몰랐다. 지금 허헌의 눈앞에는 오늘아침의 딸의 모습이 아니라 웬일인지 15년전에 부모와 하직을 하고 집을 떠나던 허명주의 처녀시절의 모습이 아주 똑똑하게 떠올랐다.

## 2

15년전 마가을 어느날 허헌은 갑자기 딸 허명주의 하직인사를 받았다. 뜻밖의 일이었다. 수년간의 감옥생활후 허명주는 쇠약해진 몸때문에 겨우 마당출입이나 하는 형편이었다. 병자나 다름없는 딸이 혁명을 할 결심을 품고 저 멀리 북간도로 떠나려는 것이었다. 허헌은 일평생 너성의 개인적인 행복을 외면한듯 사생활에 냉정한 딸이 숭상하는 리념을 잘 알고있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지만 허헌은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려는 딸의 심정을 이해하고있었다.

《네가 집을 떠난단말이나.》

허헌은 딸이 영영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였다. 수년간의 감옥생활은 허명주한테서 애어린 모습, 발랄하고 생신하던 모습을 사정없이 걷어갔다. 그대신 그의 얼굴에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신중한 정숙이 어리였는데 그것은 허명주를 쫓아 나이들어 보이게 하였다. 딸의 때이른 정숙이 내내 허헌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세월이,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긴 민족의 슬픔이 딸의 모습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간도란 험악한 땅이다. 처녀의 몸으로 그 험지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겠느냐. 네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 아버지도 네 앞길을 굳이 막지는 않겠다. 왜놈을 내쫓고 나라를 찾으려는 너의 뜻을 나는 좋게 생각한다.》

허헌은 딸이 아버지의 민족주의사상과도 결별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리념상 차이때문에 때때로 논쟁을 하였는데 언제나 아버지쪽에서 먼저 자리를 피하곤하였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모든 면에서 저는 불효한 딸이었습니다. 늘 부모님에게 걱정끼치고...》

허헌은 딸의 가냘픈 어깨를 쓸어만지며 머리를 저었다.

이때 허명주는 아버지가 가없어보이었다. 광주학생사건으로 일제에게 체포되어 수년동안이나 감옥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런 기회에조차 아버지는 끝내 공산주의사상을 리해 못하고말았다. 허명주는 그것을 가슴아프게 여기었다. 이제는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울수가 없는 아버지였으나 허명주는 아버지의 민족적 절개와 애국심만은 존경하였다.

《너의 여윈 어깨에 기대를 걸게 되었으니 나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네가 견디여내지 못할 것 같구나.》

허헌은 모든것을 믿지 않았다. 딸의 리념도 민족의 장래도 믿지 않았다. 명백한것은 딸의 앞길에 가슴아픈 슬픔과 실패만이 있을 것이었다.

(간도 어디에 김책이 있으면만...)

그는 김책을 생각하였다.

김책이 법정재판을 받을 때 허헌은 자진하여 그의 변호를 맡았고 그가 출옥하여 간도로 떠날 때에

는 안해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은수저까지 팔아 러비를 마련해주었다.

허헌은 김책의 사상보다도 그의 애국심과 인간됨을 더 믿고있었다. 그래서 허헌은 딸을 도와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 편지조차 종시 내놓지 못하고말았다.

김책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있었던 것이다. ...

《너도 잃고 내자신도 잃고 민족도 영영 잃는가 보다.》

허헌은 딸과 작별을 하면서 좀처럼 보이지 않던 눈물을 흘리었다.

그의 예언대로 작별이 있을 때로부터 십년세월이 흘러 허헌이 환갑을 맞게 되었을 때도 허명주한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래서 허헌은 딸의 행방을 찾던 일도 그만두었다.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도 허헌은 딸의 귀향을 바라기는 했지만 그것은 부모의 애뜻한 감정으로 여기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허헌은 딸이 평양에 있으며 **김일성** 장군님의 술하에서 일한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였고 그후 인차 인편에 보낸 딸의 편지를 받았다. 큼직큼직하고 넘적한, 처녀시절에는 너자글씨 같지 않아 사람들의 시비를 듣던 그 인상적인 필체를 보며 허헌은 아, 명주야, 네가 끝내 성공을 하였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였다.

허헌은 가물거리는 등불을 당겨놓고 편지를 읽었다.

...며칠전 어느날 밤 제가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신문에 널 급한 글을 쓰고있는데 **김일성** 장군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저의 합숙생활형편을 료해하시고 말씀하시더군요. 명주가 십년만에 조국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도 안계시고 친척들도 없고 집도 없이 객지에서 생활하자니 서글픈 점도 많을거요. 어쩐지 요사이 동무의 안색이 좋지 않아.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구만. 생활에서 애로되는 점이 많지? 나라가 갖 해방되었고 일본놈들이 다 파괴해서 지금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소. 그러니 우리는 좀 참아야지. 할일이 많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보존해야 하오. ...

저는 신문사업을 담당하랴고 밤늦게 일했습니다. 일이 바빠면 합숙에 가기 싫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책상우에 엎드려 자곤하였더니 얼굴이 좀 축간것입니다. 그런데도 장군님께서 크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를 각별히 관심하고계십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명주, 아버지는 지금 서울에 계시지? 소식을 모르고있소? 아버지를 보고싶을거요. 나도 선생을 만나보고싶소. 허헌선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분이요. 편지를 쓰라구. 동무의 소식도 전하고 우리의 기대도 전하고... 편지를 잘 쓰요, 동무의 말을 아버지는 믿을거

요. 미국놈들이 아버지를 박해할수도 있소. 아버지의 신변이 걱정되오. 라고 하시면서 복잡한 남조선 정세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속히 평양으로 오십시오...

봉투속에는 허명주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허헌은 가물거리는 등불을 더욱 앞으로 당겨놓고 한참 동안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성큼한 목을 반나마 가리운 하얀 속내의에 까만 양복을 받쳐입은 허명주는 애타게 바라던 모든것을 단번에 성취한듯 기쁨에 넘쳐있었는데 그것은 허헌에게 전혀 낯선것이었고 익숙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처녀시절에 허명주는 지나치게 심각하고 사색적인, 웃음소리는 물론 미소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그때 허헌은 딸의 그 때이른 고독을 두려워하였다. 스스로 택한 어려운 길에서 성공을 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나 허명주는 이제는 애어린 처녀가 아니었다. 딸은 끝내 성공을 한것이다. 허헌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자신에게 반문하였다. 민족앞에는 말할것도 없고 딸앞에조차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하물며 김일성장군님앞에야 무슨 면목으로 나서겠는가. 더구나 환갑을 넘은 늙은이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 실로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었다. 생은 이미 결속이 된거나 다름이 없었다.

### 3

점점 멀어지는 버들밭천 저쪽 하늘에서 회백색의 두터운 구름사이로 오래간만에 보는 해빛이 사선으로 땅위에 내리비치자 허헌은 한층높이 머리를 들고 시시각각으로 넓어지는 푸른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장마가 걷히는 징조였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때 허헌은 딸의 편지를 받고 3.8 선을 넘던 일과 거기에서 불원천리로 찾아오신 장군님을 뵈었던 순간을,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였던 생이 다시 시작되던 그 순간을 회상하였다. 보통농가의 갈노전을 깬 운동에 앞으신 장군님께서는 인사를 나누신후 진정이 넘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산에서 싸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김책동무는 허헌선생한테 신세를 지던 일을 회상하고있습니다. 선생이 자진하여 김책동무의 변호를 맡아주었고 김책동무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하여 간도로 떠날 때 선생이 러비도 장만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사히 생각하며 잊지 않고있습니다.》

허헌은 한평생 그 누구한테도 숙여보인적이 없는 도고하던 백발의 머리를 숙이였다. 나라를 구원하신 장군님앞이었다.

《장군님, 저는 민족앞에 부끄러운 늙은입니다. 조국광복성전에 많은 지사들이 피를 뿌렸지만 제가 한 일이란 고작... 인사를 받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리고 말씀하시었는데 음성은 전보다 더욱 절절하게 울리였다.

《민족적 절개를 지킨다는것은 어떤 경우에는 죽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선생은 일본놈들에게 수차 체포되어 옥중고초도 여러번 겪었지만 애국적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시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한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을 해보았기에 그걸 잘 압니다.》

딸 허명주한테서조차 리해를 받지 못하던 허헌은 이때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허무하다고 느껴졌던 한생에 대한 한줄기 애착이 머리를 드는것을 느끼였다. 장군님께서는 자기를 리해하셨지만 자기는 일평생을 다 바쳤어도 공산주의를 리해 못했다는 뉘우침이 가슴에 사무쳤다.

《허헌선생과 우리가 서로 그리워했고 또 서로 만나기를 갈망한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혁명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을 떠난 공산주의자란 있을수 없고 또 참다운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절절한 소원이란 다름아는 우리 민족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안팎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늙은이들을 아끼시는 인정깊은 심정이 어려있었다. 일생동안 쫓기우고 놀리워살던 허헌에게는 장군님의 모습도 그이의 뜻깊은 말씀도 다 뜻밖이었다. 허헌은 이미 굳어진, 앞으로 수긋한 어깨를 펴면서 기대에 찬 장군님의 안팎을 우러렸다.

《장군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입니다. 일을 하자니 이제는 너무 늙었고 아는것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신면에서나 육체적 면에서나 저는 이미 결말을 본 사람입니다.》

허헌은 스스로도 자신에게 동정이 갔다. 고개를 숙인 허헌의 눈에 서글픔이 어리였다.

《허헌선생, 우리에게 귀중한것은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민족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확신에 넘친 장군님의 말씀에 끌리어 고개를 들었을 때 장군님의 안팎에는 사람들의 마음과 넋을 끌어당기는 광채가 어리여있었다.

여직껏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매혹된적이 없었던 허헌은 그이께 몸과 마음을 송두리채 맡기고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위대한 사상과 참다운 인간미를 겸비한 장군님의 풍모, 그 풍모는 허헌이 한평생을 갈망하던 위인의 모습이였다. 그럴수록 허헌은 장군님을 뒤늦게야 찾아뵈게 된 후회가 컸다. 한편으로 젊으신 장군님을 뵈우게 되니 자신의 늙음이 한층 더 뚜렷하게 느껴지였다.

허헌은 딸 허명주를 만났을 때 기쁨과 행복과 후회가 한데 어린 눈에 눈물이 글썽하여 《네가 택



한 길이 옳았다. 너의 일이 반갑다. 나는 너희 앞날에서 민족의 래일에서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며 어느 자그마한 촌학교에서 교장노릇이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싶다고 하였다.

그동안 허헌은 학교교육사업을 료해하였다. 민족의 후대를 키우는 일을 하고싶었다. 다른것은 자신이 없지만 그 일은 할수 있을것 같았다. 허헌은 후대들의 먼 앞날에서 자기가 성취 못한 행복을 그려보며 흥분하였고 그 꿈을 사랑하였다.

허헌은 나라의 중책을 지닌후에도 여전히 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지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의 심중을 리해하시고 어느날 새벽에 그를 찾으시였다. 병약한 로인의 건강때문에 새벽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찾지 않으시던 장군님께서 그런 전례를 잇으신듯싶었다. 필경 중한일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허헌이 방안에 들어섰을때 장군님께서서는 책상우에 퍼놓은 설계도면을 보고 계시였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았는데 장군님의 안광에는 생기가 넘치고 표정도 밝으시였다.

《이른새벽에 찾아서 안됐습니다.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을 책상앞으로 안내하시였다.

《이건 종합대학설계도입니다. 선생은 한때 학교교장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교육부문에 조예가 깊은것만큼 좋은 의견을 내놓으리라고 믿습니다.》라고 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시였다.

《그래 어떻습니까...》

장군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허헌은 종합대학교사의 규모가 아주 반대함을 알게 되였다. 그러자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금 나라의 형편으로써는 이토록 큰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며 또 착공을 한다하여도 오랜 시일이 걸릴것이었다.

《마음에 안드는 모양입니다.》

그 말쯤에 허헌은 서둘러 머리를 저었다.

《어찌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족입니다. 다 좋습니다. 충고도 좋고 창문들도 크고...우리 나라의 첫 대학교사로서는 아주 대단한 건물입니다. 다만 저는...》하고 허헌은 뒤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였다.

이미 짐작을 하신듯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자금걱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김책동무도 자금걱정을 했습니다. 실체를 보는 사람마다 자금걱정을 합니다. 나라형편이 넉넉치 못한것만큼 자금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금 돈을 쓸데가 많습니 다. 그러나 후대를 키우는데 돈을 아껴서는 안됩니다. 대학건물이 큰만큼 학생을 많이 받을수 있고 학생을 많이 받는것만큼 나라가 부강해질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의논하시듯 나직한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허헌선생,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가 있습니다. 선생생각에는 그걸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허헌은 그 애국미처리문제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함을 잘 알고있었다. 애국미를 철도나 광산로동자들에게 우대미로 더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 돈으로 천을 구입해다가 인민들에게 옷을 해입히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걸 관개수리비로 쓰면 좋겠다는 일군들도 있었다.

《장군님 저는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나는 애국미를 의의롭게 쓰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데는 좀 돌보지 못하더라도 농민들의 애국적 열의가 깃든 옥백미로 종합대학을 짓자는 의견입니다. 그 쌀을 소비해서 없애기보다 종합대학을 지어 농민들의 애국심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자는것입니다. 기념비로 세워진 종합대학교사를 볼적마다 농민들이 기뻐할것이고 학생들도 부모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공부를 더 잘할것이고... 후대 교양에 좋을것입니다.》

무엇인가 변죽이며 뇌리를 스치였다. 위대한 사상의 섬광같은것이 뇌리를 스치자 허헌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래전에 약해졌던 시력이 문득 밝아진듯싶었다.

《장군님, 인민의 총의에 받들리워 대학교사가 세워진다면 그이상 더 좋은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와 인민의 경사일것입니다. 세상에 농민들이 바친 애국미로 세워진 대학은 없는줄 압니다.》

허헌은 말년에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관심하지도 않았다. 늙은 원예사처럼 자기의 생전에는 맛볼수 없는 열매를 위하여 애 어린 과수모를 심고싶은 녀원이 있을뿐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는 허헌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럼 됐습니다. 나이많은분들이 동의하니 됐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서는 이왕 나왔던건에 새벽산 보나 하자고 하시며 밖으로 나가시였다. 종절모를 가볍게 눌러쓴 허헌이 그이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허헌이 안면이 있는 건설부문 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일행은 모란봉 기슭을 따라 한동안 걸어갔다. 대동강 저편에서 아침노을이 타올랐다. 아침마다 보게 되는 그 노을이 오늘은 뜻이 있어보이였다. 허헌에게는 목전의 일이 아니라 먼 장래에 벌어질 일들이 상상속에 떠올랐다. 마음은 자꾸 그리로 끌려갔으며 자기의 생은 영원할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 기슭의 둔덕진곳에 오르시여 사방을 돌아보시였다. 대동강으로부터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다. 숲속에서는 상쾌한 공기가 풍기였다. 새벽이슬에 날개를 적신 새들이 부산스럽게 울었다. 새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한동안 전망을 살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키가 크고 말수

가 적어 항상 심중해보이는 건설부문 책임일군을 부르시었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사전에 이미 토론되어있은듯 건설부문 책임일군은 아주 확정적인 어조로 인차 대답하였다.

《여기에는 앞으로 내각청사를 앉히려고 합니다.》

그 일군은 자기의 뜻을 확신시키려는듯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누구도 그 일군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허헌도 내각청사란 곧 장군님께서 계시는 건물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고 그러므로 그 건물을 좋은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것쯤은 상식적으로 알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슬에 젖은 옷섶을 터시고 담담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모란봉은 인민들의 유원지로 보존해야 합니다. 내각청사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내각청사나 기관건물같은것은 절대 여기에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각청사는 아무데나 지으면 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활기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여기는 내가 봐두고 아껴오던 터전입니다. 이 자리를 후대를 위해서 씁시다. 여기에 종합대학교사를 지읍시다. 자리가 좋습니다. 가까이는 모란봉이고 저 아래로는 대동강이 흐르니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학생들이 책도 보고 휴식도 잘할수 있을것입니다. 건설부지는 넓습니다. 앞으로 기숙사도 짓고 교원들의 주택도 짓고 연구소같은것도 지어 여기를 종합대학구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시다.》

중절모를 벗으며 허헌은 장군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었다. 경모의 정이 어린 사려깊은 늙은이의 눈은 장군님의 모습을 처음인듯 살피었다. 장군님의 세계는 헤아릴수 없이 웅심깊은것이어서 허헌은 하루에도 몇번씩 깊은 감동을 가지고 그 세계를, 끝없이 이어지고 심화되는 그 세계에 접하게 되는것이다. 젊으신 나이에 어떻게 되어 그토록 심원한 예지를 지니신것인가. 장군님의 민족애에 허헌은 재삼 감사를 드릴뿐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장군님, 후대들을 위한 일인데 아낄것이 없겠지만 자리는 정말 아깝습니다. 교사를 앉히기에는 실로 아까운 자리입니다.》

허헌은 공손히 백발을 숙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한 표정이시었다.

《그렇게 아까운곳이면 됐습시다. 제일 좋은 자리를 민족의 후대를 위해 바칩시다. 허헌선생이 좋다고 하니 교사자리는 결정되었습니다.》

모란봉 기슭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허헌은 장군님의 부축을 받았다. 그리고 장군님의 권고로 그이와 함께 승용차에 오를 때도 부축을 받았다. 뒤좌석에 장군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 차창밖을 내다보며 허헌은 세월과 함께 굳어진 명이, 짓밟힌 민족교육

에 대한 한탄과 걱정때문에 든 그 명이 삭아지는것을 느끼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조선민족만큼 자식들 교육에 관심이 있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민족은 없는줄로 압니다. 근심걱정이 없이 자식들을 공부시켰으면 하는것이 우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이었습시다. 저는 오늘 그 숙망이 풀리는걸 보았습니다.》

허헌의 음성은 감격에 젖어있었다.

《그 숙망이 다 풀리자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는 나라에 돈이 좀 생기면 인차 면비교육, 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부터 생각했던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회상에 잠기시며 이윽히 창밖을 내다보시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허헌은 후대교육을 위하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바치고싶은 욕망에 가슴을 들먹이었다. 다른것은 몰라도 거기에는 웬일인지 자신이 있었다. 그리하여 종합대학 총장의 무거운 직무에 임명되었을 때에도 허헌은 자신심에 넘쳐있었고 자기가 나이보다 쪼렷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 4

허명주는 불안스럽게 말하였다.

《아버지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자리에 몸져누운 허헌은 가볍게 한번 머리를 저었다.

《그만두어라.》

기력이 쇠진한 허헌은 눈시울을 맥없이 내리깔고 딸이 권하는 물사발조차 들려고 하지 않았다. 창백한 이마우에 드리운 백발과 얼굴의 깊은 주름살은 허헌의 다난했던 인생을 말없는 가운데 표현하고있었다. 허헌이 서울에서 감옥생활을 할 때 그의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출옥후 하얗게 된 아버지의 머리를 보고 터지는 울음을 삼키던 어머니의 모습을 허명주는 생생하게 기억하고있다. 그후 거듭되는 체포와 탄압에 허헌의 건강은 말할수 없이 파괴되어 해방후 평양에서 상봉했을 때 허명주는 아버지의 때이른 로쇠와 병약한 몸을 보고 눈물을 머금었다.

《아버지, 아무래도 입원치료를 해야겠어요.》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것 같지 못하였다. 불안과 슬픔이 어린 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듯 눈을 뜬 허헌은 힘겨웁게 손을 들고 간청하듯 말하였다.

《일없다. 나는 조용히 있고싶을뿐이다.》

허명주는 아버지를 등지고 창문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아버지는 분명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것 같았다. 모든것을 단념한 태도였고 그토록 사랑하던 총장사업과 후대교육에서도 손을 놓은듯하였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두려웠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것이였다.

허헌은 자신의 피로움을 사랑하는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후퇴지에서 뒤늦게야 돌아온 허헌은 그날 종합대학을 찾았다. 금싸라기같은 애국미로 한층한층 쌓아올린, 장군님께서 기념비로 건설하여 자자손손 전하자고 하던 그리고 허헌이 아침저녁으로 쓸어만지고 다듬으며 가꾸던 그 교사가 불에 타고있었다. 재가루가 흩날리는 폐허앞에서 허헌은 입술을 앙물고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며 터져오르는 오열에 온몸을 떨었다. 교사는 허헌이 말년의 생을 의탁한 하나의 기둥이었다. 그것은 사랑을 쏟아붓고 마음을 의지하던 기둥이었다. 그것은 민족의 앞날을 상징하는 찬란한 기발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무너지자 허헌도 쓰러진 것이었다.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때문에 몸져누운 것이다.

지금 허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있었다. 후대교육이 중단된 나라를 생각하였다. 민족의 먼 후날에 대한 걱정이 허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전쟁으로 교육은 중단되었다. 교육의 정지는 그만큼 앞으로의 민족발전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허헌은 눈을 감은채 한숨과 함께 머리를 저었다. 할수 없는 일이다. 지금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을 하지 않는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놈과 결사전을 벌리지 않는가. 모든것은 전쟁승리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가 무엇이며 대학생이 무엇이고 수업이 무엇인가. 이 모든것은 나라의 운명에 비길바가 아니다. 우선 전쟁을 이기고보자. 교육사업은 그다음에 논의할 문제이다. 그런데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허헌은 막막하기만 하였다. 아 언제면 교사를 다시 짓고 학교를 열겠는가. 과연 그날이 언제인가. 허헌은 통분함을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장군님께서 허헌의 집에 도착한것은 얼마후였다. 허명주가 문밖으로 달려나가고 허헌이 자리에서 겨우 일어났을 때 장군님께서 벌써 방안에 들어서시였다.

《총장선생, 몸이 편치 않다는데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자애와 걱정이 어린 안광으로 허헌의 모습을 살펴보시며 그의 손목을 잡으시였다. 그리고 간간이 뛰는 늙은이의 쇠진한 맥박을 가늠해보시였다. 허명주를 돌아보시며 의사를 부를걸 그랬다고 하시였다.

《맥박도 약하고 얼굴색도 좋지 못합니다. 총장선생, 병원에 입원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입니다.》

허헌은 장군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복을 단정히 하고 정중한 자세로 앉았다.

《장군님, 저야 내내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제 래일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허헌은 그것이 자신없는 일이었지만 달리는 말썰미될수 없었다. 평소에 장군님께서 찾아주시면 용기백배하여 젊음을 되찾던 허헌이 오늘날은 그러지 못하였다. 허헌은 그것이 야속하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장군님께 더 큰 걱정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나직하게 말씀하시였다.

《총장선생, 우선 휴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다보니 우리가 선생을 제때에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선생은 어떻게 하나 건강을 보존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후대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래 앉아있어야 합니다. 선생은 건강을 보존하는것이 기본임무입니다.》

허헌은 황송하여 백발을 정중하게 숙이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멀리 남포쪽에서 폭음이 울리였다. 적기들이 평양 방향으로 가깝게 접근하는것 같았다. 학교들을 또 폭격하겠는가. 허헌은 폭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가슴을 조이게 되였다. 허헌의 심정을 아신듯 장군님께서서는 지나가는 폭음이라고 하시며 안심을 시키시였다.

《오늘아침에 전후 평양시 복구건설문제를 토의하다가 총장선생이 참석하지 않아 종합대학건설문제는 잠깐 뒤로 미루었습니다.》

전후복구건설이라니? 허헌은 분명 그렇게 들었으나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 전쟁승리가 눈앞에 왔단말인가.

장군님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복구계획을 세우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아야 전쟁이 끝나면 그이튿날부터 건설에 착수할수 있습니다. 종합대학교사도 지금부터 설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건설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총장선생이 책임지고 설계하는게 좋겠습니다. 재건이 아니라 민족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크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동안 생각해두신듯 장군님께서서는 담담한 어조로 여유있게 말씀하시였다. 어려운 전쟁을 잊은듯 그리고 이미 전쟁을 이기신듯 장군님의 모습은 허헌이 처음 대할 때처럼 활기가 넘치였다.

《총장선생, 전선에 나간 대학생들을 전원 소환하겠으니 시급히 개교를 해야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나직하게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루 중단하면 우리 나라는 십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민족의

홍망을 좌우합니다. 그런만큼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교육사업을 중단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총장선생이 앓는다고 하니 겁이 났습니다. 할일이 많습니다. 전후 대학건설준비도 하고 전선에서 돌아오는 대학생들을 받을 기숙사도 꾸리고 교구비품도 준비하고... 총장선생이 알고있는바이지만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남들이 증기기관차를 물고다닐 때 갓쓰고 하늘소를 타고다니면서 음풍영월을 하며 허송세월을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해방이 되어 나라를 일떠세우니 이번에는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온 강토를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맥을 놓으면 안됩니다. 결심을 하고 일어서서 나라를 강국으로 건설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다른 나라를 넘겨다보지 않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장군님의 음성은 격하게 울리었다. 그와 동시에 안팎에는 심중의 결심인듯 위엄스러운 광채가 어리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좀처럼 나타내보이지 않고 심중에만 간직하고계시던 굳센 의지가 장군님의 안면에 나타나있었다.

장군님의 구상에 심취되어있던 허헌은 그이께서 집을 떠나신 다음에도 한동안 까닥하지 않고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기쁨과 흥분으로 들먹거리던 가슴이 진정된후에야 허헌은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재삼 음미할수가 있었다.

《명주야, 세계전쟁력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 어려운 전쟁을 하면서 대학생들을 소환하고 학교를 개교한 그런 전례가 없다. 전쟁을 하면서 전후 복구건설을 준비한 그런 전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민족의 어버이만이 생각해낼수 있는 위대한 구상이다.》

허헌은 명주를 돌아보며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고 이튿날부터 젊음을 되찾은듯 성수가 나서 일에 전심하였다.

허헌은 장군님의 구상에 매혹되어 정주로 떠난 것이고 적기의 폭격으로 다리가 파괴되어 도저히 강을 건널수 없게 되자 강가에 매두었던 나루배에 승용차를 싣게 하고 강을 건느게 하였던것이다. 배가 방금 강기슭을 떠났을 때 갑자기 적기가 달려들었다. 사뭇치며 범람하는 강물도 적기의 폭격도 허헌의 결심을 꺾지 못하였다. 허헌은 하늘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줄곧 앞을 주시하며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배는 강북판에서 파괴되었다...철썩철썩 강기슭을 스치는 단조로운 물소리가 여전히 뒤를 따랐다.

허헌은 딸에게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사상을 리론으로 체득한것도 아니고 너처럼 혁명투쟁속에서 배운것도 아니다. 나는 민족주의자로서 장군님께 인간적으로 매혹되었고 장군님을 따르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나. 누구든지 진심으로 장군님을 따르면 참다운 인간이 되는거다. 나는 이걸 글로 써서 세상에 남기려고 했다...》

거칠어진 숨결을 잠시 돌리고난 허헌은 마음의 밑바닥을 기울여 행방조차 모르는 딸 허명주의 운명과 찾을길 없는 나라를 두고 죽을수도 눈을 감을수도 없던 해방전 그날을 회상하며 계속하였다.

《사람이란 말년에는 자기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후대들의 앞날에서 행복을 찾고 후대들의 앞날에서 자기의 생이 끝난이후의 세계를 그려보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늙은이들이 아들보다도 손자를 더 귀해하고 사랑하는거다. 손자란 다음아닌 미래의 이 세상에 살 주인이니까. 손자를 사랑하는 감정, 그것이 바로 미래를 사랑하는 감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후대들의 장래가 막막하고 암담할 때 늙은이들은 죽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 나는 지금 안심한다. 우리 후대들과 민족의 찬란한 앞날을 눈앞에 보고있고 느끼고있고 확신하며 자랑하고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을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그 행복을 성취하자면 그만큼 크고 값진 대가를 치르어야 함을 허헌은 잘 알고있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바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되었다.

때마침 푸른 하늘사이로 내리비치던 해빛이 저쪽 버들방천우에 드리워졌다. 버들방천쪽에서 어미를 찾는 애송아지의 걱정어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시절 고향의 들판에서 들던 그 귀엽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던 애송아지의 울음소리였다. 소년시절 어느해 여름날 저녁 풀단을 한짐 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풀잎에 묻은 불개미가 귀에 기여들어가서 눈물을 짜던 일이 생각난다. 어머니가 황급히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귀안에 참기름방울을 떨어뜨려주던 일이 생각난다. 고향에 있는 그 방천과 똑같은 저쪽 버들방천에서 울리던 송아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더니 이윽하여 강변에 깊은 고요가 깃들었다. 그놈의 송아지가 인젠 어미를 찾은 모양인가... 회백색구름을 밀쳐버리면서 푸른 공간은 시시각각 넓어지고있었다.

# 룡성번영하는 공화국과 더불어 찬란히 개화발전하여온 우리 문학의 영광의 40 년

리봉진

## 1

항일혁명문학의 빛나는 전통에 력사적 뿌리를 내리고 해방된 민주의 풍만한 토양우에서 싹트고 자라 향기 그윽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개화발전하기 시작한 우리의 문학이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40 이란 년륜을 시대와 력사 앞에 아로새겨놓았다. 돌이켜보면 공화국 품속에서 오늘에 이르는 40 년간 우리 문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투철한 복무성으로 일관된 빛나는 력사이며 우리 문학력사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빛나는 문학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으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조직교양자, 선전자로서의 력사로 일관된 영광스럽고 보람찬 나날이었다.

이 거창한 비약의 40 년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문학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 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자기의 혁신적 면모와 뚜렷한 풍격을 갖추고 자기 발전의 가장 높은 령마루에 치달아오를수 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찬란히 빛내이고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문학은 혁명문학의 본보기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정서생활과 투쟁에서 떼어낼수 없는 친근한 길동무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문학의 오늘의 이 찬란한 개화발전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문예방침 그리고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자랑찬 승리인것이다.

참으로 공화국의 룡성번영과 더불어 빛나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오늘뿐 아니라 래일도 더욱더 승승장구할것이다.

나라가 해방되고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지난 40 년간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항일혁명문학의 빛나는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처음부터 주체혁명위업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문학으로서의 자기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 친히 작가들의 대오를 무어주시였으며 주체적인 문예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해방후 우리 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평화적 건설시기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적인 혁명문학으로 전면적으로 빨리 발전하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우리 문학은 공화국창건을 계기로 더 한층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 시기 우리 문학은 공화국창건과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력사적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사상미학적 요구에 토대하여 소설문학, 시문학, 극문학, 아동문학 등 모든 형태의 문학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게 되었으며 특히 영화문학이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 문학의 새로운 면모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찬양, 경애하는 장군님을 수령으로 모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형상한 작품창작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되었다. 우리 문학의 면모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을 빛나게 형상하는 데서도 나타났을뿐아니라 인민민주주의제도하에서 꽃피는 인민들의 새 생활을 형상한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을 창작한데서도 표현되었다.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의 작품창작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작품창작을 통하여 공화국의 품속에서 개화발전하는 주체의 혁명문학으로서의 자기의 면모와 풍격을 뚜렷이 하였다.

평화적 건설시기 우리 문학이 이룩한 대표적 작품들은 소설문학분야에서는 장편소설 《땅》(1부리기영), 단편소설들인 《탄맥》(황건), 《땅의 서곡》(천세봉), 《그전날밤》(리동규) 등이다.

장편소설 《땅》은 주인공 박바위의 성격을 통하여 나라가 없고 땅이 없는 탓으로 하여 모진 가난 속에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머슴군이었던 그가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으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농촌위원회위원으로,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 벌어진 세기적인 사회경제적인 변혁과 그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새로운 인간의 아름다운 면모를 빛나게 확인하였다.

장편소설 《땅》은 이 시기 개화발전하는 소설문학의 높이를 보여주는 대표작의 하나일뿐아니라 해방후 첫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

이 시기 시문학분야에서 이룩한 대표적 작품들은 《승리의 선언》(정문향),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 드리는 시》(김조규), 《당의 기발아래》(안룡만), 가사들인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김우철), 《벼가울하러 갈 때》(김순석), 연시 《항쟁의 려수》(조기천), 서사시들인 《백두산》(조기천), 《한나산》(강승환) 등을 들 수 있다.

가사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진정한 공화국정부의 탄생에 대한 전인민적인 찬양과 뽐어넘치는 격정을 노래한 의의있는 송가이다. 작품에는 백두산 천지에서 제 주도 끝까지 하나로 뭉친 인민의 줄기찬 힘으로 일떠세운 공화국정부에 대한 다함없는 환희와, 기쁨,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통일된 조국의 래일을 추수하는 열렬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면서 공화국을 길이 받들어 부강조국으로 세계만방에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결의를 힘있게 노래하고 있다.

회곡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박령보), 《원동력》(류기홍), 《성장》(백문환), 《자매》(송영) 등과 영화문학 《내 고향》(김승구) 등은 이 시기 대표적인 국작품들이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문학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복무하였다. 전쟁의 불길은 작가들을 성스러운 조국보위와 원썬격멸의 전투정신으로 불러일으켰으며 복수의 총검을 들어온 작가-투사로 전변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전적 로작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

**다》,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예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비롯한 력사적 로작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 승리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는 대책들을 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문학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특성은 작품에 반영된 주제사상적 내용과 주인공들의 영웅적 성격에서 그리고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문학형태들의 급속한 발전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문학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 고매한 덕성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깊이있게 형상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전쟁문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풍격과 전투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인민군전사-영웅들의 성격을 창조하면서 그들의 영웅적성격의 본질과 특성, 그 사회계급적 기초, 인민군대의 정신도덕적 품모 등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전사-영웅들의 전형 창조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또한 미제를 비롯한 계급적 원썬들의 만행과 범죄행위를 세계의 면전에서 폭로단죄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을 중의 문학으로, 원썬격멸의 문학으로서의 반제적, 계급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이 시기 우리 문학은 문학형태들의 발전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우리 문학이 이룩한 대표적인 작품들은 소설분야에서 단편소설 《불타는 섬》(황건), 《구대원과 신대원》(윤세중),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 사람들》(천세봉) 등과 중군기 《격전지구 문산에서》(리복명)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산문들이 창작되었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은 조국의 땅 월미도를 지켜 영웅적으로 싸운 리태훈 해안포중대 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비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뽐어넘치는 흠모와 무한한 충성의 열정에 있다는것을 심오한 형상으로 밝혀낸것으로 하여 오늘도, 래일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그들을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이 시기 시문학분야에서 이룩한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서정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백인준), 《이 사람들속에서》(김조규), 《나의 따발총》(안

룡만), 《조선의 어머니》(조기천), 《조선은 싸운다》(조기천) 등과 가사 《우리의 최고사령관》(김복원), 《결전의 길로》(석광희), 《조국보위의 노래》(조명출), 《전호속의 나의 노래》(심봉원), 《샘물터에서》(최로사) 등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전의 노래였으며 원수에 대한 치욕은 증오와 복수의 노래였으며 결사전에 펼쳐나선 인민군 전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의 노래로 되었다.

이 시기 극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은 희곡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한태천), 《바다가 보인다》(한성) 등과 영화문학 《정찰병》(한상운) 등을 들 수 있으며 아동문학작품으로서는 단편소설 《땅크놀음》(황민), 《학일이 는 자랍니다》(리진화)와 종합시집 《영웅나라 아이들》 등을 들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전후시기에 와서 우리 문학은 전후복구건설과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작가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그 대표적 작품들로서는 소설문학에서 단편소설 《직맹반장》(유항립), 《빛나는 전망》(변희근), 장편소설들인 《시련속에서》(윤세중), 《개마고원》(황건), 《두만강》(1, 2, 3부 리기영), 《서산대사》(최명익), 《동틀무렵》(엄홍섭) 등과 중편소설 《전사들》(석윤기) 등이다.

이 시기 서정시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가사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원종소), 서정시들인 《광장에서》(조벽암), 《새들은 숲으로 간다》(정문향), 《조국의 지도앞에서》(최영화), 시초들인 《평남관개시초》(리용악), 《삼각산이 보인다》(조벽암), 서사시들인 《련대의 기수》(신상호), 《소년빨찌산 서강령》(김학연)과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백인준) 등이다.

이 시기 극문학분야에서는 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리종순), 《그립던곳에서》(류기홍), 《위대한 힘》(리동춘), 《불사조》(송영) 등과 영화문학 《신희부부》(주동인),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으랴》(한상운, 양재춘) 등을 들 수 있으며 아동문학에서는 《새들이 버들골에 깃든다》(리진화), 《쌍무지개》(강효순) 등의 우수한 작품들과 동화들인 《도끼장군》(리원우), 《잠자는 바다》(황민) 등을 들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즐기게 진전하여온 우리 문학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에 와서 보다 전면적인 개화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기에 불후의 고전적 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우리 문학의 사명과 그 발전방향을 밝히시고 사회주의현실과 천리마기수를 비롯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새로운 사상미학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 작가들이 천리마시대의 장엄한 현실과 우리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기수의 성격적 특질을 탐구하고 형상하는데서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는 우리 시대의 전형인 천리마기수의 새로운 성격적 특질을 깊이있게 형상한 특색있는 단편소설들과 다양한 주제의 장중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단편소설들인 《길동무들》(김병훈), 《백일홍》(권정웅), 《명복땅》(리병수),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진재환)등과 장편소설들인 《시대의 탄생》(1부 석윤기), 《대하는 흐른다》(1부 천세봉), 《청년전위》(1, 2부 립춘추)등과 중편소설들인 《회담》(김홍무), 《포성》(정창운)등을 들 수 있다.

단편소설 《길동무들》은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 자기의 개성적 면모를 특색있게 보여준 대표작의 하나이다. 소설은 산간지대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한 농촌처녀의 아름다운 리상과 고상한 품모를 통하여 우리 시대 농촌천리마기수의 전형으로서 소박하면서도 량만적이고 진취적이면서도 정열적인 성격을 훌륭히 창조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소설문학발전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겨놓았다.

이 시기 시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은 서정시 《날이 밝는다》(정서춘), 《크나큰 사랑》(최영화), 《대동강에 흐르는 이야기》, (백인준),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오영재) 등과 가사 《눈이 내린다》(김재화) 《청년사회주의건설자 행진곡》(리호일) 등이다. 서정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는 우리 나라 농촌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소박하고도 순진한 수수한 농장의 보통처녀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그는 열두삼천리 넓은벌에서 농장의 주인답게 소문없이 큰 일을 해놓고서도 오히려 수줍음을 타면서 자기를 내세울줄도 자랑할줄도 모르

는것이다. 그러나 그 처녀의 심장에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이다. 서정시는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천리마시대의 인간, 한 농촌처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이며 그에 대한 조국의 뜨거운 사랑을 감동적으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시문학에서 확고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 시기 회곡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장막희곡 《해바라기》(박령보), 《붉은 선동원》(조백령), 《산울림》(리동춘), 《아침노을》(박령보), 《우리는 행복해요》(한도수), 《청춘의 활무대》(지재룡) 등이며 영화문학 《한 지대장의 이야기》(리종순), 《정방공》(한성), 《최학신의 일가》(백인준), 《철길우에서》(집제작), 《성장의 길에서》(백인준), 《인민교원》(한상운, 허용삼) 등이다.

회곡 《붉은 선동원》은 천리마시대가 낳은 새 인간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극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한 대표작의 하나이다, 작품은 주인공인 붉은 선동원 리신자의 사상정신적 특질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 그 성격형상을 통하여 동천벌에서 일어난 인간계조와 그 과정에서 이룩된 농업생산에서의 일대 양양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함으로써 극문학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하였으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 2

1970 년대로부터 1980 년대 우리 문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였다.

력사적인 당 제 5 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혁명적 고조가 일어나고있던 시기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 정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우리 문학을 새롭게 발전시킬데 대

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 정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문헌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고전적 로작들을 내놓으시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그 수행방도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을 다른 모든 예술형태들에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문학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리론과 작품의 종자에 관한 리론을 비롯한 독창적인 문예방침은 이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문학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교상한 존재로 내세우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산 인간과 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한 제반 미학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문학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 과정에 우리 작가들은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뚜렷이 내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문학작품의 종자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상에 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들은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아야 자기의 창작적 의도와 지향을 옳게 실현할수 있으며 높은 사상에 예술성과 철학적 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는 근본열쇠를 가지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문학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 등 모든 령역에서 거대한 혁명적 변혁을 일으켰으며 소설, 시, 회곡, 영화, 가극, 아동문학 등 모든 형태의 문학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그 사상에 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짐으로써 대전성기문학으로 그 위용을 떨칠수 있게 되였다.

이 시기 소설문학의 발전과 그 성과를 특징짓는 특기할 사변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들과 수령님의 혁명적 가정을 형상한 작품들이 전례없이 왕성하게 창작된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



주의문학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과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 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히신 수령형상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수령형상창조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들인 《맞은 올랐다》(김정), 《1932년》(권정웅), 《백두산 기슭》(현승걸, 최학수), 《고난의 행군》(석윤기), 《준엄한 전구》(김병훈) 등을 창작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조야말로 우리의 주체적인 소설문학이 도달한 높은 경지와 차원을 증시하는 불멸의 기념비인 동시에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제를 완전히 개척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이외에도 단편소설들인 《맑은 아침》(고병삼), 《철의 력사》(변희근), 《영원》(안동춘) 등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인 《만경대》(황민), 《동트는 압록강》(문희준), 《배움의 천리길》(강효순) 등이 있다.

이 시기 소설문학분야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작품들이 새롭게 많이 창작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커다란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쌓은 우리 작가들은 1970년대말 1980년대초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단편소설들인 《고요》(리종렬), 《기억》(현승걸), 《아끼시는 심정》(박현), 《소문봉의 폭풍》(석윤기)등과 장편소설 《아침해》(현승걸)는 그 대표적 작품들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만년대계의 은률광산 장거리벨트르베아수송선 건설을 발기하시고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폭넓고 감동적으로 형상한 첫 장편소설이다.

소설에는 은률광산의 박토처리와 관련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문제와 그 해명과정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 무비의 담력과 비상한 혁명적 전격력,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레찬하고 칭송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고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가정과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장편소설들인 《력사의 새벽길》(리기영),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중 《충성의 한길에서》(1~5 부),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 석윤기)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우람한 현실을 반영한 작품창작과 기타 주제의 작품창작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장편소설들인 《생명수》(변희근), 《평양시간》(최학수), 《새봄》(김규엽), 《령마루》(엄단웅), 《뜨거운 심장》(변희근), 《대지의 아침》(고병삼), 《동트는 강산》(백보흠), 《야금기지》(허춘식), 《탄부》(김문창), 《청춘송가》(남대현), 《갑오농민전쟁》(1, 2 부 박태원), 《눈새바람》(상, 홍석중)등과 중편소설들인 《불바람》(리종렬), 《병사의 고향》(김동욱), 《불꽃》(박찬은), 《락동강》(엄단웅), 《세대》(김삼복)등이다. 또한 단편소설들인 《자기 위치 앞으로》(엄단웅), 《혁명전위》(성혜량), 《조국》(리명균), 《하늘과 땅》(김영길), 《내 고향의 작은 다리》(로정법), 《칼도마소리》(안홍운)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장편소설들인 《새봄》과 《생명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치하의 평가를 받은 성과작들이다.

이 시기 시문학의 발전면모를 특징지을수 있는 가장 특기할 사변으로 되는것은 송시, 송가의 전면적인 발전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송시와 송가작품들에는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고매한 덕성과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끝없는 찬양의 감정, 불타는 충성의 마음이 숭엄하게 노래되였다.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집제작), 《태양이 누리에 빛나는 이 봄에》(최영화),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한덕수), 《주체의 태양》(오영재), 서사시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집제작) 등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칭송하는 송가작품들인 《위대한 탄생》(오영재), 《백두의 새날》(김철), 《민족의 행복》(신진순), 《해지고 달뜨는 저녁에》(최준경), 《사랑의 품》(문재진), 서사시 《불타는 해》(백하)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과 조국을 노래한 송가작품으로서는 《어머니》(김철), 《당은 어머니모습》(배현평), 《당중앙의 불빛》(리덕조),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전동우), 《백두밀영의 고향집》(박미성), 《내 삶이 꽃피난곳》(박

운),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리정술),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리정술), 《우리의 신념은 하나》(리정술), 《전사의 의리》(전동우), 《나의 조국》(김상오) 등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축원의 노래인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없는 로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열렬한 칭송, 하늘땅이 다하도록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결의와 지향, 수령님께서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충성의 사상감정이 절절하게 흘러넘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시기 송가문학이 도달하고있는 높이를 보여주는 대표작의 하나이다.

또한 이 시기에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노래한 서정시 《해발》(구희철), 《영원한 충성의 노래》(동기춘), 가사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윤석범), 《잊지 못할 삼일포의 메아리》(전병구) 등의 시가 작품들과 혁명전통주체의 우수한 서정시들과 가사들도 많이 창작되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전진운동을 노래한 시가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었다.

서정시 《강선의 붉은 하늘아래서》(김우협), 《사랑의 흐름선》(차승수), 《조선의 숨결》(리광근), 《더 높이 나래치는 주체공업이어》(조빈), 《우리는 배낭을 벗지 않으리》(리광제), 《우리가 가는 길》(차영도), 《당을 따라》(김치호), 《나의 추억》(홍현양), 《바다와 전사》(김희중), 《버드나무》(유국진), 《물이 일하러 간다》(황승명), 《빛나는 시간》(권강일)등과 서사시들인 《탐사대원의 일기》(김봉철), 《대동강》(오영재) 등과 가사 《사회주의대건설총동원 앞으로》(최준경),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최준경), 《우리의. 행군길》(오영재), 《흘러라 나의 정든 대동강》(리영백, 백수길), 《우리의 맹세》(차영도), 《우리가 제일일세》(최로사), 《우리당이 마음먹고 못한 일 없네》(김정훈),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리종률), 《빛나라 전사의 발걸음》(리정술), 《심장은 불타라 미래는 우리의 것》(박미성), 《신신높이 가리라》(김두일),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최희건) 등은 이 시기 대표적인 시가작품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화 및 극문학도 새로운 면모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영화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영화와 사상예술적 기초인 영화문학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이 시기 영화문학은 독자적인 문학형태로서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고 새롭게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한 다부작 영화문학 《조선의 별》(1~10 부 리종순), 《유격대의 오형제》(1~3 부 집체작), 《로동가정》(전후편, 박봉학, 최용수), 《꽃피는 마을》(한복구), 《사과떨 때》(김세륜), 《이 세상 끝까지》(리춘구), 《열네번째 겨울》(리춘구), 《군당 책임비서》(리춘구), 《보종》(리춘구), 《도라지꽃》(리춘구), 《언제나 한마음》(김희봉), 《그날의 맹세》(김희봉), 《고결한 삶》(김희봉), 《압연공들》(김선홍), 《월미도》(리진우), 《이름없는 영웅들》(1~20 부 리진우), 《평범한 사람》(리덕운)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오늘 우리 영화문학의 높은 경지를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연극혁명의 불길을 지피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성황당》식 혁명연극을 창조하는 과정에 문학으로서의 희곡문학이 사상예술적으로 자기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발전하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아동문학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특히 아동서사시 《새 싹이 움틀 때》(림금단),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김철일), 《보물의 분수》(원도홍) 등은 아이들의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게 잘 구현한 대표작들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지난 40년간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문학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약과 개화를 이룩하면서 전성기문학으로서의 위용을 온 누리에 찬란히 빛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 문학의 래일은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작가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 절세의 영웅

박성선

만약 그 누가 날더러 영웅을 꼽으라면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노래하리  
이 세상 영웅중의 영웅이신  
절세의 영웅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일찌기 준엄한 혁명전의 폭풍을 헤치시며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쓸어버리신분  
엄한의 겨울세상 물리치시고  
인민의 봄세상을 안아오신분

한평생 걸어오신 멀고도 험한길에  
동지애의 위대한 사랑으로  
유명무명의 영웅들을 무수히 키워주시고  
우리 공화국을 영웅의 나라로 빛내주신분

한평생의 매 순간순간이  
만대에 빛나는 업적으로 위대하고  
세월의 눈비를 헤치며 걸어오신 길  
그 어떤 서사시로도 다 엮을수 없어

우리 인민들이 삼가 올린 영웅칭호  
온 세상 인민들이 그토록 열렬히 환호하며

드리고 드린 최고훈장과 메달  
많고많아 이루다 헤아릴수 없나니

력사여 말하라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 수령님께 삼가 드린  
눈부신 금별 얼마나 많은지

하건만 하신 일이 아직도 적으신듯  
가슴엔 하나의 메달도 아니 다시고  
오늘도 백두의 그날처럼  
혁명의 진두에서 대오를 이끄시는 수령님

이 땅의 금은보화를 다 캐내여  
위훈의 금별을 만들어 드린다 해도  
성차지 않을 우리의 마음  
진정 영웅보다 더한 칭호 세상에 없는가

아, 위대함의 절정우에  
영광의 상상봉우에  
태양같이 빛나시는  
이 세상 절세의 영웅 **김일성** 동지이시여 !

## 하늘땅에 넘치는 향도의 빛발

한기운

화창한 봄날의 꽃밭에서  
첫 걸음마 익히는 아기  
그 맑은 웃음에서도  
나는 본다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을

철의 도시의 아름다운 밤노을  
쇠물끓는 자동화의 일터에서도  
나는 본다  
가슴 가득 뜨거운  
사랑의 자욱자욱을

온 세상 향해 바다길 열고  
대갑문으로 드나드는 배고동소리 들어도  
하늘가에 열린 새 거리의 창문을 보아도  
누리는 행복속에 스며드는

사랑의 봄빛을 느껴안는다

얼마이던가  
밤깊은 건설장에서  
쇠돌이 쏟아지는 선광장에서  
새벽안개 흐르는 농장길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지새우신 낮과 밤은

인민의 소원이라면  
천만년 세월이 바라던 꿈도  
오늘에 다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그 자욱자욱  
새 전설로 이어지거니

오곡백과 설레는 산과 들  
꿈같이 솟아나는 거리와 마을들...

베푸시는 그 은혜  
낮이면 해빛처럼 따사롭고  
밤이면 별빛처럼 빛나고

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를 모시여  
인민의 모습 꽃처럼 피고  
그 뜻 받들어가는

인민의 마음도 한결같아  
조선은 영원한 청춘기로 약동하거니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꽃피워가며  
하늘땅 가득 넘치는 향도의 그 빛발  
가는 세월의 비바람도 다 가려주고  
오는 세월의 눈비도 다 막아줄  
내 조국의 영원한 사랑의 빛발이여

## 붉게 핀 꽃송이앞에서

안창만

노을빛에 물들어  
불붙는듯 피여오른 꽃송이  
삶의 환희를 안고  
나를 반겨주는 꽃송이  
**김정일화**

볼수록 아름다워, 볼수록 정들어  
바라보는 사람들 발걸음 못떼고  
새들도 해종일 화원가에 지저귀는데  
내 가슴에 뭉클 솟는 생각  
뜨거운 생각

아, 내 정녕  
어떤 세월에 살고있는가  
내 지금  
그 어떤 경이를 맞이하고있는가

그이께서 탄생하신 그날엔  
밀영의 흰눈우에 신기한 만병초 피여  
봄이 왔다고  
이 땅에 영원한 봄이 왔다고  
기쁨에 겨워 설레이더니

그이께서 혁명의 향로에 나서시여  
향도의 키를 잡으신 빛나는 성상  
그 자욱자욱에 번영의 꽃이 피여  
온 세상이 경탄의 눈길로  
이 땅을 바라보더니

오늘은 이 꽃이 피었구나  
수억만의 마음이  
이 꽃을 피웠구나  
세상이 처음 보는  
진귀한 꽃

푸르른 줄기가 반들어올린  
호함진 그 송이송이  
어떤 세파에도 물젖은적 없는  
순결한 그 송이송이

피여오른 저 붉은 꽃잎은  
참된 삶의 향도자 그이께 매혹된  
만사람의 그 열화  
그 심장이 아닌가

자연의 조화가 이르지 못한곳  
인간정신의 아슬한 절정우에  
붉게붉게 피여올라 나를 부르는 꽃이여  
내 또한 다시 불러보는 그 이름이여

이 꽃이 피여 세상에 피여  
사람들 마음속에도 꽃송이  
세월의 년륜우에도 꽃송이  
자주의 세계는 지금  
황홀한 꽃을 안고  
절세의 위인을 우러르나니

아, 뜨거움이 설레이는 이 시각  
나는 불멸의 꽃을 본다  
크나큰 심장, 높이신 뜻으로  
인생의 터전에 봄빛을 주시는  
그이를  
따사롭고 밝은 우리의 세계를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이  
한생의 운명을 맡긴 그이  
거룩하신 그 미소 만리에 빛발치고  
흠모의 마음, 따르는 마음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  
온 세상에 격동의 파도가 이는  
이 세월...

새들아, 노래를 불러라  
바람아 향기를 실어나르라  
하늘은 그 유구한 푸르름을  
이 꽃우에 얹으라  
땅은 그 부드러운 자양속에  
이 꽃을 안으라

전설적 위인 우러러  
불멸의 꽃이 핀  
오, 이 감격

이 드높은 민족의 긍지  
설레이는 세월의 환희를  
력사여, 간직하라

##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리

라마나까바나 바리송

우리모두 조선으로 가자  
세계인민들이여  
그대 가지 못한다면  
마음이랴도 전하랴  
빛나는 기적들 이룩되는곳  
조선은 별처럼 빛나고있어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천재가 령도하시는곳  
그이께서 인류의 행복을 마련하시는곳으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전진은  
위대한 그이께서 이끄시나니  
위대한 주석께 큰절을 드리자  
간절한 소원을 말씀올리자  
위대한 **김일성** 주석이시여  
우리의 축복을 받으시라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아들들 맹세드리노라  
우리모두 주석께 영원히 충성다하리라고

우리모두 조선으로 가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드리자

(필자는 마다가스카르사람임)

## 백두산에 솟아오른 향도의 별

에마 틀랑

오 우리의 향도성  
백두산에서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솟아오르시였어라  
혁명가요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자라시였나니  
인류는 그이를 우러르며 흠모하여라

그이는 불같은 열정 안고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는 영명한 지도자  
그이는 높은 하늘가에서 빛발 뿌리는 별  
투쟁의 길 비쳐주는 불멸의 별

그이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인민들을 이끌어나가는 향도성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을 고무하시여라  
휘황한 미래에 대한 희망 안겨주시여라  
세계인민들 그이의 풍부한 경험 따라배워라

주체의 대화원 세계만방에 향기풍기나니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  
그이께 최대의 존경과 영광 드리여라

(필자는 부르끼나 파쏘사람임)

## 어머님께서 피우신 꽃

리덕진

단풍이 아름다운  
오산덕기슭에  
꽃을 안고 서계시는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찾아오고 찾아오는  
천만의 가슴들에  
향기 짙은 그 꽃을 안겨주시려는듯  
낮에도 밤에도 꽃을 안고계시여라

흰눈이 내리고  
찬바람 불어와도 변함없네  
어머님 안으신 그 꽃은  
한번 피어 언제나 지지 않는 꽃

생을 바쳐 찾으신  
조국의 모습인가  
한생에 다시 없는  
기쁨의 녀인가

가장 행복한 웃음을 띄우시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서계신듯  
한모습 언제나 변함없으신 어머님  
우러르는 이 가슴에도 꽃을 안겨주시네

아, 그 꽃은  
장군님께 올리신 기쁨이어서  
그날의 그 순간에 오늘도 서시여  
어머님은 안겨주는구나  
한번 피어 언제나 지지 않는 그 꽃을

## 어머님의 영웅메달

정천례

오래전에 오래전에 올렸어야 했다  
흥기하와 대사하치기  
장군님앞에 방패되시던 그때에  
올렸어야 했다  
2월의 환희안고 밀림이 설레던 때에

살아생전에 올렸어야 했다  
어머님 싸우신 항일의 전적지  
친위전사의 그 많은 위훈위훈에  
해방된 조국의 방방곡곡  
꽃피우신 불멸의 자옥자옥에

매해 올렸다 해도 다 헤아리지 못할  
어머님의 공적을 다 담아안고  
눈부시게 빛을 뿌리는  
어머님의 영웅메달

해빛처럼 별처럼 산 삶  
해가 갈수록 세우신 위훈 더욱 빛을 뿌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무에 년륜이 늘어나듯  
쌓으신 공적은 더욱 커지나니

수령님 모신 락원의 이 강산  
우리 행복 커가면 커갈수록  
늘어나는 행복안고

금별은 빛나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모시여  
우리 앞길 휘황할수록  
휘황한 앞날 안고  
금별은 찬란해라

한번만이라도  
살아계신 어머님 앞가슴에  
단 한번만이라도 달아드렸으면 하는 소원  
어머님의 가슴에선 빛나지 못했건만  
우리의 가슴에 그 눈부신 빛발이  
더 뜨겁게 빛발쳐오나니

생각되여라  
저 찬란한 빛발  
오늘은 어머님의 당부 안고 속삭이는듯  
혁명가로 한생을 빛나게 살라고

한 인간의 가슴에 빛나는  
위훈의 총화가 아니여라  
오늘의 세대, 먼먼 후대들의 가슴에  
충성의 높은 뜻 절절하게 심어주는  
아 빛나는 금별, 어머님의 금별이여!

## 9 월의 하늘을 우러러...

《김일성훈장》 수훈자, 《김일성상》 계관인, 로력영웅 김병훈

전국 40 뿔을 맞는 조국의 푸르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노라면 가슴뜨겁게 젖어드는 감개를 금할길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우리 당이 장장 반세기가 넘는 세월 주체혁명의 길을 개척하시고 승리로 령도하심으로써 유구한 인류력사와 시련에 찬 반만년민족사우에 처음으로 세워진 존엄있고 강대한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발이다.

그 기발속에 우리 민족이 쟁취한 모든 공지와 행복이 있고 희망과 념원도 있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그 기발을 바라보면 힘과 자부와 용기가 솟아오른다. 또한 그런 까닭에 우리 인민은 언제 어느때 어떤 역경에서도 그 기발을 지키기 위하여 힘과 땀, 정력과 지혜, 지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민족의 자랑높은 승리의 기치, 람홍색 공화국기발이며, 9 월의 가없이 푸르른 창공에 휘날려 40 년간 조국은 얼마나 거창한 전변의 세월을 줄달음쳐왔는가!

념원은 비록 간절하여도 나의 모자라는 키와 제한된 좁은 안목을 가지고는 그 모든 전변의 역사를 한시야에 돌이켜보기 어렵다.

다만 나는 창작의 붓을 들어 수십여년간 함께 살아온 나의 작품의 주인공들과 더불어 전변의 그 세월을 더듬어보고저 한다.

천리마대고조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소설을 쓰기 시작한 나는 50 년대 하반기와 60 년대 초에 걸쳐 천리마대진군현실을 담은 작품을 많이 썼다.

대부분이 졸작이다보니 30 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는 거개가 색이 바래여 독자들의 기억에 남을만한것이 별로 없이 희미해졌으나 작가에게는 못나도 제자식이라 손이 팔리어 원고지우에는 옮겨놓지는 못했던 당시의 창작적 충격과 의도까지도 보태여가며 그날의 나의 주인공들의 군상을 더듬어본다.

나는 당시 력사에 전례없는 대고조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 전국 방방곡곡의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과 협동농장들을 찾아다녔다. 그가운데는 해주-하성 철도공사장도 있고 2. 8 비날론공장 건설장도 있었다. 나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인 수많은 천리마기수들을 만나보았으며 그들을 원형으로 하여 10 여편의 단편소설과 1 편의 중편소설을 창작하였다.

건설자, 농장원, 당일군, 프락뜨로운전수, 기사와 의사 등... 직업도 각이했으나 그들은 모두 해방과 민주건설, 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을 함께 치른 나의 동세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기랑탓으로 잘 그려지지는 못하였으나 그런대로 서로 돕고 이 끝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남이 한 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릴데 대한 당과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비약의 나래를 펼친 우리 인민의 기상을 체현하였다.

나는 또한 나의 주인공들을 단순한 천리마현실의 확인자로서가 아니라 세월을 주름잡아 앞당겨울 사회주의, 공산주의 먼 미래에도 나래치는 신념과 의지, 희망과 리상까지도 체현하는 강력한 랑만주의정신의 구현자들로 그리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나의 작은 머리속에 있는 환상에 가까운 상상력까지 깡그리 짜내여 주인공들에게 꿈과 리상을 주었다.

30 년세월이 지난 오늘 나의 주인공들의 그 《환상적인》 리상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두메산골 농장원처녀 《길동무들》의 주인공은 한조룡의 고기새끼를 얻어가지고 가는 차칸에서 교향산촌의 골개울을 막아 양어를 하여 마을사람들에게 펼 펼 뛰는 생선을 먹일 꿈을 자랑한다. 꿈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당 수리화정책으로 하여 생겨난 전국저수지의 방대한 면적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모두 양어를 하면 인구일인당 생선이 얼마큼 차례진다는 엄청난 타산을 하여 동행하는 군당위원장을 반하게 한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수지에서 양어를 하는것쯤은 상식의 상식으로 되어버렸다. 지금은 허허 날마다 수평선우에 떼를 띄우고 바줄을 늘이며 바다가양식장을 꾸린다. 그것이 은을 내면 년간 생산량은 말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자이다. 그것도 《길동무들》의 주인공처럼 료원한 꿈이 아니라 눈앞에 실현되고있는 현실이다.

단편소설 《별》에는 2.8 비날론공장 건설장으로 달려간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들은 한밤중 높은 트라스우에서 용접불보라를 날리며 한생을 당이 부르는 대건설장에서 바칠 결심을 하면서 번영할 조국땅의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주인공도, 작가인 나 자신도 어찌 오늘의 대건설행군을 꿈에조차 그려볼수 있었겠는가!

북부철길공사장으로부터 험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며 대동력기지건설장들, 그리고 서해연선의 대간석지건설장을 거쳐 순천의 대화학공업기지건설장, 광복거리건설장,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건설장, 그리고 멀리 남쪽으로 험한 산발과 골짜기들을 지나 분계선끝까지 뻗어내리는 고속도로건설장, 그 개개가 모두 2.8 비날론공장의 수신패가 될지 수백패가 될지 알수 없는 엄청난 대건설장들이 조국땅 동서남북 어디에나 빈자리없이 일시에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서해바다기슭 어느 작은 마을에 측량기며 뿔대같은것을 실은 자전거들이 행렬을 짓고 나타났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마을조무래기들이 자전거행렬을 에워싸고 벽작거렸다. 자전거부대는 간석지측량조사대인것이다. 조사대원들은 아이들에게 장차 마을앞의 바다가 아득한 수평선너머로 물러갈 점선으로 된 새 지도를 펼쳐보이면서 동화같은 이 꿈의 실현은 아마 너희들 대에 가서 너희들 손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리라고 하여 아이들은 환성을 올린다. 이것이 소설 《새 지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실지로 《새 지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열두삼천벌에 현실체험나갔다가 만났었다. 그때 나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지도의 환상적인 점선을 굽고 진한 실선으로 그어놓을 마을조무래기들을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공연한 부러움이였다. 오늘 그 환상은 조무래기들의 대가 아니라 조사대원자신들의 세대, 나자신의 세대에 이미 실현되고있는것이다. 수천정보, 수만정보, 한개 리, 한개 군, 몇개의 군에 맞먹는 대지가 정말 동화의 환상처럼 불쑥불쑥 물위에 솟아올라 수평선을 아득한 큰바다로 밀어내며 조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있는것이다.

철도의 전기화, 자동화를 꿈꾸던 《해주-하성서 온 편지》의 주인공들, 농촌의 종합적 기계화의 실현을 일생의 리상으로 삼고 싸우던 중편소설 《봄소나기》의 주인공들, 그밖에 당시에 씌여진 나의 소설의 모든 주인공들, 머리속의 환상력을 짱그리 짜내어 형상한 나의 모든 주인공들의 이러루한 환상적인 리상과 희망, 념원들은 오늘에 와서 이미 실현된 먼 과거로 되였거나 더욱 엄청난 《환상》으로 보태어져 설계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주인공들, 우리 세대, 자신의 손으로 실현하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만치 엄청난 전변의 세월을 비약하여 살아왔다. 그래서 온 세상사람들이 우라 조국을 가리켜 20세기 기적의 나라라고 입을 모아 찬탄하는것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공화국기발아래 40년간 전설의 거인들,

동화속의 장수들도 미치지 못한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여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였다.

과연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 한분밖에 안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가장 로속하고 권위있는 위대한 당을 따라 의리로, 신념으로, 의지로 일심단결한 영생불패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었기때문에 백전백승 하였으며 그리하여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의 나래를 펼치고 위대하고 강대하고 번영하는 조국을 건설하는 전설적인 힘을 발휘할수 있었던것이다.

나의 소설의 주인공들의 원형들도 바로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다. 때문에 50대에 이른 오늘에 와서도 사회주의대전선투대오의 골간으로 영생하는 삶을 빛내이고있다. 《해주-하성서 온 편지》의 주인공의 원형은 로력영웅으로, 철도건설부문의 로속한 지휘일군으로 자라났으며 《길동무들》의 주인공 원형 역시 지금 로력영웅관 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다.

푸르른 9월의 하늘, 휘날리는 람홍색기발앞에 지난날의 주인공들과 나란히 서있는 나의 가슴은 벅차다.

저 하늘, 저 기발아래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을 태양처럼 우러르며 영생하는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받은 궁지높고 존엄넘친 세대인가!

다시 10년, 20년... 미래가 창창한 조국땅우에는 또한 어떠한 전변이 일어날것인가? 벌써 제3차 7개년의 령마루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동트는 하늘이 보이고 그 령마루우에 올라서면 눈앞에 자연도 사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변모된 공산주의 붉은 노을 피어오르는 새 세상이 보일것이다.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과 환상을 짱그리 짜내여도 짐작할수 없는 황홀한 동경의 그 세상, 그러나 확신과 신념으로 온 가슴, 온몸 넘치게 안겨오는 주체혁명의 확고한 그 미래를 나는 심장으로 느낀다.

기발이여, 조국이여, 신심높이 전진하자.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200일전투승리의 기세를 늦추지 말고 새 전망계획의 령마루에로,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상상봉에로 단숨에 치달아 올라 공산주의 붉은 지평선을 바라보자!



## 수령님과 영웅의 어머니

김봉철

만일 리수복영웅이 살았다면 그의 머리에도 반백이 서렸을것이고 그의 이마엔 50 대의 주름자욱이 새겨지기 시작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열여덟살 애젊은 나이로 우리앞에 서있다. 소년단에 갓 입단한 아이들도 그의 동상앞에서 그를 리수복형님이라고 부른다.

백년, 이백년... 아니 영원히 그는 아이들의 형님으로 불리울것이고 먼 후날의 어머니들은 그를 아들처럼 부를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열여덟살로 살아있기때문이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얼마후였다.

그날도 영웅의 어머니는 발머리에서 허리를 펼 때마다 먼저 군으로 뻗어간 동구길을 바라보았다. 그길로 수복이가 갔으니 혹시나 그길로 아들이 달려올것 같은 기대를 도무지 마음속에서 뽑아버릴수 없었다.

자식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어머니의 믿음이다. 혼장도 표창도 어머니의 이 믿음만은 포기시킬수 없을상 싶었다.

어머니가 다시 허리를 펴는 순간 동구에 들어서는 인민군 군관을 띠여보았다. 그는 호미를 쥔채 무작정 마주 달려갔다.

리수복영웅의 소대장이었던 권혁창동무와 어머니는 이렇게 만났던것이다.

《이 사람아, 우리 수복이를 어디에 두고 혼자 왔다. 수복이는 오지 않고 영웅메달만 왔네구려, 그래 정말 우리 수복이가 죽었다단말인가? ...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은 영웅의 어머니로 위로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수복이는 그렇게 명이 짧지 않네, 그 애가 죽다니 말이 되는가.》

권혁창소대장은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분대장은 고지에 두고 이렇게 저혼자만...》

물론 이것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줄수 없었다. 아들이 살았다고 믿는 어머니의 그 심정을 달리 납득시킬 말은 이 세상에 없는것이다.

며칠후에 권혁창소대장은 어머니를 모시고 1211 고지로 떠나갔다. 어머니는 아들이 정말 죽었다면 그의 시신이라도 고향땅에 옮겨와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무지 그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의 언덕에 리수복의 시신이 안치되어있었다.

이포리에 있는 리수복중대의 전사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흔들며 간청했다.

《어머니 수복동무는 오늘도 우리들의 분대장입니다. 그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순간 어머니는 고향보다 중대와 함께 있는것이 아들에게 더 편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부터 동무들을 무척 좋아했는데 여기를 떠나면 아들이 쓸쓸해할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래서 아들과 작별하고 돌아왔다.

(아들은 죽었구나!)

이것을 현실로 믿어야 하는 어머니의 가슴은 저머지듯 아프고 쓰리었다. 눈물은 불을 적시고 옷설을 적시었다. ...

1958년의 잊을수 없는 날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순천군 금천리에 오시여 담배밭 포전에서 리수복영웅의 어머니를 만나시었던 것이다.

그날은 보슬비가 내리는 곳은 날이었다.

우산도 받지 않고서도 한지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고 이윽도록 다감하신 눈길로 지켜보시며 말이 없으시던 그 모습을 금천리 사람들은 지금도 전설처럼 이야기하고있다.

《어머니... 것처럼 장한 아들을 낳아 기르신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고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수령님의 음성은 갈리신듯 조용히 울리었다.

《...수령님, 보슬비에 옷이 젖습니다. 그 철없는 것이 싸웠으면 얼마나 싸웠겠다고 이런 곳은 날씨에 우산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수령님, 마음 놓으십시오, 그 애는 이포리의 제 중대결에 누워있습니다. 이제는 한결 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동무따라 강남간다고 제 동무들과 함께 있으니 그 애가 적적하지 않을겁니다. 중대동무들이 폐밥을 얼마나 잘 주었는지 금잔디가 봉분을 숨모포로 덮은듯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여러번 이 말썽을 되뇌이시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시였다.

어머니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어도 얼굴은 밝은 미소로 함뻍 젖어있었다.

《수령님, 우리 집에 가십시오. 비에 옷이 젖으면 감기드십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신채 크지 않은 초가집, 추리나무가 울바자를 끼고 비물에 한껏 생기를 돌고있는 리수복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대여섯살된 총각애가 어디서 놀다가 달려오는 지 흙탕물에 옷이 온통 뒹어진채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할만, 우리 집에 장군님 오셨다는데 어디 간?》

수령님의 모습을 일별하기엔 아직 어린나이다,

《이 녀석아, 말버릇 고쳐라…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우리 수복이 조카입니다. 인사드려라, 장군님이시다. **김일성**원수님이시다.》

어린것은 못미더운 눈길로 잠시 수령님쪽을 돌아보다가 벽에 모신 원수님의 초상화를 쳐다보고는 그제야 자기가 무엇인가 큰것을 실책했다는걸 알았는지 팔소매로 제끼 코를 문대고는 꾹뾰 인사를 한다.

《허허 그녀석, 내 마음에 드는구나. 자 어서 이리 오너라 안아보자.》

수령님께서는 수복의 조카를 품에 안으시고 비물에 축축히 젖은 머리를 쓸어주시었다.

《어머니, 이애를 잘 키워서 수복이 뒤를 잇게 합시다. 지금도 이포리엔 리수복중대가 있습니다. 그의 대대가 있고 그의 근위사단이 아직 있습니다. 미국놈들이 이 땅에서 나가기전엔 리수복중대가 없어안됩니다. 이녀석은 중대장감입니다.》

그날 한나절을 수복의 집에서 지내시고 평양으로 떠나실 때 생각 깊으신 그이의 심중을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이 나라의 모든 전사의 어머니, 영웅들의 어머니를 이 추녀났은 초가집에서 보셨던것이다. 그들은 아들을 잃었어도 조국을 알고 수령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어머니들이었던것이다.

《어머니, 며칠후에 차를 보내겠으니 평양에 올라가 며칠 놀다오십시오.》

차마 어머니와 헤어지기 아쉬워하신 수령님이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수복이 어머니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승용차를 타고 평양에 갔다. 그는 만경대집에서 (당시 생가엔 김형록선생일가가 살고계셨다.) 며칠을 묵으면서 혁명일가의 가풍앞에 머리를 숙이였다. 온 식솔과 이웃들이 리수복이 어머니라고 송구할지경으로 극진히 보살펴주고 위해주었다.

만경대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혈불이가 그 몇이며 혁명일가가 겪은 신고는 또한 그 얼마이라, 하지만 김보현할아버님과 리보익할머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위로해드린 이 나라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리수복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소대장에게 지청구를 했던 자신이 한없이 밍기만 했다.

그가 만경대집에서 떠나올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아들 하나 바쳤다고 울고불고하고 수령님께 걱정까지 끼쳐드린 이 늙은게 만경대집에 와서 철이 들어갑시다.》

금천리에 돌아온 수복의 어머니는 권혁창소대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소대장… 수령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영웅을 낳아키운 어머니 손을 잡아보고싶어서 찾아왔다고 하셨네. 내가 정말 영웅을 키운 어머니란말인가? …

나는 만경대집에서 며칠 묵으면서 그이의 삼촌 되시는 분한테서 수령님의 부모님들과 동생, 친척 되시는 분들의 어제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 이제 생각해보니 만경대집에서 우리 나라의 첫 영웅들이 나오셨네, 장군님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시고 그이의 부모님들과 동생, 삼촌들도 영웅들이시네, 이 촌놈은이가 영웅을 키운게 아니라 만경대집의 혈맥을 따라서 우리 수복이도 영웅이 됐지, 예로부터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다고 했어, 우리 수령님이 장군이시고 영웅이시니 그 품에서 영웅이 많이 나지 않겠나, 우리 수복이두 그 품에서 태어났네, 이 애미는 빨간주먹의 수복이를 낳았지 영웅을 낳은건 아니네…》

얼마후에 순천화학전문학교(리수복영웅의 모교인 순천고급중학교)가 리수복의 이름으로 개칭되고 학교정원엔 리수복영웅의 동상이 세워졌다.

불을 뿜는 원추의 화구를 노리며 날아갈듯 상반신을 추켜세운 리수복의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그의 한손엔 수류탄이 틀어쥐여있고 다른 한손은 자동총을 높이 비껴들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분명히 그의 입에선 이런 목소리가 터지고있었다.

어머니는 동상앞에 조용히 서있었다.

그의 옆엔 권혁창소대장이 말없이 서있었다.

동상의 화강암 대돌엔 수복의 수기가 피로 새긴듯 썩여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꽃다발과 화환속에 동상은 높이 서있다.

아이들이 소년단정례를 불이고 무엇인가 입속으로 속삭인다. 오늘에 대해서, 아니면 래일의 희망에 대한 말일가.

여기는 죽은 리수복이가 없었다. 산 리수복이가 사람들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속삭이며 서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행복의 미소로 밝았다. 그는 권혁창의 심각한 얼굴을 돌아보며 다시 빙긋이 웃는다.

《소대장, 웃게나. 우리 수복이가 살아 내 품에 돌아오지 않았나. 언젠가 내가 소대장의 마음을 괴롭힌걸 용서하게. 수복인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 애미품에 돌아왔네. 수령님께서 우리 수복이를 내 품에 안겨주셨네. 저 소년단원들을 보게나. 수복이와

얼마나 다정히 말들을 하구나...》하고는 아들의 동상을 쳐다보며 어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애, 수복아, 복받고 오래 살라고 네 이름을 수복이라고 지었었는데, 정말 너는 명이 짧은 애가 아니구나. 하긴 이름이 좋아서 네가 오래 사는게 아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네 명을 이어주신게다.

아들이 죽었다고 믿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수령님께서도 네가 죽었다고 믿지 않으셨다. 알겠니? 그래서 너를 내 품으로 데려다주

신거다. 그걸 네가 아느냐? 네가 나이를 더 먹으면 그걸 알테지. 아직은 우리 수령님의 깊은 마음을 다 모를게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 죽은 영웅도 산 영웅도 다 모르는것이 수령님의 깊은 사랑이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다 알지 못하는것처럼 ...

금별의 대오가 온 나라에 흐른다.

이것은 만고의 애국자 인민의 위대한 영웅 **김일성** 동지의 품에서 태어난 빛나는 별들인것이다. 그 별들은 세월을 따라 늘어나고 더욱 빛날것이다.

## 그 목소리 들려온다

리병철

평생 살면서 할 말을

한마디에 어떻게 담을수 있으랴만

그는 담았다

담아서 남기고 갔다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긴 빛을 순간에 굿고

어데론가 사라진 별씨런듯

백년도 더 살 삶의 길이를

순간에 바친 영웅은

이 땅우에 한마디 말을 남겼다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아, 살았으면 살아 있었으면

봄잔디 푸른 언덕에 웃으며 서서

하늘 떠가는 흰구름송이랑 쳐다보며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조국, 그 품의 따사로운

고운 말 골라가며 시라도 쓰고있으리

시를 써도

가슴속에 남았을 말을

영웅은 한마디에 담아놓고 갔다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일찍 조국을 잃고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남이 주인노릇하는 내 나라에서

남의 성 남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마소처럼 살아본 사람은 안다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이 짧은 한마디 말속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이

얼마나 뜨겁게 울리는가를 안다

안다, 그의 가슴속에 불타던것이 무엇인가를

아, 불을 뿜는 원쑤의 화구가 무엇이라

생명의 위협이 무엇이라

수령님을 조국으로 알고 자란 병사

조국을 수령님으로 알고 보위한 리수복

그가 남기고 간 한마디 말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영웅의 그 말 그 목소리

맑은 공기 되어

한줄기 오염도 없이

내가 사는 조국땅에 흐르고있어라

##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공화국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수훈자 김두일

이 땅에 태를 묻고 안겨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보면 저는 때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분이 나의 운명이시구 저분이 나의 행복이시구 기쁨이시구나. 저분이 그렇듯 문학을 하고 싶어하던 나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나를 오늘의 어엿한 작가로 키워주시구 저분이 나의 운명을 전적으로 보살펴주시며 영광의 언덕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만약 저분이 아니었다면 지난날 어두운 남녘땅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류랑걸식하던 내가 어떻게 오늘 당원-작가로 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은 스스로 후더워지고 마음은 저도 모르게 승엄해지며 흘러간 인생행로에 찍혀진 갖가지 사연 많은 자욱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어려웁니다.

수난의 땅, 남녘땅에서 학교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저 허궁에서 문학과 예술에 뜻을 두고 모지름을 써오던 그때 그래도 집안의 기둥으로 믿고 살아오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한두달사이에 약 한첩 써보지 못하고 차디찬 땅에 묻던 그 설움. 몇명 되지 않는 식구들이 어머니는 서울로, 동생들은 삼촌집으로 나는 장거리와 들판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지신세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제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안긴 그날은 세상에 나라는 인간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구나 하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가득 고여오릅니다.

그때로부터 나의 보람찬 창작생활은 시작되었고 행복한 삶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경절 40 뉘를 맞는 이 아침 나는 조용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창조사업을 친히 지도하여주시실 때 영광스럽게도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세심하신 지도를 받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군협

주단 창작집단과 함께 수십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접견을 받으며 자라온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이 저의 눈앞에 어려웁니다.

그가운데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은 기억도 새로운 1982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가동맹강습에 참가하고있었습니다. 하루의 강의를 다 끝내고 새로 나온 영화학습을 하고있는데 밖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나와달라는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밖에 나오니 한 일군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찾으시니 빨리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창밖에서는 퇴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오갔지만 저의 마음은 건잡을수 없는 흥분속에 사로잡혀있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어느 부서에서 무엇때문에 찾으시나? 혹시 올려간 작품이 문제가 제기된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은 끝없이 뒤설레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차는 어느 청사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일군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그 일군은 옷매무시를 바로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다리시니 빨리 가자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마주 나오시며 마치 헤어졌던 어린 자식을 되찾으신듯 바깥바람에 차진 저의 손을 몇번이고 끌어주시며 어서 앉으라고 보고싶어 찾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진정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그 사랑, 그 손길이 너무도 뜨겁고 그 행복, 그 감격이 너무도 커서 저는 그만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참지 못하고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말았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그이품에 안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무슨 한 일이 있다고 어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돏경축대회의 대표로 불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공화국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달아주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꿈만같은 사랑을 안겨주십니까 ! ... 이렇게 웨치는 저의 마음에는 뜨거운 걱정이 가득차올랐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자신의 곁자리에서 저를 앉혀주시고 이제는 음악을 같이 듣자고 정겹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이때 방안에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은은하고도 서정깊은 음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음악을 들으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나가시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창조하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그때를 잊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동무들의 노력이 컸다고 파분한 치하의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정하신 말씀과 방안에 울리는 음악은 한없이 격동되고 뜨거워진 저의 가슴을 흔들면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불러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극창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전기간은 깊은 밤, 이른새벽이 따로없이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으며 피곤한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일해온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노래의 종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고 하시며 우리 작가들이 그것을 쓰다가 책상머리에서 잠들었을 때는 손수 밤을 밝히시며 집필하신 가사를 아침에 받아안고 감격에 흐느끼던 일이며 가사 《노래절로, 웃음절로, 기쁨도 절로》에 《이게 모두 대자연의 혜택이라네》하는 구절을 보시고 우리에게는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혜택외에 다른 혜택이 있을수 없다고 가사의 본질적인 결합을 지적하시면서 백도라지가 산삼의 팔촌쯤은 되리라고 고쳐주시던 일은 참으로 한생을 두고 잊을수 없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극을 처음으로 보아주시고 군민관계선을 새로 내올데 대한 교시를 받들고 남천강 장면을 새로 넣도록 해주시고 지도해주시던 일이며 친히 자신께서 밤을 새우시며 다듬어오신 가사들을 하나하나 형상까지 지도해주

시던 정력적인 창조의 나날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습니다.

실로 이 나날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슬하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창작가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며 당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체득한 나날이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가지를 교시하시면 열가지, 백가지를 해결하는 기풍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따라배운 참으로 귀중한 나날이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나날들을 생각하고있는데 그이께서는 저의 앞에 색다른 음식을 차리도록 하시고 친히 축배잔까지 부어주시었습니다. 저는 그이께서 주시는 축배잔을 받아쥐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심장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더 좋은 글을 쓰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만하지 말고 늘 당을 어떻게 받들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자면 당의 의도가 무엇이고 지금 당에서 무엇을 구상하고있는가를 잘 알아야 위대한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릴수 있고 더 잘 모실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이의 이 말씀만은 한생을 두고 잊지 않고 충성을 다해 관철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은 내가 안겨사는 영원한 삶의 품,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이시며 새로운 열정과 신심을 안겨주는 영명하신 스승의 품입니다.

9월의 이 아침,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는 저의 심장은 또다시 새로운 흥분과 열정으로 끓입니다. 저는 이 한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창작하고 생활하여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불멸의 꽃

류인섭

(전호에서 계속)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조선으로 달려가는 2월!

가모 모도데루는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맞으며 조선으로 가려고 작정하고있었다.

그이의 탄생 46돐을 맞으면서 인류의 크나큰 숙원을 담아 **《김정일화》**를 삼가 올리게 될 영광과 행복의 순간이 바야흐로 닥쳐오고있는것이다.

그날을 위하여 십여가구는 **《김정일화》**는 충실하게 자랐고 꽃망울이 지기 시작했다. 그이의 탄생일에는 때맞추어 활짝 피어줄것이다.

모도데루는 영광의 그날을 그려보며 감격과 기쁨에 휩싸이군했다.

그러던 그는 뜻밖의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한동안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조선으로 가려고 신청한 러권과 출국신청을 당국에서 기각한것이다.

무엇때문에 당국은 의로운 길을 막아서는것인가?!

모도데루는 치미는 울분을 목재길수 없어 방안에서 서성거리었다. 그러다가 놀란듯 달려장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2월에 접어들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으니 그이의 탄생일이 바루 다가오고있는것이였다.

(어쩌면 종단말인가?!)

그의 눈앞에는 불현듯 조선을 더욱 깊이 알게 된 그 모든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

가모 모도데루가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하고 온후의 어느날이였다.

그는 흥분한 기색으로 비비추가 찍힌 사진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엔에취케이 텔레비존 원예학 강사인 그는 조선에서 찍어온 사진을 들고 강의에 나서려는것이다.

《후미꼬, 내가 원예학 강사를 말아하면서 이번처럼 의의있는 강의를 하게 된것은 처음인것 같소!》

비비추는 지난날 모도데루에게 원예학의 비극에 대하여 상기시켜주는 류다른 화초였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건설로 인하여 땅은 피해를 입고 앙상하게 드러났다. 그 땅에 식물을 심어 자래우지 않아 땅은 건조해지고 그로 하여 산생된 바삭 마른 탁한

공기는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고 신선한 자연을 감미할수 없게 하였다, 하여 원예학은 자연의 환경을 되찾아줄 식물로서 비비추를 지목한지 오랫동안 아직도 실천상의 난문제로 남아있는것이였다.

그런데 모도데루가 가본적이 있는 어느 한 나라의 왕실식물원의 나무들 밑에는 특권층의 독점물인 양 비비추가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던것이다.

언제면 비비추가 인간을 위하여 제할바를 다할것인가?!

모도데루는 원예학의 비극은 숙명적인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자기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 없음을 통탄해왔었다.

그러나 텔레비존강의를 준비하면서 모도데루는 비비추로 하여 환희에 넘쳐있는것이였다.

그는 안해에게 말했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는 원예학을 인민을 위한 학문으로 되게 하여주셨단말이요. 비비추는 환경보호와 룽화에 좋은 화초이니 많이 심으라고 하신 가르치심대로 조선은 어디를 가보나 비비추가 이처럼 푸르싱싱한 잎새를 펼친것이였소!》

모도데루는 눈굽이 짜릿하던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난듯 격동적으로 말하였다.

《나는 오늘 이 사진을 들고나가 이야기하려고요. <조선에 가보고 나는 주체사상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았다. 이 사진을 보라. 원예학은 결코 꽃에 대한 특권층의 요구와 및 취미에 만족을 주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지도하시는 현대조선에서처럼 온 세계는 원예학을 향유하게 될것이다> 하고말이요.》

갱생의 환희에 휩싸인 남편을 바라보는 후미꼬의 눈굽에도 뜨거운것이 맺혔다.

후미꼬는 가보고싶었다. 걸출한 위인이 계시는 땅! 조선으로! 조선으로!...

**《김정일화》**의 완성을 확인하던 그날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 그날 모도데루는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과 전문가들 수십여명을 초청했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들에게 자기가 육종한 꽃에 티끌만한 흠이라도 있다면 기탄없는 고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꽃이 전시된 방에 들어서서 새로운 꽃앞에 이른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간간스레 꽃을 여겨보았다. 그러다가 저저마다 찬탄의 목소리를 터뜨리는것이였다.

《정녕, 인간을 현혹케 하는 최상의 아름다운 꽃이요!》

《저 붉은 빛갈을 보오, 거룩한 태양이 방금 떠오르는상실소!》

《푸른 잎새와 붉은 송이의 조화미는 얼마나 고결한 품격을 보여주는것이겠소!》

...

《가모선생! 정말 훌륭합니다. 이 훌륭한 꽃에 비길만한 대상은 태양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모도데루는 눈곱이 뜨거워났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고심어린 나날을 보내였던가.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하여 떨리었다.

《여러분, 저는 먼저 꽃에 대하여 학구적인 평가를 내려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느바입니다.

이 꽃이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보여준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실로 수십여년 만물의 령장인 태양의 빛갈을 꽃에 담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사시절 변함없이 불타는 태양처럼 이 꽃도 사시절 붉게 붉게 피여날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자연의 모든 생의 영원한 원줄기라면 인류사회의 영원한 태양은 어디에서 찬란히 빛나고있는것이겠습니까.

여러 동료들이 세계각국을 다니보아 잘 아시겠지만 세기적인 위인에 대한 흠모는 국경을 모르는 법입니다. 오늘날 어느분에 대한 흠모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된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체사상이 창시된 현대조선의 걸출한 지도자 **김정일**비서! 그이는 인류가 흠모하고 따르는 위인이십니다. 인류사회의 미래를 주체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이야말로 인류미래의 태양이십니다.

저는 태양의 빛갈로 불타는 새로운 꽃에 **김정일**비서의 존함을 모시는것이 인류의 숙원이라고 간주합니다.》

정숙하던 장내에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올랐다.

《<김정일화>! <김정일화>!...》

감격의 목소리가 환희에 휩싸인 박수갈채속에서 울려나온다.

모도데루는 뜨거워난 눈곱을 슬며じ켜렸다. 드디어 **《김정일화》**는 꽃피난것이다. 이제는 매년 2월 16일 친애하는 그이께 이 꽃을 삼가 올리는 영광의 순간이 앞에 놓여있었다.

모도데루는 **《김정일화》**를 조선의 기후풍토에 맞게 번식시킬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을 다녀오려고 했다.

물론 이웃나라에서 키운 화초이니 생장조건이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의 신빙성을 기하여야 하는것이다.

**《김정일화》**를 완성한 행복을 안고 안해와의 약속대로 함께 조선을 찾아가는 가모 모도데루는 감개무량하기만 했다.

그런데 안해의 신상에 이토록 큰 변이 날줄이야! 비행기에서 내려 평양고려호텔에 안내되었을 때 기침을 톡톡 킁던 후미꼬가 자리에 눕게 되었다.

구급차가 달려왔고 후미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협의회의에서는 후미꼬의 병을 확진했고 동의학적 치료대책이 세워졌다.

모도데루는 침상머리에 앉아 후미꼬를 걱정스레 바라보고있었다.

안해는 이슬머금은 눈길로 모도데루를 바라보았다.

《정말 분해요. 김정숙어머님께서 미래의 태양을 안아올리신 백두산의 고향집에도 가보고 혁명렬사릉에 찾아가 어머님께 향기 그윽한 꽃바구니도 드리자고 했건만... 하지만 그토록 오고싶었던 땅에 왔으니 여한이 없을것 같아요.》

《아니 무슨 약한 소릴 하오...》

《아니예요. 전 저의 병을 잘 알아요. 일본에서 크다고 하는 병원에서도 난치의 병으로 못고친 병이 아닌가요.》

모도데루는 기가 막혔다. 후미꼬의 말은 사실이었건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종단말인가?!

모도데루는 함께 가보자던 모든곳을 어서 다녀오라는 후미꼬의 간청을 받고서야 발길을 가까스로 떼었다.

그로부터 몇달후.

정말 놀라운 일이였다. 조선에서 치료를 받고 지어주는 동약을 일본에 갖고와 장복하는 과정에 후미꼬의 병이 말끔히 나아버린것이다. 조선의 동약이 이처럼 신비스러운 약리작용을 하는것인가?! 아니 결코 약의 효과때문만이 아닐것이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의 신념이 체질화된 조선의 의사들만이 일본사회에서 못고친 병도 고칠수 있는것이다.

가모 모도데루는 생각할수록 주체의 인간을 키워낸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가 가슴 가득 차오르는것이였다.

×

달력장앞에 서서 지나온 그 모든 나날들을 돌이켜보던 가모 모도데루는 불의의 정황앞에서 갑작스럽게 발견했다. 내 어쩌면 이럴수 있단말인가.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모도데루는 그제야 리성을 되찾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김정일화》**는 어떻게 되어 탄생한 꽃이던가. 수십여년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보내였지만 그로 하여 피여난 꽃은 결코 아니다. 태양의 빛으로 불타는 이 불멸의 꽃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의 세기적인 숙원을 상징하여 **《김정일화》**로 탄생한것이다.

그것은 내 혼자 생각만이 아니다. 꽃의 완벽함에 대하여 학구적인 평가를 내리던 원예학계의 저명한 동료들도 그이의 존함을 꽃에 모시려 한다는 것을 피력했을 때 열광적인 환호를 올렸던것이다.

그 환호는 불멸의 꽃의 탄생을 기뻐하는 인류의 우렁찬 환성의 서곡이었다.

그렇다. 인류의 그 기쁨, 인류의 그 숙원을 안고 가는 길, 친애하는 그에게 **《김정일화》**를 삼가 올리려고 달려가는 이 영광의 길은 그 어떤 장애물도 결코 막지 못할것이다.

가모 모도데루는 온몸에 힘이 솟구쳐오름을 느꼈다.

...

가모 모도데루는 끝내 조선에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적인 투쟁으로 하여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탄생 46 뉘를 맞는 경사로운 그날에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 삼가 올리게 되었다.

2월 16일의 아침이었다.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에 물을 주고난 모도데루는 서북쪽 하늘가에 경건한 눈길을 주었다. 저 하늘가 그 어디에 평양이 있을것이었다.

《오늘은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를 따르는 인류의 크나큰 숙원이 풀리는 날이요.》

감개에 젖어 이렇게 말하는 모도데루의 눈곱에는 뜨거운것이 맺혀있었다. 그것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한 원예학자의 행복에 겨운 티없는 이슬이었다.

《주체사상이 불멸하듯이말이요. **〈김정일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불멸해야 하는거요. 그 불멸성을 고수해나가는것을 나는 필생의 의무로 간주하오.》

《!》

후미꼬는 감동에 젖어 뜨겁게 울리는 모도데루의 말을 듣고있었다.

《영광스러운 이 의무는 대를 이어가며 지니게 될 인류의 가장 숭고하고 값높은 의무이기도 하오.》

그렇다. 인류는 세기와 세기를 넘어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길이 고이 가꾸어갈것이다.

모도데루의 눈앞에는 자주화된 새 세계가 눈부신 빛발속에 펼쳐지고있었다.

- 끝 -

## 붓 나 무

신형길

흔들면 구울듯

일새우의 깨긋한 이슬에

나의 마음도 조용히 비쳐보는

백두산 기슭의 붓나무

너는 언제나 정겨웁더라

노을이 피어나는 아침에도

달이 없는 밤에도

깨끗한 흰빛으로

사철

구름우에 머리 높은

백두를 향하여 서있기에

그 빛이 물들어서이나

오늘도

끝나지 않은 진군길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그 위장포가

휘감겨서이나

여겨보면 볼수록

푸른 가지

푸른 잎사귀마다에

투사들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

심장의 고동소리

흰눈을

머리우에 어깨우에 맞으며

사령부 트랙에 서있던 전령병

그 모습으로 더더욱 숭엄한

백두의 붓나무

붓나무여

너는 백두의 바람을 안고

낮이나 밤이나

이 마음속에 속삭여주누나

백두의 숨결높은 이 땅에 뿌리둔 삶

부디 다른 모습 닮지 말라고



## 주체의 조국

리상복

X

풍치아름다운 대동강가에 주체사상탑이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에 떠받들려 높이 솟아 빛나는 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장으로 우러르며 희망과 신심을 간직하게 하는 주체사상탑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인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자주의 물결이 막을수 없는 시대의 조류로 되고 있는 오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신념의 해불을 높이 추켜들고 세계만방에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한 조선.

주체의 피줄기 강산에 흘러들어 이 땅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 자위적 국방력을 가진 주체의 조국이 일떠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되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결합되어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꽃피우면서 미래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나라, 그 거대한 위력에 있어서 력사상 류레없는 조선의 놀라운 현실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무한한 흠모심을 낳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날마다 시각마다 사람들의 심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된 우리 시대.

저명한 사회활동가이며 교수, 박사인 디. 비. 무케르지는 자기의 글에서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시였으며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풍부화하시였다고 쓰고있다.

우리 나라를 《주체사상의 조국》이라 부르는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태고연한 그 옛적 황막한 들판에 처음으로 생활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날로부터 수천만년 인민들이 끝없이 갈망하던 그념원을 이 땅우에 펼쳐추신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열화처럼 뜨겁게 타오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는 세계사적 공헌을 한 력사적 사변이였으며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주체는 인간의 위대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철학이며 자기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의 철학이다.

주체, 이 말속에 세기적 락후와 빈궁, 치욕스러운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류레없는 투쟁의 력사가 힘있게 울리고있다.

일찌기 자기의 문화로 인류문명에 기여해온 조선이였으나 력사적으로 세력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각축전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조선혁명만은 자주성을 리념으로 하여 출발한 력사상의 첫 위대한 혁명으로서 그것은 자주성을 고수하고 실현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이였다.

지금으로부터 60 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위대한 주체의 기치《**ㄷ, ㄷ**》의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곡절많은 항로에 자주성의 첫 닳을 올리시였다.

《**ㄷ, ㄷ**》의 조직, 그것은 다시는 사대망국을 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걸어가 이 땅우에 자주성의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력사적 선언이였다.

조선혁명, 그것은 풍파사나운 바다로 홀로 헤치고 나아가는 배였다. 그러나 그 배는 자기가 선택한 자주성의 항로에서 사선과 고비를 헤쳐가며 물러섬도, 드림도 없이 곧바로 나아갔다.

참으로 우리는 주체가 다름아닌 조선혁명의 생명선이고 자주가 우리의 위대한 첫 닳이기에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과중한 력사적 부담을 결머지고 풍랑사나운 바다를 헤쳐왔지만 단 한번도 자기의 존엄을 팔면서 남에게 구걸한 적이 없었다. 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산하를 선혈로 붉게 물들이면서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씩 걷고 달리면서 끝까지 고수한것이 조선혁명의 주체이고 자주의 기치였다. 그러나 조선혁명처럼 제힘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혁명은 일찌기 없었다. 강토는 침략자들에게 빼앗기였으며 어디에나 허무와 굴종, 사대망국풍조가 짙게 배여있었다.

바로 이러한곳에서 사람을 믿어야 하고 인민을 믿어야 하며 우리 인민을 깨우치고 각성시킬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진두에서 령도하신분이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고대의 영웅서사시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력사에는 많은 영웅서사시들과 사람들을 놀래우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력사발전의 주체이며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위대성을 과시한 현대의 영웅서사시는 우리가 처음으로 창조했다.

인도의 탁월한 시인이며 애국자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1929년 3월에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유명한 시구절을 남겼다. 조선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였던 타고르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수난당해온 조선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있게 싸워온 결과 마침내 존엄있고 강력한 자주독립국가로 동방 일각에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하였다.

실로 조선은 주체의 기치아래 자기 위치를 찾고 자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뚜렷이 떨치게 되었다.

20여년의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정권을 잡고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한 때로부터 또다시 40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공고한 사회정치적 기반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음과 패기에 넘쳐 역세게 전진하고있다.

누리에 빛나는 조선의 빛, 그것은 주체의 빛이며 세상에 떨치는 조선의 위용, 그것은 주체의 힘이다.

우리가 주체의 한길로 나아갔기에 자기의 존엄을 찾을수 있었고 우리 민족이 위대하여지게 되었다. 주체를 하는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맨입으로 존엄만 웨치는 빈소리가 아니다. 주체를 하는 목적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살게 하자는것이다.

우리가 어려웠지만 주체의 한길로 나아갔기에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 국방력을 마련해놓게 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자.

우리의 자립적 민족공업은 제손으로 연필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한 공업이었다. 허나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되었다. 우리의 전후복구건설을 탐식기증기가 없어서 등짐으로 벽돌을 올려 한장한 장 쌓아올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리는 작고 뒤떨어지고 분열된 나라로서 겪은 난관도 컸고 당하는 아픔도 컸다. 그러나 남의 덕에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남의 신세를 지면 자기 정신과 존엄을 팔아야 한다.

망치로 두드리고 줄칼로 썰어서라도 제힘으로 기계공업을 창설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했으며 경제건설,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무거운 부담을 한 어깨에 걸머지기도 산악같이 일떠서서 원수들이 치면 맞받아친 우리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총동원,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이 벌어지던 1974년.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식량위기, 원료위기, 연료위기로 하여 서방나라들에서는 생산의 감퇴와 실업사태, 막을길 없는 통화팽창과 메울길 없는 재정적자로 하여 최악의 혼란상태가 빚어졌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제시하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며 그다음부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진군할것을 예견한 대작전을 펼치였다. 그것은 세계적인 경제과국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투쟁이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대행군을 벌리며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제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영웅서사시의 걸작들이다.

탁월한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존공식과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이끄시였다.

시대의 변천에도 끄떡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정세가 복잡하고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대담한 작전을 펼쳐가는 우리 당의 비범한 령도력, 실로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적 풍모, 세련된 령도예술의 완벽한 구현이었다.

오늘 우리 당이 위대한 당으로서의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는것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드림도 없이 시종일관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주체형의 당이기때문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구호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것, 여기에는 누구와도 같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 특성이 있고 우리의 무한한 힘의 원천이 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간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대하는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그 누구의 식도 아닌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것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 어느 전쟁규범에도 없는 항일대전의 승리, 이런 식, 저런 식을 주장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킨것, 독창적인 전법으로 미제를 타승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불과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농업협동화운동,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참으로 우리가 걸어온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길은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살아온 빛나는 로정이었

다. 바로 이 길에서 위대한 주체의 당, 위대한 국가,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칭송받는 오늘의 조선이 탄생하였다.

당의 부름따라 지난날 충성의 전투들을 벌리던 그날처럼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벌린 200일전투는 바로 우리 식대로 살아가기 위한 전투였으며 바로 그것으로써 승리한 전투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세계는 참으로 높아 올라섰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참가한 한 건설자는 초벌바른 벽에 세멘트가 손바닥만큼 떨어진것을 그냥 스쳐보낸 일이 종시 마음에 걸려서 집으로 가다가 되돌아와 다음 교대에 나온 미장공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다. 이제 콘크리트벽속에 들어가버릴 것인데 그것때문에 되돌아왔는가 하는 동무에게 그는 말하였다.

《당을 받드는 우리의 량심에 티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당에 대한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당과 함께 인민이 살고 인민과 함께 당이 있는 오늘의 자랑스런 현실이며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기백에 넘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인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한길로 나아갔기에 벗이 많고 친구가 많은 나라로 되었다.

자기 조국을 부강하고 룡성번영 하는 강국으로, 존엄있고 힘있는 자주독립국가로 만드는것 바로 이것이 60여년동안 우리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온 목적이였다.

현세기에 와서 그 모습을 뚜렷이 한 조선은 세계가 발견하게 된 하나의 빛나는 등대이다.

조선에로의 려행, 이것은 오늘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동경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관심사로 되었다.

《어찌하여 지금 전세계가 조선에 것처럼 시선을 돌리는것인가? 무엇때문에 세계 5 대륙의 정계와 사회계, 출판계 인사들이 시선을 모아 머나먼 이 나라를 바라보고있는가? 조선이 큰 나라이기때문인가? 아니다. ... 문제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크고 발전되었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에 있는것이다.

지금 전세계가 조선을 우러르며 거기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 우리가 관철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 찬란하고 번영하는 현대조선을 건설하는데서 쌓아지는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주목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것이다. 그것은 조선이 세계의 모든 선량한 인민들에게 찬란히 빛나는 해발을 안겨주고

자주성의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시대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심을 안겨주는 주체사상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한 사회활동가가 쓴 이 글에는 주체야말로 그 무엇으로써도 거역할수 없는 력사의 의지이며 조선이야말로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이 격조높이 울리고있다.

일찌기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별로, 태양으로 우러르며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의 항로에 첫 닳을 올린이래 압초를 가르고 풍랑사나운 대양을 헤쳐온 오늘, 우리는 그 기슭에서 얼마나 거창한 세상의 변천을 목격하게 되었는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꼬빠르니 쿠스의 학설이 하나의 진리로서 공인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주체사상을 따라 세계가 움직이여야 한다는 진리는 짧은 력사의 기간에 벌써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았다.

오늘 조선에서는 주체사상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일심단결의 기치밑에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는 위대한 통일체로 꾸려놓은 비범한 령도,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시여 언제나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요구를 확고히 놓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세상만물이 다양해도 인간의 본성이 변할수 없고 인류가 영원불멸하듯이 주체사상은 영생불멸하며 조선의 주체도 영원하다.

조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의 발원지이며 그것이 빛나게 구현되어있는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되었다. 조선은 창조와 변혁을 하여도 세계사적인 리정표로 되는 사상을 내놓고 경험을 내놓아도 인류사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세기에 떨친 주체의 기치!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전백승의 기치, 주체의 기치를 억세계에 틀어쥐고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주체사상의 조국-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동구의 은행나무

장기성

와우마을어구에는 세아름이 넘는 은행나무가 실한 가지들을 펼쳐들고 키높이 솟아있다. 누운 소잔등형의 둔덕과 언덕들로 이루어져 이렇다하게 눈길 끄는것이 없는 이고장에 국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될만한 거목이 서있다는것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풍치가 아닐수 없다.

몇백년을 산 나무인지 누구도 딱히 모른다. 그 옛날 메말라 인적없던 이고장에 피나리보짐을 풀어놓지 않을수 없었던 조상들중 누군가가 마음불일지렁점을 마련하느라고 어디에선가 떠다심은 은행나무라고만 전해진다.

와우마을 력사의 말없는 증견자인 은행나무는 오늘 이고장 사람들의 자랑으로, 고향떠나 살고있는 이곳 태생들에게는 못잇을 고향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다.

### 1

손봉익로인은 오늘도 첫새벽에 동구로 나갔다. 자리를 일면 무성한 은행나무 잎새들의 사르럭거림과 나무에 깃을 내린 못새들의 지저귐소리를 정겹게 들으며 눈여겨 나무주위를 한바퀴 도는것이 그의 첫 일과였다.

《딱따구리 이너석, 오늘은 늦잠을 자나?》

로인은 뒤고대를 꺾고 나무우를 올라다보며 사람에게 그러듯 다정히 묻는다. 높은 가지에 매단 새장에서 살고있는 딱따구리에게 하는 소리이다. 대답이 있을리 만무하다. 로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별레란놈이 불지 않았으면 늦잠을 자도 무방해. 허허.》

그다음 로인은 나무밑에 만들어놓은 등반이 없는 긴의자에 앉아 마을쪽에 눈길을 주며 담배를 꺼내든다. 불이 꽤이도록 맛스레 담배를 빨며 마을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본다.

둔덕 생김새에 맞게 등마루에는 2층짜리 학교와 리선전실이 키솟군 뽀뿌라나무, 수삼나무 숲으로 덩실히 솟아있고 그밑으로는 미끄럼대며 그네, 철봉대 등이 한가득한 락아소, 유치원이 안성맞춤히 들어앉았다. 그 옆과 아래로 층층이 자리잡은 문화주택들, 오른편 안침진곳에 위치한 리 병원, 실과 나무들속에 묻힌 마을길! 참으로 그림같은 마을이다!

(...이런 살기 좋은 고장을 내가 떠나야 한단말인가. 아, 로친네는 왜 나먼저 이 세상을 떠났노. 오래오래 함께 살다가 함께 고향땅에 묻히자구 하구선...)

탄식에 이어 자식에 대한 원망이 뒤따른다.

(...나를 데리러 온다구... 설익은 녀석 고향을 사랑할줄 모르는놈은 부모에게도 불효하고 나라일도 제바루 못해.)

이러면서도 로인은 도소재지에 사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을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자각한다. 나서 70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아무리 뜨기 싫다 하여도 로친없이 혼자 때식을 끓이고 옷을 빨아입는 일이 남보기 궁상스러워 그리고 자식에게 욕을 보이는것 같아 떠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아들 형준이 오늘 아버지를 모셔가려 온다는 기별을 이미 받은 로인이였다.

그는 눈길을 돌려 동구밖 읍으로 통하는 길을 바라보았다. 9시에 기차로 읍에 도착하여 10리길을 걸어와야 하는 아들이 벌써 나타날리 만무했지만 그래도 눈길이 저절로 행길 저 멀리를 더듬게 되는것이다.

(이 사람이 그 신문을 꼭 찾아 사진을 복사해와야겠는데... 사진기야 물론 가져올테지.) 아들 형준을 두고 하는 생각이였다.

이윽하여 로인은 자리에서 일어 은행나무 주위를 다시 돌기 시작했다.

내가 떠나면 이 나무를 누가 나처럼 돌봐줄까 하는 걱정이 다시금 가슴속에 서려올랐다.

로인은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전쟁에 참가한 3년간을 제외한 37년동안을 스스로 이 은행나무의 보호자, 관리자로 되어왔다.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주변을 가꾸고... 톱과 도끼로부터도 철저히 보호했다.

하긴 나무에 첫 도끼날을 먹인것은 손봉익자신 이였다.

로인의 눈길은 은행나무 오른편 어깨높이의 큰 남비뚜껑만한 세멘트콩크리트부위로 갔다. 도끼날에 상처입었던 자리가 부식되기 시작하여 깨끗이 털어내고 세멘트로 땀을 한것이였다.

나무의 목은 상처는 로인의 마음속 목은 상처와 함께 영원히 아물수 없는것이였다.

1940년 이른봄 어느날. 은행나무가지에 와우마을에서 제일 인물 잘나고 마음씨 굽던 굽단이라는 처녀가 목을 매 죽는 참변이 일어났다. 홀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자리에 눕고 자기는 빗값에 첩으로 끌려가게 되자 죽는 길을 택한 처녀였다. 어두운 밤에 처녀가 어떻게 나무에 목을 매고 드리웠는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날이 밝아 처녀의 시체를 풀어내렸을 때 마을에서 한 청년이 달려나와 다짜고짜로 은행나무에 도끼질을 시작했다.

《에잇! ... 으-흑... 에잇! ...》 청년이 용을 쓰는 소리는 그대로 참을수 없는 울부짖음이였다.

도끼날은 은행나무에 푹푹 들어박혀 흰 나무밥을 뿜겨날렸다.

그는 죽은 처녀와 약혼한 사이의 총각이었다. 지난해 농사를 망치고 품팔이를 떠났던 그는 한밤중에 돌아와 눈을 붙였다가 뒤늦게 기막힌 소식에 접한 것이었다.

그는 단숨에 은행나무를 찍어넘길 기세로 맹렬하게 도끼를 휘둘렀다. 누구도 감히 말릴 수 없는 험한 기상이었다.

그때 흰 채수염을 펴며 로인 한분이 덮치듯 총각한테로 달려들어 위협을 무릅쓰고 도끼친 손목을 거머쥐었다.

《아서라, 나무 죄가 아니다.》

《이걸 놓으랴-》 총각이 분을 삭일 수 없어 몸부림쳤다.

《못찍는다! 이 나무마저 없으면 이 동네 어디에 정붙이고 살겠니.》

로인의 준절한 타이름이었다.

그 소리에 총각은 도끼를 놓아주며 풀썩 주저앉아 땅을 허벼잡았다.

《왜 굶단이가 죽어야 하나요? 왜 우린 못사나요-오-》

총각의 울부짖음은 듣는 가슴들을 사정없이 찢어놓았다.

총각의 도끼날에 상처입은 은행나무부위에는 원한의 눈물인양 서서히 물기가 내배였다. 그 상처는 후날 그의 가슴속에 영원한 후회를 남겼으며 아울러 은행나무를 남달리 관심하고 보살피게 했다.

그 총각이 바로 스무네살때의 손봉익자신이었다.

로인은 자식의 아픈 상처를 어루쓸듯 은행나무의 콩크리트땀부위를 손으로 눌러보며 이상이 없는가 눈여겨 살폈다.

《용서해다오. 그땐 세상이 모진 때여서 그랬으니 ...》

그는 이렇게 은행나무에 사죄의 말을 하곤 했다.

## 2

손봉익로인은 집에 들어가 때식을 끓일가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로친의 무덤가에 가 보고싶어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뼘 정든 고향을 이제 아주 떠나게 되고 떠나면 자주 오지 못하리라 여겨서인지 지난밤 꿈에 로친이 나타났었다.

마을 뒤산둔덕 웃켄에 새로 솟은 봉분이 있다. 자기가 죽거든 동구의 은행나무가 바라보이는 자리에 묻어달라고 한 로친의 유언을 지켜 거기에 묘를 쓴 것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 손봉익이 안해인 자기에게보다 은행나무에 더 정을 준다고 본의 아닌 시샘을 토한 적있는 로친이어서, 후날 은행나무에 바쳐지는 남편의 진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남편과 함께 나무에 자기의 지성도 바친 로친이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은행나무를 찾아나갈 남편을 땅속에 누워서라도 보고싶은 로친이어서 그런 유언을 남겼으리라.

로인은 상돌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살아있는 로친에게 하듯 말을 건넸다.

《여보 로친! 내가 왔소.》

갈린 음성이었다.

로친의 응답을 기다리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그는 계속했다.

《오늘 형준이가 나를 데리러 온다오. 기별이 왔소.》

《...》

《이제 떠나면 추석이나 한식때 오겠는지...》

《...》

《로친, 난 정말 고향을 뜨면 못살것만 같구려.》

그의 목소리는 점차 물기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늘그막에 당신만 남겨놓고 고향을 뜨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 우리가 형준이를 농업대학에 보낸것은 그 애가 농사기술을 배워가지고 고향에 돌아올것을 바라서가 아니었소. 그 애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아직 농사기술자가 적은터여서 도에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기사가 많고많은 때인데 제가 고향에 올 마음만 굴다면야 왜 못오겠소. 학교다니는 손자들때문이라지만 그게 다 핑계요. 고향을 뜨고싶지 않는 우리 마음갈지 않단말이요. 내 여기서 여생을 마치고싶지만 할수 없구려. 리당 비서랑 관리위원장이랑 이웃들이 다 때식걱정, 빨래걱정을 늘 해주니 송구스러워서 더 눌러있지 못하겠소. 로친은 나이도 나만 못한게 왜 나먼저 가서 날 울리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나이 많아 홀로 되면 마음이 여려져 설움이 많아지는듯.

얼마후 애써 자제한 그는 몸을 일으켰다.

《로친네, 난 그만 내려가겠소.》

말은 그렇게 했으나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는 잠시 더 그대로 서있었다.

문득 1954년 초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해 동구의 은행나무일이 레년에도 별스레 늦게 피더니 애일부터 노랗게 병색이 도는듯했다.

무슨 병에 걸린게 아닌가? 손봉익은 걱정스러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다.

《걱정 말라구. 나무라는건 그런 때가 있는 법일세. 실과나무에 해거리란게 있지 않나. 한해는 열매

가 잘 달리구 다음 해는 열매가 적게 달리구. 힘이 팔리니 나무가 제 힘을 조절하는 셈이지. 저 은행나무도 올해는 저런 상태로 지탱할걸세.》

나이 지숙한 농민이 하는 소리였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 손봉익은 조언을 청했다.

《어떻게 하면 나무가 전처럼 무성해질까요?》

《아, 그야 뻔하지. 사람이 허약해지면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나무도 잘 먹어야 돼. 거름을 말일세. 한데 실과나무도 아닌 저런 나무에 먹일 거름이 어디 있나. 설사 거름을 준다 해도 저 큰 나무에 얼마나 쥐야 효과가 나겠나.》

그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듯 도리머리를 저었다.

손봉익은 날이 어두워지자 소달구지를 대고 터밭에 내려고 했던 두엄을 파실기 시작했다.

한달구지 가득 싣고 동구로 나온 그는 은행나무 주변을 깊숙이 파고 두엄을 묻어주었다.

두번째 달구지에 두엄을 다 실었을 때야 안해가 알고 의아해했다.

《아니 그 두엄은 어디 끌려고 반반 다 내가요. 터밭 감자는 안심올려우?》

《우선 요긴한데부터 써야겠소.》

손봉익은 안해가 더 캐물을 사이를 주지 않고 달구지를 내몰았다.

두엄 두 달구지를 묻어준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은행나무잎은 여전히 노란빛 그대로였다.

그는 나무들이 술지게미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군 식료공장에 찾아가 사정하여 한 목통 가득히 실어다 묻어주기도 했다.

그랬으나 나무잎이 눈에 이게 검푸러지지 않았다.

그는 초조해났다. 어찌된 일인가? 아직 거름이 부족한가? 아니면 정말 중병이 들어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당장 알재간이 없으나 영양보충을 더 해주고 보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은행나무들 바치는 정성을 모르랴.

그는 나무밑에 거름을 더 묻어줄 작정을 했다. 진거름을 흙에 채우고 돼지우리, 퇴적장 바닥을 팠다.

안해도 주변에서 거름이 될만한것을 보기만 하면 모조리 걷어들이었다.

거름더미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다.

그가 세달구지가 싣히 되는 질 좋은 거름을 동구로 실어나른것은 안해가 이웃 군에 사는 언니네집 대사에 간 때였다. 그 시간을 택한것은 필경 터밭거름을 마련하느라 극성을 부렸을 안해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래지 않아 터밭에 씨앗을 넣

어야 할 때이니 안해가 거름을 내놓자고 하지 않을 것이었다.

사흘후에 집으로 돌아온 안해는 애써 모아들인 거름이 다 없어진것을 보고 아연해했다.

《아니 거름은 다 어쨌수? 정말 터밭 농산 그만 두려우?》

《...》

손봉익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안해의 기색이 예상보다도 더 나쁘기때문이었다.

(량해하오. 그까짓 터밭 농사 한해 안됐다고 큰일 나겠소. 저런 은행나무는 한번 죽으면 다시 못얻소. 몇대를 지나기전엔...)

손봉익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조합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하는걸 내 모르지 않아요. 그래 요전번에 거름 한삽 안남기고 반반 다 내갈 때도 막지 않았어요. 아 그래두 터밭이 있는바하구 거름을 내는 흥내라도 내야 할게 아니우. 맨 씨앗만 땅에 넣겠수.》

안해는 혀를 끝끝 차며 부엌으로 들어가버렸다. 그는 이번 거름도 조합밭에 실어내간줄 아는 모양이었다.

손봉익은 안해와 토의없이 거름을 실어내간것을 미안히 여기면서 한편 안해가 그렇게 생각하는것을 다행으로 여기었다.

안해가 사실을 알게 된것은 며칠후였다.

작업반에서 세대당 거름생산 실적을 종화하였는데 손봉익이네 순위가 네번째였다.

안해는 낫색이 흐려지여 남편을 쳐다보았다. 해마다 그러했던것처럼 올해 거름생산에서도 첫자리를 차지하려니 생각해온 안해였던것이다. 더우기 이해엔 터밭에 내려던 거름까지 두차례나 실어내지 않았는가. 더더욱 리해가 안되는것은 중간종화를 했을 때나 지금이나 거름실적이 똑같은것이였다.

안해는 어서 일어나 해명하라고 연방 눈짓을 했다. 그러나 남편이 일어설념을 하지 않자 속답답해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만큼 승벽심이 강한 안해인 것이였다.

작업반 모임이 끝나 헤어질 때 안해의 의문과 불만은 한층 고조되였다.

마을 웃켄에 집이 있는 동갑아낙네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튀어나온것이였다.

《거 읍에서 실어온 술지게밀 좀 달라구. 우리 돼지가 잘 먹지 않아서 그래.》

《뭘 술지게미?》

《전번날 아저씨가 식료공장에서 실어온걸 벌써 다 맥였나?》

《...?》

《시치미를 떼지 말구 한바께뜨만 줘.》

《...》

안해는 영문을 몰라 상대방을 쳐다만 보다가 이렇다할 대답도 못하고 집을 향해 급한 걸음을 내짚었다. 남편한테 무엇인가 속고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어 하얘졌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남편에게 따지고들었다.

《왜 사람을 속여요 왜?》

《...!》

손봉익은 안해한테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거름을 어쨌어요? 술지게민요?》

안해는 미처 대답할 사이도 주지 않고 련속 들이댔다.

《미안하오. 사실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거름도 술지게미도 은행나무 밑에 묻어주었다고.

안해의 뒤틀린 속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다. 터발에 낼 거름 한삼치 안담기고도 거름생산에서 다른 집에 뒤진 것이 분해서, 더구나 자기를 속인 남편이 야속해서 안해는 토라진 소리를 내뿔었다.

《그래 당신한테 제일 귀중하게 저 은행나무요? 당신 뒷에 잔뜩 훌리워 혼이 나간게 아니요? 아 저 늙어빠진 은행나무가 뭐 그리 귀중해서 제 녀편네까지 속이면서...》

손봉익의 술진 눈섭은 꿈틀했다. 그는 억이 막혔다. 의도는 어떻게 자신이 안해를 무시한 것은 사실이었어서 어떤 분풀이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허나 아무리 속히운 것이 분하기로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말이라고 함부로 예의!

안해에 대한 죄스런 감정이 분기로 뒤바뀌었다. 손봉익은 흥분되어 소리쳤다.

《그래 나에게 제일 귀중하게 저 은행나무다. 저 나무가 날 살게 했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단말이야.》

왜서인지 목이 껍 감겨들어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제 소리에 눈곱이 시큰해났다. 흥분한 속에서도 진정을 토로한 것이었다.

그랬다. 일찌기 부모를 다 잃은 손봉익은 지옥 같은 징용살이 전기간 동구의 은행나무를 고향의 모습으로 눈앞에 그리며 어떻게나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다졌고 탈출한 후 굶주림에 지쳐 만주의 황야에 쓰러졌다가도 은행나무의 설레임소리를 고향의 정겨운 부름소리로 귀전에 살리며 기고 또 기였었다. 구사일생으로 고향어구에 이르러 은행나무에 기대여 정신을 잃었을 때 맨처음 그를 발견하고 구원해준 처녀가 지금의 안해였다.

손봉익은 황황 불이 이는 눈길로 안해를 노려보았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나무밑에서 토지분여모임을 하고 너무 감격해서 나무를 불안고 울던 일을 다 잊었어. 영?》

안해는 눈길을 떨구었다. 그의 두볼로는 눈물이 줄지었다. 남편의 과거지사를 잘 아는 안해였다. 일시적인 분한 감정을 못참아 남편의 아픈 상처를 병기친 것이 죄스러워 울면서 사죄했다.

《용서해요. 내 다신 안그렇게요.》

그다음부터는 남편과 함께 은행나무에 온갖 지성을 쏟아부어온 안해였다.

그 안해가 지금 저 봉분밑에 누워있는 것이다.

《여보, 이제 그만 내려가겠소.》

로인은 다시금 무덤속의 안해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 3

어느덧 해가 한발 솟아올랐다

손봉익로인이 집을 향해 걷고있는데 찾는 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몇집 건너에서 사는 박정구였다.

《왜?》

《오늘아침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합시다.》

《뭘 번번이 ...》

《어서 갑시다. 내 오늘 형님한테 꼭 할말도 있수다.》

《그래? 그럼 가세나.》

박정구의 로친이 반색을 하며 로인을 맞아들였다.

아들 며느리는 이미 일을 나가고 손자들도 학교에 간듯 방안에는 음식을 차려 흰보자기를 덮어놓은 두리반만 한복판에 놓여있었다.

로친이 더운국을 떠들여다 놓자 박정구가 술을 한잔씩 따랐다.

《아니 이거 아침에 술은 무슨...》

《한잔 드슈. 형님이 고향을 뜨면 내가 언제 술따라 드리겠소. 이진 사죄술이웨다.》

《무슨 소릴, 사죄라니...?》

《우선 잔을 비우고 이야기합시다.》

둘은 잔을 비우고 안주를 한점씩 들었다.

박정구는 다시 한잔씩을 부어놓고 입을 열었다.

《내가 관리부위원장을 할 때 못할짓을 하려다가 형님 맘고생시킨 일이 늙어갈수록 더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아 뭘가지고 짜꾸 그러나?》

《형님이 잊었으면 다행이외다. 내가 거 56년도에 가구공장 사람들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동구의

은행나무를 찍자구 하지 않았댔소. 발에 그늘을 친다는 핑계로…》

《아 그 일. 거 머 까마득히 지나간 일인데…》

《…》

《…》

잠시 말없는 속에 둘은 그때 일을 회상했다.

손봉익이 평양 동물원을 다녀온 직후였다.

그는 동물원에 가 사정하여 새끼딱따구리 한마리를 얻어왔다. 그 사양방법도 목책에 구체적으로 적어왔다. 길을 들어 동구의 은행나무에 거접시킬 심산이었다. 나무가 늙어감에 따라 벌레가 끼는 것 같아서였다.

그는 딱따구리를 길들일 때부터 은행나무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 새장을 나무중턱에 걸어놓고 시간맞춰 먹이를 가져다주곤 했다. 그는 긴 사닥다리를 만들어 자기가 올라갈 때는 나무에 걸쳐놓았다가 내려와서는 장난세찬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멸찍이 치워놓곤 했다.

그날 중낮때 손봉익이 딱따구리 먹이를 가지고 동구로 나가는데 은행나무아래 웬 사람들이 둘러선 것이 눈에 띄었다.

그들중 누군가가 세워둔 것이 해빛에 번쩍하는데 눈밝혀보니 대형 맞춥이었다. 어떤 사람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있다.

손봉익은 가슴이 선했다. 다음 순간 온몸의 피가 정수리로 치달아오르는 듯했다.

그는 쏜살같이 은행나무로 달려들어가며 소리쳤다.

《못다친다. 이놈들아-》

그는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물어볼 경황도 없어 무작정 맞춥부터 빼앗아 내던졌다. 다음은 나무밑으로 다가들어 나무를 뒤로 감싸안았다. 그런 다음에야 열이 오른 눈으로 사람들을 휘둘러보았다.

모를 사람들이었다.

《뭐요. 남의 마을에 와서 무슨짓들이요? 어디서 왔소?》

《우린 가구공장에서 왔소. 이 나무를 찍도록 산림경영소와 여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소. 그런데 동문 누구요?》

그들중 제일 나이 들어보이는 사람이 침착한 어조로 되물었다.

《난 이 나무의 주인이요.》

《아니 그럼 이 나무가 개인거요?》

그들중 누군가가 시까스르느루로 말했다.

《…》

손봉익은 그 소리가 귀에 저슬렸으나 선뜻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렸다. 그는 잠시후에 불이 이는 눈으로 상대방을 쏘아보며 대답했다.

《내 고향의 나무니 내가 주인이요.》

《동무 이러지 마오. 관리위원회 승인까지 받고 하는 일을 왜 동무가 훼방하오? 이런 은행나무는 고급 가구재요. 우린 이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 우선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려고 하오.

발에 그늘을 치는 나무를 그냥 뒀서 뭘하겠소. 쓸데 유용하게 써야지.》

나이 들어보이는 사람의 설복이었다.

《안되오. 관리위원회 누가 승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문 못다치오. 어느 개별적인 사람의 권한으로 찍을 나무가 아니요. 물러가오. 못찍소. 내 몸뚱이를 먼저 찍기전엔 절대로!》

손봉익은 막무가내로 내뺐쳤다. 리당위원장과 관리위원장이 도에 회의를 가서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그들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애당초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 누가 승인했던말인가?

그때 마침 관리부위원장 박정구가 동구로 나오고있었다.

(그럼 박정구부위원장이 … ?)

손봉익의 눈에서는 또다시 불이 번쩍했다.

박정구는 관리위원회에 들렀던 가구공장사람들을 먼저 내보내고 뒤따라 나오는중이었다. 그는 은행나무를 막아서있는 손봉익을 일별하는 순간 속이 떨려남을 느꼈다. 저절로 걸음이 멈춰졌다. 필경 상서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리당위원장, 관리위원장이 없을 때 은행나무를 베라고 승인한 것이 잘못된 처사가 아닐가 하는 느낌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내친 걸음을 돌려세울수는 없었다. 저 나무로 고급 가구를 짜서 우선 우리 조합 세대들에 공급해주겠다는데 좀 좋은가. 나무야 또 심어 자래우면 되는거지…

박정구는 애써 걸음을 내짚어 손봉익의 앞으로 다가갔다.

《봉익형님, 발에 그늘을 치기에 이 나무를 찍고 작은 나무를 심게 했으니 그리 아시우. 이제 이불장을 만들면 맨처음 형님네한테 드리겠소.》

《뭘라구 이 너절한 자식아-》

손봉익은 벽력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와락 박정구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아니 이거…》

《이 물욕에 환장한놈아. 이불장이 어떻구 발에 그늘이 어째? 부위원장이라는데 고작 생각이 그거야? …》

박정구의 멱살을 조여친 손봉익의 두손은 부르르 떨렸다.

《너도 전선으로 나갈 때 이 나무밑에서 사진을 찍었댔지. 고향을 잊지 말자구. 고향을 위해 목숨걸고 싸우자구… 그래 전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고향생각이 안나던? 이 나무생각이 안나? 그때 함께 사진을 찍은 동무들중에 몇명이 돌아왔니? 너나 난 돌아왔지만 못돌아온 사람이 더 많아. 원식인 못 돌아오면서 영웅이 되었다. 고향을 위해서... 그때 동무들이 죽으면서 그려본 이 나무를 찍어? 죽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간 나무를 찍어 이불장을 만들어? 말해봐.》

손봉익은 박정구를 모멸에 찬 눈으로 쏘보며 다물어댔다.

《...》

박정구는 눈길을 떨구었다.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모닥불을 들쭉갠 것 같이 확확 달아올랐다. 외지 사람들앞에서 이런 망신을 주다니, 무지막지하게... 그는 손봉익과 마주 멱살을 쥐고 대들이판을 벌릴 충동이 치받쳤으나 애써 참았다. 아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봉익이 상기시킨,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고향동무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길이 박정구를 제압했는지 모른다.

가구공장 사람들이 손봉익을 달래었다. .

《동무 그만하시오. 우린 그냥 돌아가겠소. 이 나무에 그런 사연이 깃들어있는지를 우린 몰랐겠소.》

나이 들어보이는 사람이 거둬 사정조로 달래며 손봉익의 손을 풀어놓아서야 박정구는 가까스로 제 몸을 수습했다.

박정구는 일간 사람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서고만 있었다. 그의 목덜미는 수치감으로 시뻘쭙게 달아올랐다.

손봉익은 여전히 분기를 참을수 없어 박정구를 노려보며 내쫓았다.

《발에 그늘이 쳐서 더 못나는 강냉이는 내 분배 몫에서 짜르면 돼.》

둘은 누구도 가구공장 사람들이 언제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후에 둘사이의 관계는 오래도록 어성버성했었다.

《자 한잔 더 드슈. 다시한번 날 용서하는 의미에서...》 하는 박정구의 소리에 손봉익의 생각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럼세!》

손봉익은 기꺼이 두번째 잔을 비운 다음 말을 이었다.

《그후에 자네가 저 은행나무에 마음을 적지 않게 써오지 않았나. 나무주변에 휴식터를 잘 꾸린건 자네 공로지.》

《그야 리당에서 비판을 단단히 받았기때문이지요. 허허.》

《어쨌든...!》

식사를 끝내고 상에서 물러나 앉으면서 박정구가 말을 건넸다.

《형님 내 청을 들어주겠소?》

《뭔데 ?》

《아들네 집에 가지 말고 예서 삽시다. 촌사람은 촌 공기가 좋아요.》

《...》

손봉익은 선뜻 대답할 말을 고르지 못했다. 고향을 뜨지 않으면 얼마나 좋으랴. 할수 없으니 뜨는 게지...

이런 손봉익의 심중을 헤아린듯 박정구가 발을 달았다.

《때식이랑 빨래랑은 우리 로친이 해드리겠대요. 늘그막에 가진 어디로 가겠소. 나와 함께 은행나무나 돌보면서 예서 삽시다.》

《고맙네!》

손봉익은 눈물을 보일가봐 문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 4

아들 형준은 중낮이 가까와오는 때에 동구에 나타났다.

시간맞춰 동구에 다시 나가있던 손봉익로인은 은행나무밑에서 아들을 맞이했다.

《아버지 그간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아들은 근심과 련민이 어린 어조로 인사말을 했다. 고향집에 홀로 남은 늙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밥술이 멈춰지던 아들이었다.

한달전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떠나갈 때 그는 아예 아버지를 모셔가려 했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 무덤가에 습기도 마르기전에 어떻게 고향을 떠난단말인가고 아버지가 완고히 도리질을 하는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난 아무 불련없이 지냈다. 고향사람들이 한집 안 식구들처럼 돌봐줘.》

로인은 아들을 안심시키면서 고향사람들 곁을 떠나고싶지 않는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비치었다.

《걸어오느라고 덥겠는데 속이 시원하게 샘물을 마시렴.》

로인은 은행나무 오른편의 샘터로 눈짓을 했다.

물확이며 굵도리, 옷설미를 여러 모양의 돌로 조화롭게 만들고 걸면이 노랗게 잘 익은 조롱박 두 짝을 띄워놓은 샘터는 정갈하면서도 자연미 가났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좇아 샘터로 다가가 샘물을 한조롱박 떠들었으나 선뜻 입을 대지 못하였다.

은행나무밑에 샘터를 만들기 위해 퍼그나 먼곳에서 샘줄기를 찾아 끌어온 아버지의 수고가 다시금 헤아려지고 매해 조롱박을 잘 여물쿠어 제일 모양 좋고 색깔 고운것을 짜개여 샘물에 띄워놓곤 한 어머니의 정성이 눈뿌리가 뜨겁게 되새겨지는 것이었다.

아들이 샘물을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로인이 입을 열었다.

《그래 거 내가 부탁했던 옛날 <동아일보>사진을 복사해왔겠지?》

《예, 평양에 올라가서 품들여 신문을 찾아 복사했습니다.》

《어디 보자, 크게 만들었겠지?》

《예, 아버지 말씀대로 크게 두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들고 온 가방에서 작은 학습장 규격만한 사진 두장을 꺼내었다.

로인은 안경을 꺼내 코마루에 대고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직 잎이 피지 않아 앙상해보이는데다가 옆구리에 도끼날 상처까지 입은 은행나무, 나무뒤로 배경처럼 보이는 둔덕우의 쓰러져가는 추녀앉은 오막살이들, 아직 날이 찬 이른봄인데 아래도리도 변변히 못가리운 아이들이 밭에 나서서 풀뿌리를 캐고 있다.

사진밑에는 《춘궁의 와우마을》이라는 글이 쓰여있다.

《맞다. 이 사진이 ...》

손봉익이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하는 소리였다.

1940년봄, 첩으로 끌려가게 된 굽단이가 은행나무에 목을 매 죽고 약혼녀를 잃은 분통함을 참을 길 없어 총각 손봉익이 애꿎은 은행나무에 도끼질을 한 바로 그날, 우연히 와우마을을 지나던 량심적인 한 신문기자가 퍽박한 마을형편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것이였다.

얼마후 신문에 자기네 마을 사진이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누구 하나 별로 흥심을 가지지 않았다. 가슴 언짢거나 한 사진을 찾아와선 뭣하랴. 철없는 애들만이 저희 사는 마을이 신문에 났다고 오그그 머리를 맞대고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손봉익이 그 신문사진에 마음이 쏠린것은 그로부터 몇년후 일제놈들의 징용에 끌려가서였다.

일본놈의 총구앞에서 채찍에 휘감기며 진종일 고역을 강요당하다가 천근같은 몸을 이끌어 바라크에 와 쓰러지면 애절하게 고향이 그리워지고 그러면 고향마을 사진이 난 그 신문을 왜 한장 얻어두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가 막심했다.

해방후에는 감감 잊었었다. 그러다가 그 신문에 대하여 다시 상기하게 된것은 리당비서가 찾아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착취받고 억압당하던 지난날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한 때였다. 그래 한해전에 아들한테 그 낡은 신문을 찾아보라고 부탁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에 얼마전에는 성을 내는 편지를 써보냈던것이였다.

40여년전의 고향마을 사진을 들여다보니 너무도 초라하고 한심하여 과연 여기에 이런 마을이 있

었던가? 이런데서 사람이 살았던말인가? 하는 의문이 저절로 생길 정도였다. 은행나무가 찍히지 않았다면 와우마을 사진이라고 믿기 어려울것이였다.

손봉익은 사진에서 눈을 들어 마을쪽을 바라보았다.

2층짜리 덩지큰 학교, 문화선전실, 탁아소, 유치원, 리병원, 회벽눈부신 세칸짜리 문화주택들, 트랙트와 자동차들이 려지어 서있는 기계화작업반, 규모있게 정리된 밭과 논, 양수장...

로인은 다시 손에 든 사진에 눈을 주었다가 마을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천지개벽이지! 과시 선정이다!》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찬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눈길은 마을 정점에 쏙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라는 구호에 가 머물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구호가 신통히 자기 심정을 대변하고있다는 생각이 든것이다. 끊임없는 나라의 혜택속에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건설하려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애써온 나날들이 가슴뿌듯하게 회상됐다. 내 피팍도 바쳐진 락원의 고향이다. 어디에 눈길 돌려도 모두다 정든 땅, 아, 이런 고향을 두고 내가 가길 어디로 갈손가.

《아버지, 그만 집으로 들어가실가요?》 하는 아들의 소리에 그는 흐뭇한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는 동문서답의 말을 했다.

《이 사진을 너무 늦게야 복사해왔어.》

《...》

《그래 사진기도 가져왔겠지?》

《예.》

《꺼내라. 이 사진과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 마을 사진을 찍어라.》

《...!》

그제야 형준은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았다. 고향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대비하려는것이다. 아버지의 편지에 해방전 고향마을의 사진이 당적분공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썼던 구절이 떠올랐다.

형준은 아버지의 의견을 좇아 촬영위치를 정하고 구도경에 눈을 가져다뒀다.

기름기 흐르는듯한 푸르싱싱한 거목- 은행나무, 그뒤로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고향마을전경이 한눈에 들어올 때 형준의 가슴은 흐뭇해났다. 고향마을에 정이 더해지고 긍지감이 솟구쳤다.

형준은 셔터를 눌렀다.

《다시 한번 찍어라.》

다시 한번 찍었다.

《가만, 은행나무잎이 무성해 가리우는 집들이 있겠는데 어느 집들이냐?》

형준은 다시 구도경으로 마을을 바라보았다.

《탁아소와 그아래 살림집들이예요.》

《안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 나오게 다시 찍어봐라.》

《그럼 은행나무는 걸지 말고 마을만 찍지요.》

《아니 안돼. 은행나무 없는 와우마을 사진은 필요없어.》

로인은 머리까지 저으며 짤라 말했다.

형준은 여러번 위치를 옮겨가면서 겨우 아버지가 의도하는대로 사진을 찍었다.

《자 이번엔 이 나무와 마을을 배경으로 나를 한 장 찍어다구.》

로인은 움쭉 자리를 일어 은행나무 가까이로 다가섰다.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히 나오도록 초점을 맞추느라니 불시에 눈곱이 저려움을 형준은 느꼈다.

아버지가 남달리 고향을 사랑해왔다는것을 형준은 알고있었다. 고향땅을 위해, 동구의 이 은행나무를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는것을 어머니는 종종 아들에게 이야기했었다. 사랑과 정을 짙그리 바친 고향을 늙은이가 어떻게 뜰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쩔수없이 고향을 뜨는 문제가 상정된 지금 아버지는 사진으로나마 이 고향을 안고가기 위해 은행나무결에 선것이라.

다음 순간, 형준은 아버지의 주름깊은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줄기를 발견했다. 아, 아버지가 우신다.

형준은 자기가 어떻게 샤타를 눌렀는지 몰랐다.

코멘 소리로 《됐습니다.》 하기도 인차 눈에서 사진기를 떼지 못하였다.

로인은 아들의 심리를 재빠르게 감촉하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늙어지면 눈물이 해퍼지누나. 오랜만에 사진을 찍게 되니 기뻐서 그런다.》

그러며 웃어보이려 했다. 그 모습이 더 아들의 망막을 저리게 파고들며 가슴아프게 했다. 아 저런 아버지를 과연 고향에서 떼어갈수 있을것인가? 도시로 모셔다 아무리 공대한들 여기 고향에서처럼 즐겁고 보람있게 여생을 보내게 할수 있겠는가?

형준은 며칠전에 받아본 여기 관리위원장 철규(어린날의 동무)의 편지를 통해 고향을 떠나기 피로와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땅속깊이 뿌리내린 거목을 떠올려서는 안되듯이 로인을 고향땅에서 뜨게 해서는 안되네. 고향의 땅냄새, 은행나무잎새의 설레임소리를 못듣고서는 로인에게 마음의 안정이란 있을수 없을거네.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서글픈 여생을 보내게 될거란말일세.

동구의 은행나무와 더불어 로인의 마음은 향토에 깊이깊이 뿌리내려있기때문이지.

명심하게. 로인을 고향땅에서 떠나게 하는것은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것임...

자식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농산기사인 자네가 자기가 잘 아는 고향땅을 제손으로 잘가꾸어 고향앞에 지닌 의무를 리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로 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네.

육종을 전공하지도 않은 동무가 도 종자관리소에 꼭 남아있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자네를 더욱 필요로 하는곳은 여기 고향땅일세.

고향이자 조국이지.. 고향을 뜨겁게 사랑하는것이 곧 조국을 사랑하는것이라고 생각하네.

자네가 제기한다면 당조직에서는 승인해주리라고 믿네 ...》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한듯한 철규의 편지는 형준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이켜보게 했다. 형준은 생각이 깊어졌다. 관리위원장 철규의 호소에 공감은 되면서도 능력에 부치지 않는 현재사업과 자리잡힌 도시생활을 선뜻 떠나고싶지 않는것이였다.

хин번 더 아버지를 설득시켜보고 그다음에 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길을 온 형준이였다.

그가 사진기를 가방에 넣을 때 아버지가 다시 말을 건넸었다.

《사진을 오늘중으로 뽑을수 있을까?》

《아니 여기선 현상을 못합니다.》

《그럼 읍에 가서 해오지.》

《...》

《너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피곤할테니 필립만 뽑아 나를 타고. 내 읍에 나가 깨워오지.》

《아니 꼭 오늘중으로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면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와 앉아라. 어머니도 없는 집안에 들어앉느니 여기서 이야기나 좀더 하자. 점심때도 멀었는데 …》

로인은 아들이 앉기를 기다렸다가 계속했다.

《나한테 왜 사진이 한시바삐 필요한가 하니 내 할바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서 그런다. 지금 젊은 이들이나 학생아이들이 착취도 받아보지 못하고 고생도 해본것이 없어 나라의 혜택을 응당한걸로 여기며 보답할 생각들을 잘 안해. 오히려 투정질을 하려들지. 우리 고향이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변했구. 이 고향에 어떤 피와 땀이 바쳐졌는지 모르니 더 잘 꾸리려고 애쓰는게 부족해. 그래서 리당비서가 여서 제일 오래 산 나한테 과거지사를 잘 알려주라고 분공한건데 내가 아직 변변히 못수 행했거던. 말로는 몇번 했지만 깊이 알아듣지 못해. 실물로 보여주는게 몇갑절 효과가 있을거야. 이런 사진이야 실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냐 같지. 그래 옛날 우리 마을 사진과 오늘의 우리 마을 사진을 리선전실에 나란히 붙여놓고 말해주려고 그래. 이젠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의 의무지.》

로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머리우를 덮은 풍성한 은행나무가지들을 휘둘러보며 계속했다.

《내가 고향을 떠난다 하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게 이 은행나무다. 이 나무를 여기 사람들 누구나가 다 자랑으로 여기고 귀중해하지만 이 나무를 제일 잘 아는게 나다. 나에겐 이 나무를 특별히 잘 돌볼 의무가 있다.》

로인의 어조는 다심한 걱정기가 어려 올렸다.

《나무가 이젠 늙을대로 늙다나니 껍질이 많이 터지거던. 그 터지는 짚이 약해서 벌레란놈이 들어들어. 딱따구리가 벌레잡이를 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곤 부족해. 소독을 해주어야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 구색에 맞게 거름을 물어줘야 하거든. 학생들이 나무를 돌보고 관리위원회에서도 관심하고있지만 이때까지 내가 주관해오던 나무여서 그런지 마음에 안놓인다. 내가 여길 뜨면 저 딱따구리도 은행나무를 버리고 갈것만 같아…》

로인의 잔걱정은 마디마디 아들 형준의 심중에 파고들었다.

어린날 자기가 받던 아버지의 그 보살핌, 그 애무를 은행나무가 다 받고있는듯했다. 친자식을 돌보듯 이 나무를 애지중지해온 아버지인것이다.

《너는 공부를 했으니 도시에 살아도 고향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를 떠나서는 고향을 위해 할일이 더는 없구나. 그게 한이다. 난 죽을 때까지 고향을 위하다가 이 고향땅에 묻히고싶다. 네 어머니와 그렇게 약속했했지.》

로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로인의 진정담긴 간절한 그 호소는 아들 형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아, 고향에 사랑을 바칠대로 바치고도 무엇인가 못다 바친것만 같아 속을 태우는 그 마음! 고향에 대한 사랑을 어길수 없는 의무로 간주하며 생의 끝날까지 고향에 자신을 바칠것을 소원하는 아버지! 사랑을 준것만큼 정이 깊어져 차마 고향과 헤어질수 없어하는 아버지의 고뇌를 아들인 내가 풀어드려야 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 고향에 대한 사랑을 어길수 없는 의무로 여기며…

형준은 아버지결으로 다가왔으며 감동에 젖은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덜된놈이 돼서 그새 아버지 속을 태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고향을 뜨지 마십시오.》

《 ? … 》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 ? ! 》

로인은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아했다. 다음 순간, 눈에서 물기가 번뜩였다.

로인은 걱정이 북받쳐 아들의 손을 굳게 그리잡았다.

《고맙다 ! ! 》

그때 은행나무우에서 딱따구리의 나무 쫓는 소리가 가락맞게 울리기 시작했다.

《떡더그르… 떡더그르르…》



와우마을어구에는 세아름이 넘는 큰 은행나무가 실한 가지들을 펼쳐들고 청청히 설레이고있다.

오랜 세월의 년륜을 새기며 팡창한 거목으로 된 나무가 오늘도 푸르싱싱하게 살아 설레이는것은 그의 생활력이 강해서만이 아닌것이였다. …

## 나는 조선사람이다

- 한 해외교포의 수기 중에서 -

림공식

### 세월과 조국

운명의 쪽배 타고 왔던가  
세월의 쪽배 타고 왔던가  
울컥 솟구치는 눈물이  
쓸어안은 한줄 흠을 다 적시누나

머리우에 흰서리가 었힐수록  
사무치게 가슴속에 덧쌓인 그리움이나  
인생의 허무한 종말을 앞에 두고  
불우한 나그네길 걸음걸음 땀했던  
그 설음이 다 녹은 걱정이나

이렇듯 한순간에도  
내 마음을 다 터놓고  
내 한생을 다 속죄할수 있는 땅  
해빛밝은 저 하늘이  
어쩌면 너그러이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같은가

나서자란 고향산천 멀리 떠나  
음울한 이국의 하늘밑을 거닐며  
아, 타향살이 마흔해는  
지옥같은 피로움속에  
칠칠 그믐밤처럼 길었도다

현란한 불빛이 명멸하는  
유흥과 환락의 거리, 너는  
유혹의 추파를 던지며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고  
얼마나 녀불처럼 읊조렸거나

깊숙이 폐부를 파고드는

그 읊조림에  
순간이나마 마음 흐려질제  
헛살아온 생을 저주하며  
배달민족의 그 녀만은  
버릴수도 빼앗길수도 없었더라

이국의 산해진미보다  
구수한 토장국냄새 그리웠고  
거품 솟는 삼광보다  
버들잎 띄워 먹던  
고향집 박우물이 못건디게 마시고싶었도다

그렇도다  
낯아키운 나의 어머니  
정녕 하나이듯이  
그 어이 두 조국이 있을소나

아, 타향살이 백년도  
때문힐수 없는 민족의 얼  
달리는 지닐수 없는 민족의 피  
너만은 세월이 흘러도  
태를 묻은 향토로 나를 이끄누나

흐르고 또 흐르는  
세월과 함께  
이 세상 모든것 다 변하여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조국아  
바로 너였구나  
조국이 없는 삶  
그것은 삶이 아니었구나

### 위대한 품

삼가 여기 오르다  
승엄한 만수대언덕  
한층계

한층계  
더운 눈물 떨구며  
또 한층계

생의 첫 걸음 옮기듯  
층층 계단을 오르고오르니

오호, 이 심장이 뛰는가  
정녕 뛰는가  
해빛처럼 밝은 미소  
하얗 지으시고  
수령님, 우리 수령님  
이러히도 뜨거웁게 반겨맞아주실줄...

꿈만 같도다  
꿈만 같도다  
이역의 나그네길에  
정처없이 헤매이던 이 몸을  
이러히도 한품에 안아주실줄

하해같은 은정에  
목이 메여  
눈시울은 다시 젖어들고  
더없이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  
가슴가득 차오르는데

수령님, 어버이수령님  
제 태를 묻은 강토에  
땀 한방울 바친것 없어도  
조국에 찾아온것이  
그 무슨 애국심이라  
이처럼 뜨겁게 맞아주시나이까

오, 가랑잎처럼 흩어졌던  
이역의 우리 민족이  
짓눌렸던 가슴을 펴고  
삶을 되찾은 환희로  
만대에 길이 받들어모시는  
위대한 사랑의 태양

아, 대양 건너 천만리 먼곳에 살아도  
한피줄을 이은 겨레라면  
그 언제나 따사로이 안아주시는  
위대하신 수령님의 품  
우리 조국의 넓은 품은  
진정한 새삶이 태어나는  
한없이 넓은 어머니품이여라

## 고향집에서

십자성너머 아득히  
신기루처럼 보이던  
아, 고향집 마당가에  
허연 백발을 이고 들어서니

아들이 왔다고  
이 불효자식을 반겨  
그리웁던 나의 어머니  
두팔 벌려 얼싸안으시며

불러주시네  
목메인 소리로

뜨거이  
나를 불러주시네

-장손아!  
순간, 멀리 흘러간 유년시절이  
꿈속처럼 펼쳐지고  
없어진 백발이 사라지는듯

아, 이국에서 로인이던 몸  
어릴적 아명으로 다정히 불러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니  
깡소년되었어라

## 밝은 모습

조국에 와서  
나는 그저  
신비한것에 매혹된 어린아이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거리에 나서도  
외진 벽촌을 찾아도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습  
그처럼 하나같이 밝은지...

조국에서는

날마다 즐거운 명절이 있는듯  
늙은이나 젊은이나  
꽃같은 아이들이나  
누구나의 얼굴에서도 찾아볼수 없구나  
한가닥 그늘도

행복한 삶의 노래만이  
넘쳐흐르는 땅  
여기서는  
해빛도 땅도 류다르게 밝고  
산천은 맑은 정기 뿜는것인가

무엇이  
그 무엇이  
이처럼 사람들마다  
억만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밝게  
아름다운 생의 꽃을 피우며 살게 하는가

아, 조국방문의 나날  
나는 들었다

만사람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  
신비하게  
놀라웁게  
오래도록 새겨들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천만식술을 돌봐주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 헤아려주십니다

## 나는 조선사람이다

노을 비긴 대동강변에 서니  
환희에 가슴 부풀고  
격정에 목이 메어  
눈시울이 뜨겁도다

아, 얼마나 숭엄하고  
그 얼마나 장쾌한가  
하늘높이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여  
두쪽의 붉은 기발이런듯  
휘날리며 솟구치는 쌍분수여

우러르고  
또 우러를수록  
이 가슴속 깊은곳에서  
억제할수 없는 환호성이 터져오른다

주체의 빛발이 누리를 밝혀  
세기의 하늘가에 조선이 빛나고  
존엄높은 민족의 더없는 긍지  
하늘땅에 차넘치도다

인류력사 백만년에  
인간자주의 새 시대를  
처음으로 휘황히 펼쳐준  
위대한 내 조국이 있어

해빛도 스며들기 저어하는  
무성한 장글속에 쫓기여 숨져가는

아마존강 류역의 그 인디안들처럼  
피맺힌 지난날  
이역의 황량한 땅에서  
속절없이 숨져가던 해외교포

나라 잃은 민족이 당하는  
쓰디쓴 멸시와 수모  
가혹한 천대에  
사무쳐 원한이 사무쳐  
몸부림치며 땅을 치며  
피눈물 흘리던 해외교포

아, 활보한다  
조국의 숨결을 안은  
재생의 후더운 가슴을 펴고  
마치 순간에 거인으로 태어난듯  
존엄높은 발걸음 내짚나니

노을비긴 대동강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탑아래서  
자부심 안고  
궁지 드높이  
온 세상을 향해 나는 웨친다

세계여  
인류여, 부러워하라  
-나는 조선사람이다 !

## 품은 하나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비행기나 렬차표를 사들면  
단숨에 달려올수 있는 조국이건만

어이하여 못오는가  
겨레여, 그리운 형제들이여  
여기에서 남녘은  
저 달나라보다 더 멀다더냐

가슴 아픈 분단의 비극을 장식한  
원한의 가시철조망에  
고압전류가 흘러  
국경아닌 국경처럼  
콩크리트장벽이 피를 끓이누나

지난 세월  
망국노의 슬픔을 안고  
정든 조국산천을 하직했던

이 수많은 나그네도  
대양을 건너 대륙을 지나  
여기로 왔다

왔다, 이 땅으로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흘러간 나날  
이역에서 그 어떻게 살았든  
과거를 묻지 않고  
따뜻이 맞아주고 안아주는 품으로

안기면  
생이 락으로 되고  
민족의 고귀한 넋이  
하늘높이 나래를 펴는  
이 은혜로운 품이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고마운 조국의 넓은 품이여라

헤어져 살아도  
남이 아닌  
내 동포  
내 혈육이건만  
남녘의 겨레는 왜 못온단말인가

더 그렇게 살지 말자  
갈라져 남처럼 살지 말자  
저 가시철조망과  
콩크리트장벽우에  
이 한몸 던져서라도  
끊어진 민족의 피줄을 잇고

아, 겨레여, 남녘의 겨레여  
세상에 단 하나인  
아버이수령님의 넓은 품에 안기여  
아름다운 금수강산 노래부르며  
웃으며 살자!  
빛나게 살자!

## 언제나 한마음으로

백의선

푸름히 밝아오는 제강소의 첫 새벽  
강재를 실은 렬차를 바래우며  
다정한 벗처럼 걷고있어라  
작업복 입은 당비서와 소조원이

하루에도 그 몇번  
그들은 이렇게 만나는것인가  
한교대의 용해공처럼  
쇠장대를 서로 넘겨받으며  
흰김 서리는 강피우에  
허물없이 둘러앉은 용해공들속에서

기약도 없이 그들은 만났더라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비바람 드세던 로건설장에서  
언듯 스치던 번개불빛에  
밝은 미소만을 서로 나누며

때로는  
제대병사가 새로 받은 집  
첫 살림 돌보며 찾아가는 거리에서  
때로는  
휴식일의 봄 아침  
파일나무 심던 새 살림집 트랙에서

기쁠 때도 힘겨울 때도  
그 생각은 하나  
말없이 오고가는  
그 숨결도 하나

아, 언제나 땅이 바라는 그곳이  
그들이 서야 할 지점이였기에  
하나로 불타는 그 마음은  
서로의 약속 없이도  
한곳에서 만나게 했거니

떠밀어주며  
받들어주며  
하나로 합쳐지는 그 마음이 비껴  
쇠물도 붉게붉게 한빛으로 끓는가  
노을도 하늘가에 한빛으로 물드는가

아, 새날의 창공에 기적을 울리며  
힘차게 달려가는 저 기관차를 떠받들고  
나란히 뻗은 두줄기 철길처럼  
당비서가 걷는 길  
소조원이 걷는 길  
우리의 강철전선을 떠받든  
하나의 궤도처럼 뻗어있어라!



## 고향사람

김철민

사람은 한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게 된다.

때로는 동창생으로, 때로는 전우로, 때로는 그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

그러나 고향사람인 경우는 그렇게 만나서 사귀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향! 그것과 함께 어머니처럼, 친혈육처럼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련결된 사람들이며 자기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련결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고향사람들, 가령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가 고향을 떠나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도 고향이 갈을진대 서로 반갑게 만나는것이 아닌가.

고향사람! 입에 담아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마음이 이상해진다.

나는 얼마전 이 레사로운것 같으면서도 레사롭지 않은 부름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 고향을 사랑한다는것은 어디까지나 고향의 인민들과 산천초목을 사랑하며 자기 고향의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잘살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한다는것을 말합니다.》**

그날 온성읍거리에는 눈이 하얗게 내렸다.

아직은 발자국이 찍혀지지 않은 거리를 기분 좋게 걸던 나는 비질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 공원의 중심부에는 흰눈을 가지마다 무겁게 얹은 검푸른 전나무숲을 배경으로 항일혁명투사 최춘국동지의 동상이 평양 하늘을 우러러 서있었다.

동상두리를 따라가며 백발의 로인이 정히 눈을 치고있다.

《할아버지, 수고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인사하며 다가가자 허리를 편 로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지 눈을 쏘프린채 그대로 서있었다.

내가 거들 큰소리로 인사해서야 로인은 두어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석심한 목소리로 떠엄떠엄 말했다.

《우리 고향 사람이지요. 수령님께서 바루 이분의 동상을 고향땅에 세우도록 해주셨다우. 옛날에야 우리 고향을 사람 안되는고장이라구들 했지만. 아니지요 이런분이 다 계시는데...》

쭈뚱히 었혔던 주름살이 활 퍼지며 로인의 얼굴에 화기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고향사람! 나에게는 그 부름이 처음 듣는것처럼 새로운 의미로 가슴에 젖어들면서 투사의 동상 앞에서 생각이 깊어졌다.

여기 온성군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자랐다는 최춘국동지,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눈보라우는 서러운 겨울밤이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려 눈물을 감쌀며 쪽잠에 들던 소년, 터진 맨발로 뒷산을 헤매며 메를 캐서 굶주림을 달래던 그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설움과 고통의 대명사였다. 그래도 타향의 하늘아래 총메고 나섰을 때 그 고향을 못잊어 장백의 우중충한 산발너머 파아랗게 열린 조선의 하늘을 키돋움해 보았으니 고향은 짓밟혔대도 버리지 못할곳이였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이 아니었던가.

그러한 그였기에 또한 젊으신 장군님을 처음 만나뵈웠을 때 운명을 선뜻 그 품에 맡기었으며 수령님따라 백두의 눈길, 진창길 다 걸어 끝끝내 조국을 찾았고 그 조국을 지켜 목숨까지도 바친것이 아니었으랴!

실로 포연자욱한 최전선에서 치명상을 입고 마지막 5분간에 참모장을 붙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들을 포위섬멸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피라게 당부한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어데선가 한무리의 조무래기들이 나타나 로인을 에워쌌다.

《할아버지, 이젠 좀 쉬라요...》

저마다 한마디씩 해대는바람에 공원이 떠들썩해졌다.

아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랑하시고 조국이 자기의 귀중한 아들로 자랑하는 항일혁명투사가 자기 고향사람인것을 긍지롭게 생각하고있는것이다.

불현듯 나에게는 언젠가 인민학교교묘표를 달고 아버지를 따라 평북도 산골마을인 고향에 갔던 일이 떠올랐다.

밤이 많아 밤나무골이라고 부른다는 극히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고향땅에 들어선 나는 뜻밖에도 고향사람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었다.

밤청대연기가 그물그물 피어오르는 산허리에서 서로서로 둘러가며 어린 나를 무릎에 앉히던 고향사람들! 그들이 후후 불어서 발가주던 노랑게 익은 밤알들에 나는 그만 정신이 쑥 빠졌었다.

그러나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것은 그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하여 떠들썩 이야기하던 모습이다. 누구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웁고 사진까

지 찍었다는 등, 누구는 군대에 나가 큰 훈장을 탔다는 등, 뉘집 장손은 대학을 졸업하자 벌써 큰걸 밭명했다는 등...

그때 나를 사랑스레 바라보던 산골사람들의 선량한 눈빛을 생활의 길우에서 나는 문득문득 보게 된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고향사람들처럼 고향을 빛내이고 조국을 빛내여 자기 고장의 자랑이 되고 공지가 되게 살라는 말없는 당부가 그 눈빛에 담겨있기때문이라 !

나는 그 이후에 한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고향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해주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후 고향과 이어졌던 그 무엇이 끊어진 것인지...

그러나 나에게는 어쩐지 그때 보았던 고향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의 앞길을 축복해주는것만 같다.

그렇다 ! 그들은 내가 자기네 흙을 밟으며 자기네 향기를 마시며 자란 한고향사람답게 량심껏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고있을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네들이 우리 고향사람들이라고 긍지높이 부를수 있도록 몇몇이 살고있는가 !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고 고향과 고향사람들에게 얼룩이 지지 않도록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충실해야 하며 조국과 인민 앞에 성실해야 할것이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세상을 떠나서도 고향땅에 영생하며 고향사람들의 기쁨으로 공지로 영원히 빛을 뿌리는것이다.

고향사람들의 진정에 받들려 그들과 함께 기꺼이 아침을 맞는 항일혁명투사의 동상앞에 서있는 나의 가슴속으로는 이 모든 생각이 불길처럼 뜨겁게 흘렀다.

투사는 오늘도 고향거리의 불빛 살뜰한 창가들에 정깊은 시선을 보내며 숨쉬고있을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친근한 마음으로 다정히 부를것이다.

고향사람이라고, 우리 고향사람이라고...

## 가을은 오고 다시 와도

김정호

평범하게 듣기엔

그 진정 너무 깊어라

천만마디 긴말을 대신하여

우리의 심장 세차게 두드리는

소조원 그대의 말

-올해에도 만풍년을 거두자요

산허리 끊어내고

물길을 째갈 때에도

탐구의 깊은 밤에도

얼마나 간절히 울렸던가

-올해에도 만풍년을 거두자요

한밤중 찬서리

랭상모판에 내릴 때에도

포전머리 우등불가에서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주던

진정어린 그 목소리

밭머리에서 동구길에서

다정히 속삭이며 이끌어주며

우리의 마음속에

풍년들 그날을 씨앗처럼 묻어준

혁명의 전위

눈오는 계절에도

때이른 봄날에도

벼이삭 설레는 소리

언제나 듣게 해준 목소리

가을을 불러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도 매혹되고

다시 들어도 땅에 사랑을 쏟게 하는

소중한 말, 절절한 말

별가득 금나락에 영글고

언덕에 층층 강냉이바다 펼쳐놓았으니

가을이여, 만풍년이여

계절에 실려 네 왔느냐

살찐 땅이 좋아 솟아올랐느냐

너는 소조원의 그 진정, 농민들의 그 소원이

금나락이 되어 무겁게 실리운것

아, 가을은 오고 다시 와도

해마다 금나락은 넘쳐나리

우리 당의 뜻을 꽃피워가는

그대 가슴속엔

만풍년의 설레임소리만 깃들었기에

## 순천의 숨결

김관일

순천땅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벌써 미구에 완공하게 될 대화학공업기지의 웅장한 래일의 모습을 상상력의 도움이나 전망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실로 우리 당이 지퍼준 200 일전투의 거세찬 열풍속에서 이 순천땅은 얼마나 많은 변모를 가져왔는가!

얼마전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제 56 건설사업소의 전투현장을 찾아갔다.

우리가 비날론생산의 선행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알데히드직장 건설장을 찾아갔을 때 마침 그곳에서는 설비조립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었다.

《여기가 바로 알데히드계통전투장입니다. 신문과 방송으로 자주 소개되어 그 까다로운 화학전문용어를 이제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있고 또 모두가 주시하고있는 건설장이지요.》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56 건설사업소의 초급당비서 맹동섭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몸집이 체소하고 별에 탄 얼굴빛은 어찌보면 가무잡잡해보이기도 했으나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는 힘과 열정과 자부심이 차넘치고있었다.

자기들의 건설현장에서 2키로미터정도 떨어진 사업소당위원회의 건물로부터 건설장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직접 현장에서 전투지휘와 조직정치사업을 해나가고있는 그의 몸에서는 은연중 기계기름냄새와 후더운 땀내가 풍기고있었다. 늘 건설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있는 현장당일군의 고유한 체취를 감득하며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두해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온통 기초굴착을 한 흙무지들과 강철기둥, 골조들만이 서있을뿐 그때는 아직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총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일떠서겠는지 이곳의 건설자들조차 잘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문에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작년에 군대에서 제대되어 순천비날론에 배치된 한 동무가 여기에 우뚝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나에게 알데히드직장건설장이 어디냐고 물질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동무가 지금 서있는곳이 바로 알데히드직장의 중심이요.> 하고 대주었더니 못미더워하면서 그냥 사방을 두리번거리겠지요. 정말 그때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빈 터전뿐인 여기에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가 일떠선다는것이 꿈같이 여겨질 때였지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건설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여기에 이토록 거창한 건축물

들과 설비들을 일떠세웠고 바야흐로 조업의 날을 앞당기고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자들이 자기들의 창조물에 대해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완공의 래일에 대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합성직장과 알데히드직장의 사이로 난 도로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합성탑들과 크고작은 탱크들을 비롯하여 각종 기계설비들이 짙 들어찬 합성직장의 건축물은 보기만 해도 우람차고 위용이 있었다. 그 맞은편의 알데히드직장건축물은 외형상으로는 비교적 담담해보였으나 비날론생산의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안에서 앞으로 훌륭한 초산비닐과 메타놀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될것이다.

맹동섭비서동무는 문득 알데히드직장으로 뻗은 저쪽 배관옆에서 건설자들과 무엇인가 열심히 의견을 주고받고있는 한 청년을 가리켰다.

《저 동무가 우리 사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안병수동무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화학학부졸업생인데 그의 머리속에는 언제나 가치있는 술한 기술혁신안들이 번쩍이고있지요. 소설의 주인공감으로 될수도 있는 좋은 동무입니다. 소설가들은 아마 저런 사람들을 두고 훌륭한 원형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비서동무는 호인다운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대뜸 그 어떤 직업적인 호기심을 느끼며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캐어물었다.

《이번에도 저 동문 새로운 보온재를 연구해내서 순천비날론건설에 대단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사실 비날론공장이라고 하면 관과 보온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 사업소가 맡은 빙초산, 알데히드직장, 합성직장, 합성정류직장, 구내배관망에 들어가는 보온재의 량만 해도 수만립방메터나 됩니다. 안병수동무는 순천공업지구에서 나오는 무진장한 폐설물로 새로운 보온재를 연구해내여 이제는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게 되었지요. 그 보온재는 원가가 아주 적게 들뿐 아니라 원료가 풍부하고 시공하기 쉬운것으로 하여 200 일전투과제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서동무의 설명을 들으며 3대혁명소조원 안병수동무에게로 다가갔다.

보통키에 몸집이 다부지고 혈색이 좋은 그는 첫보기에는 그저 보통청년들과 별다른것이 없어보였다. 나이도 이제 스물여섯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류달리 꿈이 많고 환상이 자유분방하게 나래치

는 흥미있는 청년이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지금도 새로운 발명의 꿈이 열두가지나 들어있다고 한다.

그는 자기 발치의 돌을 집어들며 우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돌로 여기 건축물의 벽에 바를 외장재를 만들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무기물질로 외장재를 만든다면 깜짝 놀랄겁니다. 더무니없는 환상이라구요. 그러나 모든 발명의 시초는 결국 환상에서부터 시작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젊은 환상가에게 새로운 보온재를 어떻게 착상하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별로 얘기할만하게 못됩니다. 순천비날론건설장의 현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주체적 원료에 의거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을 발전시키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고 또 우리 당의 요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던 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폐설물을 보았을 때 그 어떤 예감이 번개처럼 머리를 치는게 아니겠습니까. 곧 가져와서 분석해보았지요. 나의 예감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현장에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에 제일 어려웠던것이 무엇인가고 묻자 그는 스스로없이 대답하였는데 그 대답은 참으로 천진하다고 생각되리만큼 간단명료한것이였다.

《어려운게 없었습니다. 사업소당위원회가 합심하고 적극 도와주었고... 해서 단번에 성공했지요. 한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실험전에 과학성을 백방으로 안받침했기때문에 실패할 우려조차도 없었습니다.》

(단 한번의 실패와 곤란도 없었다?... ) 우리는 의아해졌다. 여태껏 우리는 과학기술에서의 새로운 발명이나 연구과정에는 의례히 난관과 고심참담한 실패가 동반돼야 하는것으로 여기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문제성을 시사해주는 이야기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색과 환상, 탐구가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제로 지향되고 또한 거기에 높은 과학성이 담보될 때는 그야말로 단방에 목표를 명증할수도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맹동섭비서동무의 말에 의하면 합성직장과 알데히드직장, 제판직장의 매 기계설비들마다에는 이와 같이 사업소건설자들과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의 새로운 발기와 기술혁신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무수히 깃들어있다는것이였다. 아니, 단지 기술혁신단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구체적인 인간들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다.

맹동섭동무는 알데히드직장의 천정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트라스에도 하나의 인상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제판직장에 김명수라는 용접공이 있는데 그 동무가 자기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것이 바로 저 트라스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원에 갔다오라고 등을 떠밀어도 어디 말을 들어야지요. 그러던차에 중앙당의 한 일군이 저 동무의 안해의 말을 록음해가지고 왔습니다. 김명수동무의 안해가 남편에게 하는 부탁이 육성그대로 온 건설장에 올렸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고 뒤이어 자기는 산후휴가후에 과수분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고 당신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를 일떠세워 9월의 대축전장에 함께 들어서자는 절절한 부탁이었지요. 그때 트라스용접을 하고있던 김명수동무는 저 꼭대기에서 기쁨과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모든 건설자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그 동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맹동섭동무는 주위를 살펴보더니 마침내 어느 한곳을 가리켰다.

《참 저기 있군요. 저 철계단을 용접하고있는 동무입니다.》

우리는 김명수동무에게로 다가갔다. 취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생남을 축하하고싶었던것이다. 하여 우리는 용접면을 벗고 얼터름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의 물음에 그는 계면적은듯 뒤더수기를 썩 썩 곱었다.

《김찬일이라고 지었습니다.》

《명수동무의 직장사람들이 모두 달라붙어 광범한 대중토의에 붙이고 현상응모까지 조직했는데 종당엔 명수동무의 작업반세포비서가 지은 이름이 당선되었지요...》

맹동섭비서동무의 유쾌한 설명에 우리도 명량한 기분에 휩싸였다.

결국 명수동무의 첫 아들은 순천비날론건설자 모두의 뜨거운 축복속에 이 세상에 태어난것이다! 빛나는 날이라? ...뜻있는 이름이였다.

참으로 빛나고 아름답고 보다 행복한 래일에 살 우리의 후대들이 아닌가! 앞으로 순천비날론이 일떠서게 될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을것인가! ...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주체공업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며 일떠서게 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에 깃들어있는 이처럼 뜨거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속깊이 간직하며 건설장을 떠났다.

## 국기가 오른다

김일규

### 내가 가는곳에 조국이 있다

못사람들의 눈길앞에  
조선이란 위대한 이름으로 나서서  
내가 만약 승리하지 못한다면

나를 안아 키울적에  
응석도 나무라지 않은 어머니앞에서도  
용서를 빌수 없으리

허물없는 벗들앞에서도  
정깊은 애인앞에서도  
변명할수 없으리

나 하나의 존엄과  
수치가 갈라지는  
판가리결전장이라

총탄이 목깃을 스치는  
혈전의 전호가에서만  
조국이 수호되는것이라

대양을 건너 대륙을 넘어  
체육인, 내가 가는 그 어디에도  
조국은 함께 가거니

아, 한치의 땅을 두고  
생을 내대는 결사의 언덕에서 아끼지 않는  
피같은 땀만이 주는것이다, 승리는!

믿어주는 조국의 사랑을  
의지로 의리로 지니는 심장만이 받들수 있다  
조국의 존엄을!

넓지 않은 경기장에서의 나의 삶은  
언제나 인류의 눈길앞에서  
조국을 빛내이는 순간에 있다고

오, 심장아  
언제나 높뛰는 고동으로  
이 가슴 두드려다오, 흔들어다오.

### 《이기고 오너라》

어릴 때처럼  
집 떠나는 자식이 걱정되련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  
-이기고 오너라

만리 이국땅에서도  
이 말씀만은 쟁쟁히 들려오리  
운명의 숨결처럼  
내 심장에 흘러드는 이 목소리만은,

세계의 강자들과 겨루는  
힘겨운 경기라고  
내 만약 이기지 못한 얼굴로  
어머니앞에 나선다면

나이 들어 허리 굽었어도  
어머니는 또다시 가슴을 풀어헤치리

젖모금이 아니라 피까지 다 주어  
참다운 생을 주고싶어서

늘어나는 주름살 감추지 않고  
자식을 위해 여생을 머리 희는 어머니  
씨앗을 품은 대지처럼  
조국에 보탬할 열매를 위해 사는 어머니시여

사랑으로 그윽하고  
믿음의 온 세계가 깃든  
정다운 어머니의 눈빛앞에서  
내 무슨 할 말이 따로 있으리까

한 어머니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조국의 아들로 떠나는 이 시각  
그 한마디 당부를  
조국의 믿음으로 새겨안은 마음이어서

말없이  
말없이 떠난다고 탓하지 마시라  
사랑을 기울여 키워준 권리로  
이 아들을 지켜보시라

오로지  
오로지 이 아들이 해야 할 대답은  
세계의 하늘가에 퍼덕이는  
공화국기발이 해줄것이 아니외까

## 나는 벌써 승리자였다

인간의 리성도  
황금을 위해 있다는 《선수》였다  
짐승 피를 마시며 힘을 키웠다는  
사나이였다

생존을 위한  
악의 습관이 체육이라고  
장굴과 외진섬에서  
맹수들과 힘을 키웠다는  
사나이였다

돈이나  
실업이나  
경기의 결과만이  
삶을 결정한다는 딸라의 《노예》

몰락하는 사회의 수난자여  
경기를 앞둔 긴장한 순간에조차  
나에게 자본이 얼마인가 묻는  
불행아여

불쌍하구나  
돈에 우롱된 너의 넋이  
가련하구나  
너같은 목숨이 태어나는 그 사회제도가

쉽게도 걷어안고  
쉽게도 버리는 황금  
그 몇푼의 절거덩거리는 소리에  
꿈을 담고 마음을 담은 가련한 인생아

누구하나의 운명을 결정하자고  
경기를 한탄말인가  
알수 없으리  
너는 상상조차 할수 없으리

운명처럼  
의무처럼  
어머니 물려주던 젖줄기처럼  
나에게 한생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조국에 대하여

너에겐  
목숨을 건 황금만이 있다  
나에게는  
지켜 목숨도 아깝지 않을  
위대한 조국이 있나니

오, 대결의 그 순간  
나는 벌써 승리자였다

## 기발이 오른다

기발이 오른다  
아득한 창공높이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에 젖어  
세계의 눈빛이 조선을 우러른다

조국을 통채로 떠메고  
거인처럼 높이 일어서는듯  
인류의 경탄속에  
민족의 영예가 키쫓구는 순간이어

이 순간엔 태평양의 물결도  
물머리 쳐들며 환호하는듯  
울리브나무숲도  
정녕 진정할수 없는듯 설레어도  
누리를 가득 채우는 그 기폭 우러러  
이 마음만은 승엄해지누나

이런 영광속에 나를 받들어세워준  
내 조국의 위대함이 가슴가득 차오르고  
심장의 박동을 타고

조국으로 달려가는 마음이어

기발이 오른다

내 나서 뛰놀던 고향의 하늘가에  
하얀 연에 그려 띄우던 그 기발이  
명절이면 남던저 창가에 내걸던  
아름다운 꿈이 나래펼친 그 기발이

기발이 나뭇긴다

구만리 창공높이 조선이 솟아오른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식대로, 우리의 숨결을 안은  
주체의 기상이 나뭇긴다

기발이 오른다

그대의 공민된 삶이  
이어지는 순간을 타고  
국기가 오른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조국이어, 나의 조국이어!  
땀땀이 그대의 아들임을 자부하는 이런 때엔  
아, 이런 때엔 사나이 억센 가슴도  
몽클 젖는구나  
행복에 젖는구나

## 메 달

하늘에서 따온 별인듯

소중히 쓸어보고  
귀여운 첫 아기 웃는 얼굴인듯  
어머니는 살뜰히 가슴에도 안아보고

메달

이역의 하늘아래 땀땀이 가슴 펴고  
승리자의 긍지높이 이 아들이 받아안은  
첫 메달

늦은 밤 허물없이 찾아든

소꿉친구들의 축복속에  
노상 웃고있는 이 아들이 대견해  
어머니는 난생처음 잔도 비우고

한생 시름을 다 푼듯

십년은 젊어진듯  
온통 웃음인 얼굴로  
이웃에도 나들며

등에 업어 키우던 아기를

이제야 내려놓은 마음이라네  
조국 위해 첫걸음마 내디딘 자식 있어  
비로소 어머니라 말할수 있게 됐다시며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시고

달과 별과 속삭이는 어머니의 그 웃음  
아, 진정 나에겐  
그 웃음이 더 큰 메달이었네

## 달리자 젊음이어

달리자, 젊음이어

나에겐 래일이  
더 소중한 때가 아닌가

오늘에 달리여

래일도 나의 열정 셈ս게 하는  
래일도 달리는 경기장마다에서  
조국의 존엄을 떨치게 하는  
의지의 땀  
위훈의 땀을 뿌리며

내 이제는

지구를 몇십번 돌았다 해도  
얼마나 달려야 할지  
이미 기약한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칠줄 모르는 열정이

청춘이 아니냐  
지킬수 없는 젊음이  
조국을 받들자는 나의 심장이 아니냐

애젊은 청춘의 가슴으로

원쑤의 불구멍을 막아  
조국을 지킨 영웅전사의 발걸음처럼  
쓰러지면서도 피흘리면서도  
전사들 손에서 기발이 이어지던 그 순간처럼  
달리자, 젊음이어

내 차넣는 득점의 공들이

조국의 쌀독에 농민들이 가꾸려는

난알의 무게와 무엇이 다르랴  
조국의 궤도우에 정시로 내달리며  
이 땅에 재부를 실어나르는  
기관사의 기쁨과 무엇이 다르랴

달리자, 젊음이여

더 큰 승리는 앞에 있다  
체육인이 달리는곳에 뿌려지는것이  
어찌 땀이라  
조국을 빛내는 마음의 별들을  
이 세상 그 어디나 뿌리는것이여라

## 병사의 어머니들이여

정성환

어머니들이여  
군대나간 아들이  
이 순천에 와있거든  
자라날 때 속태운 일 있었다 해도  
감감 잊어버리시라

당신들의 아들이  
텔레비죤화면에  
언제 한번 비친적 없었다 해도  
구실을 못하는게라고  
정녕 섭섭해 마시라

그 어느 직장이 일떠섰다는 소식이  
그 어느 로에 불을 지켰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  
아시라, 어머니들이여  
아들이 보내는 축복의 인사인줄

이 공장들이 완공되면  
우리가 사는 모든곳에  
기름진 생활은 넘쳐흐르려니  
어머니들의 숨결과 체온이 깃든  
이 모든 세계는 얼마나 더 풍요해지리까

우리가 더 잘 입고나서자고  
우리가 더 부강해지자고  
용접면 뒤로 제끼고  
군복설에 튀여오른 불티를 눌러끄며  
새 용접봉을 갈아대던 그 젊은 병사들이  
연연 수십리에 펼친 대화학공업기지

보시라, 어머니들이여  
초연에 그슬린 군복자락을  
전승의 광장에 날리던 그때처럼,  
당신들의 아들이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그 이름 떨치는것을

이제 비날론 하얀 숨이 쏟아질 땐  
승리자의 가슴팍을 훈장으로 빛내이며  
아버이수령님께 삼가  
완공의 보고를 올리리다  
당신들이 안아키운  
자랑스런 아들들은

아, 무슨 말로 다 전해주라  
미제가 몰아오는 불구름앞에  
건설로 맞받아선  
이들의 성스러움을

어머니들이여  
위훈이 가장 빛나는곳엔  
아들이 서있기를 바라던 마음속에  
그저 이렇게만 간직하시라  
내 아들은 영웅  
내 아들은 창조자  
내 아들은 언제나 승리자라고

그러면 볼수 있으리다  
설사 당신들이 인적드문 산골서  
김을 매는 농군이라 하더라도  
조선녀인의 자격으로  
미제의 정수리를 짓누르고 선  
당당한 모습을

그러면 알수 있으리다  
총잡은 아들을 순천에 보낸  
당신들의 마음속엔 오직  
자랑만이 깃들 자리가 있다는것을  
공지만이 깃들 자리가 있다는것을



## 생활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정신

북변땅 철의 도시 청진에서 우리가 시인 주광남 동무를 찾아 창작실로 갔으나 그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가고 없었다.

우리는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인양 거세차게 소용돌이치는 용광로직장 현장에서 시인과 만날수 있었다.

구내길에 설치된 확성기에서는 격동적인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한차례의 쇠물을 부어낸 1 호로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창작은 말그대로 창조적인 사업이지요. 생활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가 없으며 주장이 없고 대담성이 없다면 독자들은 그렇게 씩여진 작품을 참다운 정신적 양식으로 받아들일수 없을겁니다.》

시인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시기 시인이 쓴 사색적이며 지력있는 읍조림과 열정적인 목소리가 담긴 시들이 생각되었다.

이 련합기업소에서 노동생활을 해왔고 시인으로 성장한 주광남동무가 지난 기간 창작한 대부분의 시들은 모두 련합기업소에 대한것들이었다.

시인으로 된 지금도 련합기업소에서 생활하면서 노동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 보탬을 주는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의 노력은 참으로 꾸준하였다.

우리의 머리속에는 이 제철지구의 아침에 대하여 노래한 한편의 시가 떠올랐다.

철의 수풀우에 해덩어리 등실  
붉은 해살 줄기줄기 퍼져내리는 때  
화답하듯 땅우에선 쇠물남비 덩실  
타오른다, 쇠물빛 불타는 노을

순간에 눈부셔지는 하늘과 땅  
창창 쏟아지는 저 해살과  
황황 솟구치는 저 쇠물빛  
한데 어우러지는 황홀경이어

《출선이다!》

그 누군가의 기쁨에 젖은 목소리  
출근걸음 멈춰 지켜보는 가슴에  
환희의 물결 일어서누나

...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한 시인에게서만 나올수 있는 생동한 시행들이었다.

우리는 저쪽켠에 있는 압연직장의 한 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쿵 쿵 하는 둔중하고 요란한 함마소리, 벌겋게 단 강이 로라를 타고 흘러나온다. 강을 집어던지는 야단스러운 집게, 민첩히 기계를 조종하는 압연공, 귀가 멍멍해왔다. 이어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뒤에서 우렁찬 함마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시인이려면 저 소리에서도 함마소리너머 래일의 조국이 마중오는 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인의 마음의 눈, 마음의 귀가 다른 사람들은 듣고 보지 못하는것까지 듣고 가려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는 우리 작가들에게 생활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정신이 가져다주는 선물일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대상의 내면의 미를 시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것은 풍부한 생활체험과 높은 사상예술적 소양에 기초하여 환기된 시인의 환상력이다.

그렇다. 현실을 진실로 체험하고 부단한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시인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시의 세계를 깨우쳐주는것이다.

현실체험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우리 시대 시인들은 현실을 혁신적인 안목, 개성적인 눈길로 투시하고 생활이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을 대담하게 제기하고 높은 형상기교로 노래하여야 한다. 얻게 되는 영광을 손끝의 재간으로서가 아니라 심장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실로 모든 시인들이 들고나오는 작품마다가 새롭고 참신해야 하며 생활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정신으로 일관되어야 할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작품들에는 도식과 류형, 모방에서 탈피되지 못한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 시인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머리를 끄덕였다.

이윽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몇줄만 읽어도 지루하고 따분하며 새로운것이 없어 읽을 맛이 없는 작품들이 더러 있지요.

진실하지 못하며 미화분식, 과장된 생활이 표현된 시가 부분적이기는 하나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 언제나 생활을 독창적인 안목으로 대하며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면서 창작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당이 요구하는 작품을 쓸수 있을 것이며 대건설행군으로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높은 시작품을 창작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누며 제철소 정문길로 향하였다. 여러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왁작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결을 지나간다. 교대시간이 가까와오자 공장으로 나오는것이였다.

《주동무 아닝가, 다른 작업장에 옮겨간 다음부터는 이따금씩 보게 되는군. 우리 작업장에 더러 놀러 오라구. 큰집에 자주 찾아와야 할게 아닝가 허허...》

그 노동자는 크게 웃으며 우리결을 지나갔다.

《내가 아직도 련합기업소에 있는가 해서 저렇게 말하지요. 공장이 하도 넓으니까...》 시인의 말이다.

우리는 또 한번 크게 감탄하였다.

이 련합기업소를 떠나 창작실로 옮긴지도 10여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주광남동무는 그렇지 않았다. 아직도 노동자들은 그가 련합기업소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줄로 생각하고있는 것이다.

성실히 땀흘리며 늘 노동자들과 함께 현실체험을 하는 그와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은 참으로 본받을만한것이였다.

우리는 확신하였다. 저렇게 현실생활체험을 하고있는 시인은 반드시 당이 요구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는 작품을 창작할것이라고...

본사기자

## 김철이여, 너처럼

김홍권

내 마음 비쳐보노라

김철이여

너의 그 이글거리는 쇠물에

그칠줄 모르는 열풍소리에

천톤을 뿔으라면 천톤을

만톤을 더 뿔으라면 만톤을

당의 부름을 곧 법으로 아는

불타는 신념의 산악

흔들릴줄 모르는 철의 피부리에,

판것은 쉬일수 없는 불물의 흐름

순결하고 깨끗한 그것에

내 살아온 한생

걸어온 길

하냥 뜨거이 비쳐보노라

김철이여, 너는

그 거세찬 숨결로 보여주지 않았더냐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엄엄한 존엄을

오직 제힘을 믿고 제손으로 쇠물을 녹여

강철로 당을 받드는 그런 강의한 의지를!

그리고 보여주지 않았더냐

무엇에 격노하고 무엇을 짓밟으며

무엇을 넘어서야 하는가를

어느때 웃으며

무엇을 열렬히 사랑해야 하는가를

네 만일

당의 뜻을 어겼다면

사람들 이렇게 비쳐보지 않았으리

기쁨도 슬픔도 한가슴에 안고와

불길에 마주서 쇠내를 마시며

강철의 의지를 배워가지 않았으리

오, 이 한 심장

용광로가 되고

혈관속 붉은피 쇠물로 끓어

너처럼 뜨거이 격류하자고

너처럼 뜨거이 당을 받들어가자고

김철이여, 내 비쳐보노라

당에 바친 충성의 신념으로 하여 더욱 뜨거운

너의 그 진실하고 가식없는 불길에.

## 삶의 링마루

정성숙

### 1

흐물흐물한 감탕속으로 몸은 자꾸 빠져들어간다.

기다란 미역줄기같은것이 손발을 칭칭 휘감아 놓는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수가 없다.

숨이 막혀왔다. 시커먼 안개가 그의 얼굴에 내려덮썩는다. 목을 조인다. 악!

정훈은 바로 그 순간 깨어났다.

그러자 눈앞을 가리웠던 검은 장막이 벗겨지고 막혔던 가슴이 후-하고 열렸다.

아! 꿈이었구나.

잔등에 식은땀이 축축이 내배였다.

아직도 심장이 후둑후둑 뒸다.

코를 찌르는 악취...

바로 그 변기의 냄새로 하여 자기가 누워있는곳이 일본 고베구치소의 한 감방임을 갑자기 깨달았다. 물을 먹고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공연한 생각임을 알고 쓴 웃음을 지으며 벽쪽으로 돌아누워버렸다.

어제밤도 불면증에 시달리다 겨우 어렴풋이 꿈잠이 들었는데 그것도 악몽속에서 해매다가 깨버리고만 것이었다.

다시는 잠들것 같지 않았다.

버짚을 넣은 고르롭지 못한 깔개가 자꾸 잔등을 찔렀다.

그는 어둠에 잠긴 천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꿈속의 피로움이 다시 생시로 옮겨왔는지 그 흐리멍텅한 기분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결코 정신의 우연한 변이현상은 아닐것이다.

부대를 탈출해서부터 끈덕지게 달라붙는 불안과 위구, 초조한 심리의 작용은 그의 마음의 탕개를 한껏 조여 약간만 다쳐도 탕 소리를 내며 끊어져버릴 악기의 줄처럼 되어버렸다.

문득 어린 시절 풀숲에 떨어진 새새끼를 주어가지고 늙은 느티나무에 올라갔던 때가 되살아났다.

높은 가지우에서 흔들리우며 맛보았던 그 아까 아까하고 위급하던 순간들과 떨어지면 엄마를 영영 볼수 없다는 공포감에 전율하던 일이 화면처럼 다시 펼쳐진다.

머리우에서 빙빙 돌며 애처롭게 우는 어미새만 아니었던들 그냥 내려가고말았을것이였다.

무진 애를 써서야 끝내 새끼를 등지에 넣어주고 다시 땅우에 내려섰을 때 다리맥이 탁 풀리어 팔씩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처음으로 땅이 그렇게도 좋다는것을 비로소 사무치게 깨닫지 않았던가.

열네살 그 나이엔 생명을 건 모험이 아닐수 없었던 일이 왜 구치소의 이 쓸쓸한 침상우에서 다시 상기되는지 까닭 모를 일이있지만련관의 법칙이 불러온 심리적 반사인가고 그는 허거픈 웃음을 짓고말았다.

또다시 잔등이 따끔거린다.

과연 이것으로 모든것이 끝난단말인가.

《자식아, 저게 너의 운명의 신이다.》

해상고등동창인 경식이는 부산항 제3호부두에서 닻을 내리우고 파철을 싣는 《한진3호》를 가리키며 말했었다.

정훈이 역시 군데군데 칠감이 벗겨진 사이로 녹물이 시뻘겅게 내배인 그 볼품없이 초라한 화물선이 자기를 미지의 세계로 실어다줄 운명의 《하얀 돛배》처럼 여겨졌었다.

그리고 칠칠야밤 천우의 도움으로 닻줄을 타고 배우로 올라 배수칸 한쪽 구석의 오물뒤주속에 숨어들어 사흘낮 사흘밤을 물 한모금, 밥 한덩이 먹지 못하고 풍랑 사나운 배길에서 시달릴대로 시달리면서도 앞날에 대한 애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자기 몸을 불태웠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에겐 네평방짜리 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자유밖에 차례진것이 없게 되였다.

무인도에 버려진 외로운 로빈슨.

정훈은 자기의 처지를 이런 비유로밖엔 표현할수가 없었다. 단 한줄기의 빛이라도 그리웠다.

그러나 이역의 철창은 너무도 높고 두터웠다.

《당신의 그 설명으로는 어떠한 정당한 론거도 세울수 없소.

당신이 우리 나라 출입국관리령법을 위반한 불법입국자라는 명백한 사실만을 알고있을뿐이요.》

인조논알을 박아넣은것 같은 검찰청 검사 니시다의 그 눈초리를 언제까지나 잊을것 같지 않았다.

그 눈과 한번 마주치기만 해도 등줄기로는 털벌레가 기여가는 축감이 들곤했으니까...

《나의 문제는 단지 거주권을 바꾸기 위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우기 나는 일본에서 살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정이 겪은 불행이 그 배경에 놓여있습니다. 나는 20년전에 부모와 생리별한 사람으로서 일본정부의 민주주의적 리념과 인권옹호의 원칙에 기대를 걸고 당신들의 방조로 나의 부모들이 계시는 북조선으로 가기 위하여 이 길을 떠난것입니다.》

니시다는 잠시 말이 없었다.

검찰청 동료들속에서 《두뇌파》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아직 리해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자기 의도를 더 잘 전달할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는 국민학교 훈도의 모습과 흡사하였다.

그는 한참만에야 폭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무엇인가 혼돈하고있소. 문제를 그런 식으로 고찰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자체모순에 빠지게 되오.

자가당착이란 말을 들어본 일이 있소? 만일 누구나 자기의 특수한 조건만 절대화한다면 우리의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소.

인도주의나 인권옹호는 그 다음문제요.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오.》

그러면서 니시다검사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국가는 너무나 크고 개인은 너무나 작소.》

정훈은 마치 틈새기가 하나도 없는 아찔한 절벽 앞에 다가선 기분이었다.

《우리 가정이 겪은 불행, 이 범상치 않은 말속에 담긴 사연을 나는 자신에 대한 동정의 간판으로는 써먹고싶지 않습니다만 그 불행이 인위적으로 강요된 원인에 의하여 빚어진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한 가정의 테두리에만 머물러있을 문제가 아니지요. ...》

정훈은 많은것을 이야기하고싶었다.

그러나 자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죄인의 의식에 관한 론문에 인용할 특수한 대상이라도 찾고있는지 모를 이 사나이가 과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얼마만한 의의를 부여할는지 알수 없었기에 그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가슴속에 맺히고 쌓인 그 모든것을 뽕뽕 쏟아놓기라도 했으면 한이 없을것 같았다.

그는 이 세상이 자기 집 뜨락과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인줄만 알고있을 나이에 어른들도 당하기겨운 아픔을 받아안고 몸부림쳤었다. 너무도 어려 그 아픔의 크기를 다 헤아릴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부모가 있는 고아였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와 헤어진것은 그들의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 당시 조선의 수많은 가정들과 혈육들이 이 너무나도 크나큰 재난앞에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민족의 비극이었다.

정훈은 지금도 레루우를 굴러가는 기차바퀴소리를 들으면 마음은 안정을 잃고 몸시도 뒤설레군하였다. 금속과 금속이 갈리는 그 아츠러운 소리는 마치도 단말마의 비명처럼 그의 가슴을 마구 허비여놓았고 한참동안 멎해지는 자신을 건잡을수 없게 하군하였다.

그날에 있었던 다른 모든것들은 20여년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희미해져도 창자를 울리며 덜컹덜컹거리는 기차의 동음소리는 슬픔과 눈물의 전주곡으로 그의 뇌리속에 꼭 들어박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정훈이가 어머니와 헤어지던 날은 별스레 날씨도 찌뿌둥한 이른 봄날 아침이었다.

그들은 역으로 가고있었다.

정훈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이가 아무리 어렸어도 이제 몇분후에 있게 될 그 일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웃고 떠들지 못했을것이다.

할머니는 어제밤에 시골은 참 좋은곳이라고, 뒤동산에 대나무가 우거지고 맛있는 감이며 향기로운 유자도 많다고 얼마나 구수하게 말씀하셨던가.

그는 그곳으로 빨리 가고싶었다. 조그만한 배낭까지 척 둘러멘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목을 랑손에 잡고 강충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굴에 걱정 의 빛을 띠우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가 다 시골로 가면 아버지면회는 누가 가나?》

어머니의 큰눈에 눈물이 펴 도는것을 보자 그는 아차하며 입술을 깨물고 어머니의 손목을 꼭 쥐었다.

할머니는 목메인 소리로 《너석두, 참 기록하지.》 하시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거장에는 커다란 짐들을 이고 진 사람들이 왁작 봄비고있었고 자기포래의 아이들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서있었다.

(이애들도 모두 시골로 놀러가는 모양이지. 시골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기두 하네. 거긴 정말 좋은가봐.)

정훈은 자기도 그런 좋은곳에 간다는 생각에 별로 어깨가 으쓱해지였다.

여섯살 철부지가 무엇을 알았으랴. 어제밤 자기  
가 잠든후에 자기의 옷과 내의며 장난감들을 배낭  
에 차곡차곡 넣으며 왜 어머니가 울었는지...

그의 아버지는 그때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  
이었다. 원래 아버지는 서울에서 교편을 잡고있었  
는데 해방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자 통일을 위  
한 투쟁에 나섰다가 체포되었던것이다.

정훈이는 아버지가 오래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  
자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디 갔는가고 자꾸 물어  
보곤하였다. 늘 얼굴에 웃음만 피던 어머니가 수심  
에 잠겨 이따금 몰래 눈물짓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어느날 어머니는 프락에서 물장난을 치고있는  
아들을 찾아 새옷을 입혀주고 머리도 곱게 빗겨주  
더니 어디론가 급히 데리고갔다.

그리고 창문도 없는 커다란 집으로 들어가는것  
이었다.

벌스레 가슴이 두근거리지고 긴장해지는데 어  
머니가 귀속말로 《정훈아, 이제 아버지 나오시면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인  
사해야 해.》 라고 당부하는것이였다.

《응.》

그는 대답하고나서 (그러니 여기가 아버지 계시  
는데로구나. 아버지는 왜 그런 무서운곳에 계시랴.  
집에는 왜 오시지 않고... 엄마가 자꾸 우는데...) 하  
는 의문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시커먼 옷을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 이상한 침대(들것)를 맞들고 들어섰다.

순간 정훈은 앓 하며 두손으로 눈을 가리웠다.

그 이상한 침대우에는 그렇게도 인자하던 아버  
지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지 않는가.

그와 어머니는 엎어질듯 아버지를 부둥켜안았  
다. 아버지의 눈에서도 번쩍이는것이 있었다.

자기들의 신상에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있다는  
예감에 속이 떨려나던 그때 일이 어른이 된 지금까  
지 잊혀지지 않는다.

며칠후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시였다.

형무소에 갔다온 할머니는 밤새도록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차가 왔다.

그것은 마치 살아 숨쉬는 짐승처럼 으르렁대기  
도 하며 씹씹거리기도 하고 푸푸 입김같은 하얀 연  
기도 내보내고있었다.

기차를 처음 타보는 정훈은 정말 마음이 동동  
뜨는것 같았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앞서 가던 그는 뒤를 돌아  
보며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빨리 타자.》

그런데 엄마가 자꾸 눈물만 흘리는것이 이상하  
였다.

별안간 기쁘던 마음이 깨진 항아리의 물처럼 싹  
짓아먹는것 같았다.

정훈은 엄마에게 가려고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  
다. 그러자 엄마가 간신히 웃으며 《정훈아, 어서  
타자. 엄마도 이제...》 하고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돌아서는것이였다.

정훈은 겁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시골도  
가고싶지 않았다.

아이들의 감성은 예민한 법이다. 이 리별이 앞  
으로의 수난의 첫시작이라는것을 본능의 직감으로  
느꼈는지는 몰라도 벌스레 발버둥치며 어머니와 멀  
어지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던것이다.

이날 정거장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이야기  
의 주인공들도 자기들이 이제는 서로 만나지 못할  
생리별의 한장면을 벌리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야속하게도 기차는 떠났다. 점점 속도를 내는  
기차의 바퀴소리는 어린 아들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삼켜버렸다.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슬픔  
에 잠긴 모습도 점점 작아지고있었다.

그렇게도 기다리는 어머니는 영영 오지 않았다.

그가 시골에 내려온지 얼마후, 하루는 낮모를  
사람들이 시골집에 달려들었다. 그놈들은 할머니와  
큰아버지를 마당에 불러내놓고 정훈의 아버지가 여  
기 오지 않았는가를 따지며 집안을 살살이 뒤지는  
것이였다.

헛물을 켜 놔들이 다 가버리자 모두들 무슨 큰  
일이 생겼나부다 하며 걱정이 다부룩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날밤 부랴부랴 서울로 올  
라갔다.

이틀후 눈이 쑥 꺼져들어가도록 피로에 지친 몸  
을 끌며 돌아온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형무소를 탈  
출하여 어머니를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을  
가지고왔다.

그해 여름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이 땅의 많은것을 형클어놓고 뒤바꾸어  
놓았다.

정훈의 가정 역시 그 동란의 시기에 엄청난 시  
련을 겪어야 하였다.

놈들은 거의 매일처럼 시골집에 달려들어 할머  
니에게 정치운동을 한 아들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먹였고 큰아버지까지 경찰서로 끌고갔다. 그래서  
할머니는 정훈을 뒤산 토굴에다 감추어두기까지 하  
였던것이다. 정훈은 캄캄한 굴속에서 너무도 무섭

고 서러워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 지쳐서 잠들곤 하였다.

어린 정훈의 눈에 옛말에 나오는 악귀처럼 비치던 놈들은 행패질을 하다못해 시골집에 불까지 질렀다.

원래 그 집은 정훈의 증조부가 수십년전에 지어 놓은 크고 훌륭한 집이었다. 전라도의 한다하는 선비였던 증조부는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는데 리조말기 할아버지가 《한일합병》 후 민족계몽을 벌리고 큰아버지 역시 청년시절부터 무슨 운동을 한다고 상해요 만주요 나돌아다녀서 가산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것이 집과 얼마 안되는 땅밖에 없었다.

재만 남은 집터에 말없이 서있는 허리굽은 할머니와 철모르는 손자. 서산마루를 넘어가는 해별만이 채무지우에 그들의 긴 그림자를 던지고있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큰아버지가 병든 몸을 끌고 돌아왔다.

불탄 집터에 다시 자그마한 집을 지었고 병들었던 마음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정훈의 부모들은 여전히 중무소식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그의 부모들이 이북에 가있다는것이였다.

정훈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영영 아버지 어머니와 만날수 없다는 절망감에 가슴이 미어질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음을 알아차리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철이 든때문인지...

이 모든것을 니시다에게 털어놓을수 있단말인가?

남달리 불우했던 그의 인생의 허다한 낮과 밤들은 그에게 사람을 정확히 가려보는 눈을 주었다. 니시다와 자기와의 사이에는 서로 넘을수 없는 장벽이 있음을 그는 그 눈으로 푹푹히 보고있었다.

그러나 니시다가 진정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한다는 법정신의 소유자라면 결코 그 모든것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정훈은 믿고있었다.

더우기 자신을 엄격하고 공정한 법관으로 자처하고있다면 그는 응당 자기가 심판하러는 행동의 형태와 크기뿐아니라 그것의 도덕적인 평가까지 함께 내려야 할것이였다.

판결의 마치를 손에 권자들이여! 심사숙고해달라. 이것은 법관이기전에 인간인 당신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다.

정훈은 이렇게 호소하고싶었다.

감방문밖에서 뚜격거리던 간수의 구두발소리도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고베항쪽에서 긴 여운을 끌으며 배고동소리가 울려왔다. 아마도 날이 밝은 모양이였다,

## 2

세상에 저렇게 외형과 직업이 하나로 융합된 인간은 드물것이라고 정훈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니시다를 바라보며 생각하고있었다.

그것이 그의 천성에서 오는것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 종사한 직업이 그에게 가져다준것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어쨌든 가면을 쓴것 같은 무표정한 얼굴과 외과의사의 손과 같은 선이 예리하고 피줄이 파랗게 내비치는 손, 상대방의 속을 후벼낼것만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저 사나이가 검사라는 직업이 없었더라면 과연 무엇을 할수 있었겠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이것은 니시다와의 세번째 대면이였다.

《우리 나라가 법치국이라는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오. 동기와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법의 판결은 나타난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거요. 당신은 우리 일본의 법을 어겼소. 때문에 당신에 대한 처리는 해당한 법조항에 의해서만 좌우될거요.》

어느새 국민학교 훈도의 여유작작하던 모습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고 목소리에도 쨍쨍하는 쇠소리가 섞여나왔다.

《검사선생, 나는 법도 마땅히 정의와 진리라는 개념과 대립되어있지 않다고 믿고있습니다.》

《허. 그러니 당신이 한 행동이 그 정의와 진리의 범주에 속한다는거요? 당신이 법정대학 2년중퇴생이라는것을 내가 잊고있었나보요.

그러나 정의와 진리란 언제나 상대적이며 힘에 의해서 부단히 변화한다는것을 명심하시오.》

니시다의 말을 들으며 정훈은 자기가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첫순간부터 미심쩍었던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였다.

신기루란 사막에만 있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였다.

그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여기 이 나라에서도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찬 현실을 가리우며 현란한 위선의 빛을 뿌리고있지 않는가! 체포되던 날 고베항에서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고 목이 터지게 호소하던 자기의 목소리가 귀전을 치는것이였다.

《자유는 천부인권이거늘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될수 없고 또 빼앗길수도 없으며 뺏을수도 없는것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 자유를 유린당하며 저는 암흑의 세상에서 20여년간의 인생행로를 걸어왔습니다.

당신들이여!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저는 했습니다. 그것이 헛된 꿈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

십시오. 부모님이 계시는 이북으로 저를 보내주시시오.》

...

저런 인간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기대를 가졌던 자신이 너무도 어리석었다. 그는 자기가 할바를 알아차렸다. 몸이 점차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흥분에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검사선생, 만일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리유로 정신적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고 사회인으로서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았다면 당신 자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진리가 상대적일까요?!》

니시다의 인조노알은 거품을 뱉고 번뜩했다.

《검사는 피예심자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지만 나는 기꺼이 그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평등할수 없소.

구체적으로 인간은 약점과 우점을 다 동반하고 있소.

보다 많은 약점을 가진자가 불행한 법이요. 그 책임을 사회에다 미는것은 무리한짓이지.》

인간의 약점?!

그러면 나에게 들쭉워진 모든것이 나 자신의 인간적 약점의 필연적 산물이란말인가?

아니다 !! 니시다 !

나는 모든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수 없다. 무자비한 발굽으로 나의 육체와 정신을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던 그 치욕의 순간들을 어떻게 잊어버릴수가 있겠는가. 넘어온 가지가지의 피눈물나는 추억의 세부들이 자아내는 그 뼈저린 아픔에 정훈의 얼굴은 무섭게 이그러졌다.

이런 경우 예상치 않던 일도 벌어질수 있다는 직감에 니시다는 호출단추를 누르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정훈은 뚫어오르던 마음을 가라앉히며 잃으려던 리성을 되찾았다.

안심하라! 니시다. 네가 결코 처음은 아니다. 언제인가 나에게 너처럼 그 모든것을 숙명으로 감수하라고 강요하던자가 있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먼 과거의 일.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그 졸업의 날이었다.

《자, 정훈이, 이 잔 마저 들게. 래일이면 우린 을종 2 등항해사야. 온 세상이 좁다 하게 돌아쳐보세. 돈도 많이 벌구... 제길할!》

부산태생의 락천가 경식이는 졸업파티에서 그에게 맥주잔을 권하며 하하 웃었다.

《고맙네. 자네의 행운을 비네.》

정훈이도 기뻐다. 3년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여온 보람이 있었다. 돈있는 자식들이 멀리해 부르는 《배놈의 학교》인 목포해상고등학교에서의 진땀나던 분투의 날도 래일이면 열매를 맺게 될것이다.

그가 어떻게 이날을 맞이했는지는 운동장 한쪽 구석의 늙은 뽕뿌라나무만이 알것이다. 만일 그 나무가 사람처럼 글을 쓸줄 안다면 정훈이가 자기에게 기대여 속삭이고 부르짖던 그 모든 말마디들을 모아 몇권의 책을 쓰고도 남았으리라.

졸업파티가 끝나자 정훈은 또 정다운 마음속 친구인 그 나무아래로 갔다.

가벼운 미풍에 살랑거리는 나무잎새들도 그의 졸업을 축하해주는듯했다. 꺼칠한 줄기에 등을 대고 머리를 드니 아득한 하늘 중천에서 유난히도 북두칠성이 반짝거렸다. 북두칠성, 언제나 그에게 힘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주던 희망의 별.

유정한 별빛은 정훈의 사색을 그 별과 함께 얹힌 흘러간 과거로 끌고갔다.

...정훈은 어머니가 이북에 가계신다는 소식을 들은후부터 그 별을 무심히 볼수 없었다. 국자처럼 생긴 일곱개의 별들은 매일밤 자리를 바꾸어가며 그만이 알수 있는 암호부호를 그리는듯하였고 깜박이는 별빛은 어머니의 눈빛인듯 하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는것 같기도 하였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도 정훈은 할머니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다 북두칠성을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소리소리 웨쳤었다.

《어머니, 정훈이도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만날 날을 두손모아 기다리겠습니다.》

정훈은 그날도 울고싶었지만 자기가 울면 할머니가 몹시 상심하시기에 입술을 악물고 애써 울음을 삼켰다. 별빛도 많은 사연을 나르며 다른 밤들보다 더 밝아진듯싶었다.

중학교를 졸업할무렵 아버지처럼 믿고있던 큰아버지가 큰 정치적 사건으로 또다시 옥중의 몸이 되었다. 진감이 다 된 할머니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를 못했다.

온밤을 지새우며 생각하던 끝에 정훈은 결연히 집을 떠나기로 했다. 주변마을과 군들을 돌아다니며 돈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면 꿈많은 소년의 마음에 그렇게 무정하지는 않으리라 싶었다.

이것을 아신 할머니는 아픈 몸을 겨우 일으켜 손주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정훈아,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 내 어떻게 해서든지 네 학비만은 꼭 구해보마.》

정훈은 불쌍한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쓸어만지며 간절히 말했다.

《아니예요, 할머니. 제가 이만큼 자라온것도 할머니덕분인데 큰아버지때문에 마음쓰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또 고생을 하지게 하겠나요. 이번엔 내 힘으로 학비를 마련할테니 두고보세요.》

할머니는 손자의 모습이 멀리 동구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울타리를 부여잡고 오래도록 서있었다.

석달후 정훈은 주머니에 때묻은 지전 몇장을 넣어가지고 맥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세상인심은 순진한 소년의 믿음처럼 그렇게 후한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온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부여잡았다.

《정훈아, 어서 이 돈으로 학교에 가거라. 내가 벌써 이렇게 해야 옳았을터인데…

너의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할머니의 작고 주름진 손에는 백로지에 싸고싼 돈이 쥐여져있었다. 그 돈은 마지막 땅뵈기를 판돈이었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같이 겪으며 그들 가문의 생명의 터전이었던 그 땅을 할머니는 손자를 위하여 서슴없이 팔았던 것이다.

정훈은 할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목메여 흐느끼는 손자의 등을 어루만지며 할머니도 소리없이 울고계셨다.

그때도 복두칠성은 그들의 머리위에 아낌없이 빛을 뿌려주었다.

...

태고적의 미래에 대한 그 무슨 계시를 받는 점성술사처럼 정훈은 별빛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나에게도 이제 새날이 올것이다. 배만 타면 나를 위해 것처럼 마음쓰시고 정성을 기울이신 할머니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드릴수 있고 복에 계신 어머니소식도 들을 날이 오겠지.)

밤이슬에 폭 젖은 뽕뿌라잎새들이 별빛아래 초물을 올린것처럼 번들거리고 어느새 안개가 소리없이 다가들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아침.

정훈은 아침밥도 되는대로 설치고 기숙사를 뛰쳐나갔다. 벌써 학교운동장에는 이번에 같이 졸업하는 동급학우들이 잔뜩 모여 웃고 떠들다가 그를 보고 손짓을 했다.

《정훈이, 늦었구나.》

어제밤 경식이의 말처럼 이제 몇시간만 지나면 항해사의 자격과 려권이 붙은 선원수첩이 차례질터인데 포부가 큰 젊은이들에게 만리창과를 가르치는 일도 팬찮은 직업이 아닐수 없었다. 이들의 똥똥 뜬 기분이 온 학교에 옮겨져 교사들중에서 제일 딱딱하고 엄격하기만 하던 수학교원이나 체육교원같은 사람들도 그날엔 표정이 무척 풀리고 이따금 부드럽게 웃기도 했다.

이윽고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교장이 졸업생들에게 훈시의 말을 하였다. 해마다 하는 판에 박은 소리라 그저 듣는듯마는등...

다음은 졸업생대표 최군이 답례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갈린 음성으로 대답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앞으로 나가자 나서기가 넘겨주는 졸업증서를 교장이 내주었다.

두손으로 공손히 받아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와 펼쳐본 순간 정훈은 가슴속이 뭉청 내려앉으며 싸늘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거기에는 항해사의 자격도 려권도 붙어있지 않고 단지 학업성적표만 적혀있지 않는가?! 거기에는 분명 무슨 착오가 있다.

정훈은 조바심이 나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교장실로 달려들어갔다.

《일이 그렇게 된것은 유감스러우나 그것은 착오가 아니요. 잘못은 학생에게 있소. 군은 1 년전에 시국강연에서 학생으로서 할수 없는 불온한 발언을 하여 경찰에게 구속된적이 있지 않소...》

그런 일이 있었다.

선거유세로 나왔던 정치인들의 시국강연회에 참가했던 정훈은 그들이 나라의 통일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한데 대하여 반박을 하고 연단에 뛰어들라 그러면 나처럼 부모와 갈라진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고 부르짖은 일이 있었다.

그러자 방청석이 어수선했지고 그는 경찰의 수갑을 차고 류치장신세까지 져야 했었다.

교장은 바로 그 일을 상기시키는것이다.

《...게다가 군의 부모들은 월북자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군의 출세에 가장 큰 약점이요. 외무부에서는 학생과 같은 사람에게 려권을 발급할수 없다는거요.

학교당국도 마찬가지요. 군과 같은 사람들을 3 년간 공부시킨것도 큰 용단이 아닐수 없었소. 모든것을 자기의 숙명으로 여기는수밖에...》

이때 정훈은 중학교에서 력사를 가르치던 지식구씨가 자기에게 하던 말이 피똥 떠올랐다.

앞으로 크거들랑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그의 말을 듣고 너의 포부는 여기서는 실현될수 없다. 너의 부모가 북조선에 가있기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저히 출세할수가 없다고 절절히 말하던 선생의 목소리가 오늘을 녀두에 두었던것처럼 들려오는 것이었다.

정훈은 분하고 억울하였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수 없는것이 더욱 안타까웠다. 아무리 해변에 나가 가슴을 헤쳐야 라는 마음은 꺼지지 않았다.

정훈은 또다시 자기의 나무를 찾았다.

찬서리에 제일 먼저 시드는 뽕뿌라나무라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우중충하였다.

그는 나무밑동에 기대여앉았다.

졸업식전날밤 여기를 찾았을 땐 그리도 정당게 설레이던 잎새들이 스산한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날아다니고있었다. 그것이 꼭 자기의 신세처럼 여겨져 더욱 기분이 우울해지는것이였다.



다음날 그는 목포를 떠나 방랑의 길에 올랐던 것이다.

...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 여기서 또 <인생철학>의 사이비적인 궤변을 들어야 하는가?

그러나 신경을 쓸것도 못되었다. 승냥이나 여우가 다같이 고기를 즐기는 족속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단지 하나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것이 다르다면 다른것이랄지.

그런데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는것은 저 니시다가 자기의 앞길에 나타난 매우 거치장스러운 하나의 큰 바위같은 장애임에는 틀림없다는것이였다.

그렇지만 저 니시라도 인형극장 조종사의 손바닥우에서 노는 극인형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며 저 뒤에는 더 무섭고 큰 힘이 작용하고있음이 분명하니 장래는 더 암담해지는것이였다.

《당신은 너무도 자기의 개인적인 측면에만 사로잡혀있소. 그런 편협한 견해로 사회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소.》

제법 회유조로 나오는 니시다의 말에 정훈은 가소로움을 참을수 없었다.

《천만에. 나의 행동을 결코 나개인에게 가해진 학대와 압제에 대한 반항으로만 보지 마시오. 나도 순탄한 학업을 마쳤다면 아마 당신과 동업자의 처지에 놓여있을수도 있었소.》

나 역시 모순에 찬 이남사회의 부조리를 조절해볼수 없을가 하여 법을 전공하려고 한 사람이요.

그러나 이것이 망상이였음을 나는 그 법정대학 2년간의 체험을 통하여 깨달았소.》

목포를 떠나 방랑의 길에 오른 정훈은 오늘은 여기, 래일은 저기, 동서남북 떠도는 방랑아-집시의 처지가 되였다.

노래도 불러보고 빈병장사와 구루마도 끌면서 전전공공하던 그는 지난날 아버지의 친구들도 찾아보았으나 그의 주위에는 끼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련한 자그마한 불꽃을 돋궂줄 한방울의 기름도, 한토막의 나무쪼각도 없었다.

사회는 속비틀어진 계모처럼 그에게 너무도 쌀쌀했던것이다.

그렇다 하여 그대로 쓰러질수는 없었다. 배우자. 오직 배움만이 나의 인간적 높이를 가늠하게 할것이다! 이것이 방랑생활 3년간에 얻은 신념이기도 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기만적인 삼권분립을 그대로 믿고있었다. 그래서 법이란 메스로 모순투성인 이남사회를 해부하고 고쳐 꿰매고싶었다.

또다시 몇년간을 악전고투하여 모은 돈으로 겨우 고학으로 서울 중앙대학 법정과에 적을 올렸다.

희망을 안고 교문을 들어선 정훈이에게 대학은 실망만 가져다주었다.

사법의 독립이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았고 아무리 교과서를 뒤적여도 헌법과 형법, 민법, 소송법 잡다한 이름은 많아도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오히려 최악을 두둔하고 장려하는 이남의 법체계는 진저리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웠다.

게다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란 극히 파썸화된 나라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무서운 악법으로 사회의 모든 진보적 경향과 세력을 질식시키고 말살하고있었다. 고이 자란 귀공자대학생이 아닌 정훈이가 이남대학의 특징인 학생운동에 무관심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짧은 2년간에 깊이 발을 잠그어보지는 못해도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차원에서 활약한것이 학교당국의 불안을 자아냈는지 단번에 그에게 요시찰 딱지가 붙었다.

어느날 그의 하숙집에 징집령장이 든 봉투가 날아들었다. 이리하여 그의 생활은 더욱더 암담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정훈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란 말이 자기가 겪은 《피뢰군》 생활을 묘사하는데는 그이상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여기였다. 그 가혹성이 자기를 이러한 적극적 행동으로 떠밀어준 동기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피뢰군》은 노예적 굴종과 비인간적 학대만이 유일한 언어로 통하는 악의 집약적 축소였다. 영화에서 본 오스벤 짐수용소의 《고행자》처럼 자기의 모든 인간적 감정이 강그리 사라져버리는것 같았다.

광주 31 사단훈련집합단의 선무하사의 교형리같은 잔혹성은 아직도 소름이 날 정도였다.

《지정훈! 이자식, 네가 징병기피했다는 대학생이야?! 국민의 기본임무도 지키지 않는놈!》

다섯놈의 내무반장들의 모두때에 들었다가 정신을 차린것이 막사안의 나무침대우에서였다.

온몸이 쭈시고 아팠다. 아니. 그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다. 고심참담하게 곁어온 생의 한발자국한발자국이 여기로 와 이렇게 누워있으려고 악전분투했는가싶었다.

다음순간 정훈은 입을 악물었다. 여기는 내가 살 땅이 아니다. 내 비록 여기서 나서자랐고 나의 고향이 있지만 이곳은 나의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다.

여기에는 나의 생명이 뿌리내릴 토양이 없고 나의 정신이 차지할 그 어떤 공간도 없는곳이다. 여기는 내 겨레,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쉴 한치의 틈도 없는곳이다. 내가 살곳은...내가 갈곳은...

이 땅에 생을 받아 스물다섯해.

아직 어디에선가 손자의 운명을 하늘에 빌며 안  
녕을 기원하고계실 할머니와 빛없는 감방에서 온갖  
불의가 란무하는 이남의 오늘을 적시하고있을 큰아  
버지가 있기에 마지막 미련이나마 남겨두었던 이  
땅.

그렇게도 삶을 부르며 찾으며 헤매인 그 세월,  
북받치는 설움에 방울져 흐른 눈물. 자기가 뿌린 그  
눈물에 젖은 이 땅은 조그마한 인정의 싹도 내밀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스러지고 말머는 오히려 일가분  
들에게 더 큰 고통과 비애를 가져다줄수밖에 없을  
것이였다.

월일인지 어머니와 헤어지던 어린시절의 정거  
장이 땅각의 고삭은 이끼를 벗기고 희미하던 룡곽  
을 뚜렷이 그리며 기억속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  
온다. 아, 어머니! 그렇다!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다,  
생활은 악전고투속에서 때로는 잊어버렸던 어머니  
에 대한 추억이 못건디게 심장을 잡아흔들었다. 나  
에게 남아있는 오직 하나의 성스러운것, 숭고한것,  
그 정거장 흠에서 점점 멀어져가던 눈물젖은 어머  
니의 모습...

어머니가 간 그곳에는 무엇이 있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버리고 그곳  
으로 위험과 사신을 넘으며 갔는가.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기에, 거기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보다도 더 큰것이 있단말인가?

북받치는 고통과 굶주림에 허덕일 때마다 안타  
깝게 대답을 찾던 나에게 생의 극한점에 이른 오늘  
에 와서야 삶과 죽음을 걸고 생활은 무엇을 가르치  
고있는가.

어머니가 가신곳, 나의 삶을 낳아준 어머니가  
계신곳, 그곳이 바로 생명이 재생할 희망의 땅이 아  
니겠는가. 나는 아직 그곳이 어떤곳인지 모른다. 그  
러나 귀중한 나의 어머니가 계신 그 땅엔 필연코  
성스러운 그 무엇이 있을것이다.

아! 마음속 깊은곳에서 통곡인가 오열인가 몸  
부림처럼 태동한다. 한가닥 빛을 향하여...

어머니품으로 가자!

그때로부터 정훈은 《휴전선》 근무만 기다렸다.  
그런데 그의 리력문건에 무슨 부록이 붙었는지 기  
회는 좀처럼 오지 않고 수송교육대로 배치되는것이  
였다.

그렇다고 주저않을 그가 아니였다. 어느날 중대  
장에게 2천원을 찢어주고 휴가를 받은 정훈은 병  
영을 나와 주저없이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것  
이다.

이제 정훈이에게 물리설곳은 없었다.

그런데 일본당국의 의도는 어떠한가. 자기의 사  
건을 이남당국과의 정치적 해결에 미끼로 삼으려는  
것 같다. 니시다가 바로 그것을 인정시키려는 목적  
에서 무진 애를 쓰고있지 않는가.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가로서 당신의 사건을  
경솔하게 처리하면 두 나라 관계에 여러가지 복잡  
한 문제가 제기될수 있소. 일본이라는 나라가 당신  
개인문제로 정치적 도박을 놓수는 없는것이요.

특히 북조선과는 아무런 국가관계도 없는 조건  
에서 당신의 요구를 실현시키기는 매우 어렵소. 당  
신의 대담성과 단순성에 탄복은 하지만 이런 경우  
강제송환밖에 다른것엔 기대를 걸지 마시오.》

얼마나 잔잔하고 침착한 목소린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아마 저자는 죽음도 저런 목소리로 구형할것이  
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나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나  
같은것이요. 채삼 강조하지만 나는 일본정부가 국  
제법상의 요구에 철저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오.  
일본법무성 관리인 당신에게 세계인권선언 제 14  
조 제 1 항의 <모든 사람은 박해로부터 타국에 보호  
를 요구할수 있으며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목을 상기시키는바요. 나는 다시한번 일본정부가  
나의 망명을 인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오.》

니시다는 답변을 회피하며 할말을 다했다는듯  
천천히 문건철을 덮어버렸다. ...

### 3

그를 감방에서 불러내지 않은지도 벌써 며칠이  
되였다.

시간은 자기의 흐름을 멈추고 정지된듯싶었다.  
사색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오직 생각하는것만이  
현재 자기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제한  
된 활동이였다.

요구한 변호사와의 면회도 목살되였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이다. 외부와 아무런 련계도 지  
어주지 않는것으로 보아 자기를 재판도 없이 비밀  
리에 남조선으로 이송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는것 같  
았다.

이제라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였  
다. 이 정적속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내재  
하고있었다.

검찰측에서 볼 때 공개적인 공판은 여러가지 문  
제를 야기시킬수 있고 사회적 여론도 무서울것이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믿고있는 사람이 그 어떤  
타분적 작용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할수 없을 때

의 고충은 보다 큰것이다. 혹 탈출할 기회는 없겠는지.

그러나 생면부지의 이 일본땅에서 탈출한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극단한 경우 죽음으로 항거하려는 최후의 각오를 다지었으나 철저한 감시에 둘러싸인 조건에서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육체와 정신이 시시각각으로 쇠약해짐을 느끼었다.

...

(드디어 왔구나)

그는 수갑이 채워진 자기의 팔목을 내려다보며 입속말로 부르짖었다.

한밤중에 심문은 아닐것이다. 두명의 간수가 여느때와는 달리 좌우에 딱 붙어섰다. 말 한마디 없이 눈짓과 손짓으로 잡아끌며 등을 미는것이 도살장의 백정들처럼 여겨졌다.

흐릿한 전등불아래 길게 뻗은 복도가 그 무슨 심연처럼 끝없이 깊어보였다.

그는 자기의 몸이 그 음침한 속으로 통채로 팔려들어가는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듯 아무런 의식도 느낄수 없었다. 이 모든것이 현실인지 망각속의 환영인지 도무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문밖으로 끌려나와서야 그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몇달전 항구에서 자기를 여기 구치소까지 실어온 검은 수인차를 알아보았던것이다.

...

아직은 강렬한 정신적 감동을 채는 계기는 없다. 단지 높뛰는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만 그것을 가늠할수 있을뿐이다. 벌써 몇시간이 지났건만 정훈은 좀처럼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 격동적인 순간들이 떠오르면 그의 심장은 새로운 피를 받은듯 또다시 심박을 쿵쿵 울리는것이였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살아 숨쉬는 한 영원히 그 순간들을 잊을수 없을것이다.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온 수인차가 갑자기 멎어설 때까지 정훈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있었다.

이때 난데없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더니 반가운 조선말웨침이 들려왔다.

그는 깜짝 놀랐다.

《지정훈청년을 남조선으로 보내지 말라!》

《일본정부의 비렬한 행위를 규탄한다!》

《정훈아, 너에겐 진정한 조국이 있다. 조선사람의 기개를 떨치며 용감히 싸우라!》

순간 그 무엇인가 거대한것이 밀려와 정훈의 가슴을 《황》 때리는것이였다. 너무도 벅차고 충격적인 그 자극에 숨이 차올랐다. 캄캄한 밤에 이 차

를 막아선 저이들은 누구인가? 나에게 조국이 있나니?! ...

정훈은 그들에게로 뛰여가고싶었다. 그는 자기를 틀어잡은 호송원들을 뿌리치고 별떡 일어섰다. 그리고 수갑에 채워진 두손으로 차창살을 마구 흔들었다. 소리치고싶었다. 그러나 거센 소리만 새어나올뿐이였다.

한참만에야 정훈은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수인복 앞자락이 폭 젖을 때까지 눈물을 멈출수 없었다.

오래동안 형형색색의 죄인들을 다루며 범죄에 감염되어온 메마른 간수들도 이때만은 폭발하는 격정의 어마어마한 광경에 위압되어 아래만 묵묵히 내려다보면서 숨소리 하나 없이 차안에 앉아있었다. 드디어 차는 슬금슬금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며칠후 첫 면회자들이 왔다. 그들은 총련 효고현 지부일군들과 고베현변호사회 주임변호사 기다야마 로꾸로였다.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렸던 정훈의 마음에 평온과 안정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 쥐여진 새하얀 몇장의 종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정훈아.

정녕 너란말이나? 우리 서로 헤어진지 20여년간 꿈에도 잊은적 없던 너의 이름 나의 귀전을 치니 정녕 내 아들 정훈이가 뽕단말이나.

뿔밖에도 방송에서 너의 이름 석자 들었을 때 정말 내 아들 정훈이가 뽕은가 아니면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인가 알길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가 신문에 난 너의 모습 보게 되었으니 어머니 가슴피에 젖는듯하구나.

아! 나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목놓아 울던 너의 모습 향시 잊지 못해 이 가슴에 안고 살아왔는데 어찌 너는 쇠사슬에 묶이운채 이 어미앞에 나타났느냐. 정훈아-》

어머니의 편지를 받쳐든 정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앞을 가려 더는 읽을수 없었다.

정훈은 금시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모습이 아득히 흘러간 세월의 년륜을 무시하고 그날의 모습으로 자기앞에 서세시는듯하였다.

령령한 인정에 몸이 열고 그 몸을 덥힐 모닥불 한점 없어 서러울 때마다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부르던 어머니.

기다림에 지친 날과 날들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정훈의 눈앞에 다가드는듯싶었다.

《... 나의 아들이.

우리 집은 아직 네가 철이 없을 그때부터 우리의 친혈육들을 짓밟아버리려고 덤벼드는 원수들때문에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갈수록 정훈은 자기의 기구한 인생의 시작이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밝혀지는것을 느꼈다.

《우리가 너를 고향의 할머니술하에 남겨둔채 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 멀리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죽지 말고 살아있어다오. 그러면 반드시 만날 날이 있을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빌던 어미의 가슴아프던 일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물며 짐승들도 새끼와 떨어질 때 못내 슬퍼하고 지어 눈물까지 흘리거늘 나라를 동강낸 미국놈들때문에 원한의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생사조차 알길 없이 지내온 그 쓰리고 아픈 심정 무슨 말로 다 하소하겠느냐-》정훈은 눈을 감았다.

자기가 그리움에 젖은 눈길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볼 때 그 별아래 계시는 어머니 역시 애달픔을 달랠길 없어 몇천밤을 뜬눈으로 새웠음을 구절구절 피눈물이 고여있는듯한 편지의 글줄마다에서 력력히 찾을수 있었다.

그의 손에 쥐여진것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16절규격의 매끈한 흰종이가 아니었다. 기나긴 세월 자식과 생리별한 상실의 아픔이 엉키고 엉킨 어머니의 쓰라린 마음의 고백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탄과 비애의 하소연만은 아니었다. 거기에서 정훈은 모든것을 꿰뚫어 이겨낸 어머니의 강毅한 의지를 엿볼수 있었고 자기 부모들의 복행길이 막다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찾기 위한 피신의 길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으로 찾은 참다운 인생의 길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자기도 역시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간에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들어섰다는 확신을 굳게 다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비록 높은 이상과 심원한 사상에 토대한 자각적 인간의 영웅적 행위는 아닐지라도 웅바르게 살려는 고결한 지향과 피와 피가 섞이려는 막을수 없는 열망의 힘에 의하여 단행한 행동이었다는것이 더욱 뚜렷해지는것이였다.

정훈의 마음은 편지의 글줄을 따라 계속 승화되고있었다.

《정훈아.

나는 네가 그 암흑의 땅에서도 굴하지 않고 억세게 자라 정의와 진리를 사랑할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으로 된것이 기쁘기 그지없다. 지금 나의 가슴은 이에 대한 자량으로 짝 차있다.

정훈아. 너는 결코 외롭지 않다. 너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조국이 있다.

그리고 60 만재일동포들이 너를 지켜주고있다. 굴하지 말고 용감히 싸우거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어서 내 품으로 와 안기거라-》

어머니의 편지는 끝났다.

정훈은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세상에는 감개무량이란 말이 있다.

헤아릴수 없는 벽찬 심정,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기쁨, 가슴속에 차고넘치는 감격, 바라고바라던 숙망이 달성된 때의 환희-이 모든것을 단마디로 함축한 말이라.

지금 정훈은 많은것을 알게 되었다.

총련 효고현지부위원장과 변호사는 면회는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외무성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한 항의를 들이대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려는 정훈의 소원대로 그를 공화국으로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모든것은 참으로 꿈같은 사실들이였다.

효고현을 비롯한 일본의 전국각지들에서는 전체 재일동포들과 수많은 일본인사들이 정훈을 구출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광범히 벌리고있었다.

거리들에는 지정훈청년을 석방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남녀로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고 각 현마다에 《지정훈청년을 지키는 회》가 조직되었으며 수십명의 변호단이 무어져 정훈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정훈은 망망대해우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구원의 등대불을 발견한것 같은 심정이였다. 길가의 조약돌처럼 발길에 채우고 버림에 시달려오던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사변이 일어났다는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자기를 비밀리에 남조선으로 빼돌리려는 놈들의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수백명동포들이 매일밤 여기 구치소주변을 지키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의 그의 벽찬 심정은 너무도 큰것이였다.

정훈은 자기에게 미친 그 손길에 깃든 높은 뜻을 아직 다는 리해할수 없었지만 그것이 한갓 불행에 빠진 한 청년의 운명을 동정한 자비와 박애주의의 발현이 아니며 그것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숭고한 그 무엇이 깃들어 있다는 크나큰 진리를 한가슴에 받아안게 되었던것이다.

그것은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는 의식의 최고정화로 여겨지였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정훈에게 억울한 형벌을 들썩우기 위한 부당한 공판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공판은 12 차에 걸쳐 계속 진행되었다.

(소화 45 년 12 월 16 일 고베-마이니찌.

미야다특파원)

고베지방법원.

전한륙군사병 지정훈에 대한 12 차 공판 진행.

지청년의 최후 진술.

《재판관. 배심원제씨들 ! 방청석의 법무성 관리 여러분 !

무엇때문에 내가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매일, 매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으나 납득할만한 대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찾지 못한것이 내가 일본의 법을 잘 몰랐기때문입니까 !

물론 나는 일본의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건 관계없이 법은 마땅히 정의의 편에 서야 하며 죄없는 사람에게 그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해서는 안된다는것만은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인 동시에 참으로 당신들이 법의 파수병이라면 당신들 자신의 원칙으로도 되여야 할것입니다.

더우기 일본은 세계의 면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로운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나라>라고 자처하고있으며 당신들의 법은 아무런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권선징악의 립장에 선 가장 공정한 <만민평등의 법>이라고 요란스레 떠들고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째서 이번 경우에는 당신들의 그 <정치적 리념>이 적용되지 않는지 그 리유를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녀불처럼 외우는 그 모든 말들이 이 세상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하였단말입니까 ! 당신들이 자랑하던 <인도주의>는 어데로 갔습니까.

물론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취한 극히 비인도주의적 처사가 도쿄와 서울간의 정치적 결탁에 의한 산물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동적인 사고와 창조적 행동이 결핍된 무뎡한 존재라 할지라도 과연 내가 당신들의 나라에 온것이 무엇때문인지 모른단말입니까. 당신들이 죄인의 락인을 찍기 위하여 법정에 세워놓은 나는 ! ... 20 년전 피눈물을 흘리며 생리별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저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 부득이 당신들의 나라로 온것입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출입국관리령법 위반>으로 몰아 나를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이남으로 강제송환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나는 죽는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이 위험천만한 길에 나서지부터 않았을것입니다.

물론 이남은 내가 나서자란 고향과 조상대대의 뼈가 묻혀있는곳이고 방황과 슬픔에 시달리던 사연 많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떠나는것이 결코 나에게서 혈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이 길로 추동한것을 그 어떤 안락한 생활에 대한 동경심이나 나개인에게 들썩워진 그 모든 불행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으로 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들속에 지성적 판단이 조금이라도 선 사람이 있다면 공정하고도 예리한 눈을 가지고 내가 떠나온 저 이남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인간의 존엄이 극심하게 유린되고있는 암흑화한 세상, 빛이 없고 굶이 없는 인간생지옥, 초보적인 인권과 자유란 찾을래야 찾을수 없고 민족의 얼이란 그림자도 없는 저 사회를 버린 나의 행동을 의로운 거사로 긍정할것입니다.

더우기 나는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복에 계시는 어머니의 가슴에 총뿌리를 돌릴것을 강요당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 저주로운 총검을 던져버리고 치욕스러운 군살이를 뒤흔쳐나온것이 죄란말입니까 ! ...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목놓아 우시던 어머니의 울부짖음소리가 쟁쟁히 들리는듯합니다.

당신들이 법관이기전에 어머니를 가진 인간이라면 마땅히 나에게가 아니라 인륜철리를 모독한 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할것이며 진정한 법의 사도들로서 법의 존엄을 지키려거든 한피줄을 이은 혈육들을 동족상쟁으로 내몰고있는 저 미국놈들과 이남당국자들에게 형벌을 들썩워야 할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법률이전의 문제입니다.

법정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여 !

여기에 만약 부모와 자식간의 20 년간의 생리별을 강요한자들을 증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보십시오! 여기에 만약 혈맥의 줄기를 끊을수 있다고 단정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보십시오. 여기에 만약 부모의 깊고 따뜻한 정과 사랑을 잊은 사람이 있거든 말씀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생을 이어받은 사람치고 부모의 깊고 따뜻한 사랑과 정을 잊은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찾아 아빠닌 산줄기에서 안데스산줄기까지 수십만리를 걸은 마르코소년에 대한 소설을 읽었을것입니다.

마르코소년이 어머니를 찾아 헤맬 때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걷기도 하고 동정도 하고 슬픔에 눈물도 흘렸으리라고 봅니다.

소설의 마르코도 것처럼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을진대 어머니사랑을 되찾으려는 여기 살아있는 이 아들의 소망은 이루어질수 없단말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어머니가 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나를 공화국으로 보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사실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생명의 뿌리, 혈맥의 줄기를 찾기 위하여 이 길을 떠났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찾는것,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것, 이것은 진정한 삶을 찾게 위한 생명의 줄기찬 흐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이 흐름을 막을수는 없을것입니다.

나는 얼마전 이역의 캄캄한 감방안에서 오매에도 그리던 어머니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어둡던 나의 운명에 새로운 광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나의 가슴은 조국이란 무엇이며 그 품속에 안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체험한 긍지로 가득차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벌써 조국의 품에 안긴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어머니를 찾아 떠난 이 운명의 길에서 나는 나의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조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한없이 자애로운 품이 이 아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있습니다. ...》 (본사로 전송)

침묵, 침묵...

높아가는 숨소리만이, 그 무언의 침묵이 정훈의 승리에 대한 부인할수 없는 진실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주고있었다.

드디어 정훈의 두손목을 조이던 족쇄가 스프링 풀려나는 력사의 순간이 왔다. 한 인간의 정직한 량심이, 깨끗한 삶이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령마루에 올라선것이다.

정훈의 절절한 념원을 집요하게 꺾으려던 원수들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면전에서 피고석으로 나동그라졌다. 일본당국은 자기들이 처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그의 요구를 듣지 않을수 없었다.

재판장의 육중한 출입문이 좌우로 활짝 열려졌다.

순간 복도의 창문들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발이 정훈의 발앞에 령롱한 칠색의 《주단》을 펼쳐놓는듯싶었다.

정훈은 눈을 한껏 쏘프렸다. 그리고 서슴없이 그 《주단》우에 발을 내짚었다.

기자들이 정훈의 앞을 에워쌌다.

재판소 앞마당에서는 수많은 동포들이 손에손에 공화국기를 들고 최종공판에서 승리한 정훈을 환호하고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기쁨과 자랑에 넘친 그리고 뜨거운 동포애가 어린 굵은 물줄기가 흐르고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우에는 붉은 글발이 새겨진 하얀 프랑카드들이 살아 움직이듯 펄럭이고있었다.

순간 정훈은 소생의 그밤에 느꼈던 감격이 또다시 확 사무쳐올랐다.

정훈은 호송간수들을 뿌리치고 창문가로 달려갔다. 프랑카드의 글발들이 그의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정훈아, 너는 외롭지 않다. 너에게는 어머니조국이 있다!》

《정훈청년이며, 김일성원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정훈의 두눈에서 번쩍이는것이 지나갔다.

정훈은 갑자기 자기의 정력이 천백배로 불어나는 숨막힐듯한 환희와 함께 온몸이 노그라들듯한 행복에 휩싸이였다.

(아! 나는 불운아가 아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견줄수 없는 행운아로구나! ...)

그는 온 세계를 향하여 자기가 느낀 심정을 토로하고싶었다. 저 하늘에 새겨놓고싶었다.

정훈은 두주먹으로 재판소의 창유리를 힘껏 쳤다. 유리가 깨지는 아츠러운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이 공중으로 휘뿌러지며 사방에 떨어졌다.

상반신을 창밖으로 내민 정훈은 두손을 높이 쳐들고 감격에 목메이며 부르짖었다.

《위대한 어머니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수천명의 동포들이 공화국기를 흔들며 정훈이와 목소리를 합쳤다.

간수들은 기가 질려 달려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정훈은 인간의 가장 높은 행복의 절정에서 꿈에도 그리운 어머니품을 향해, 조국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짚었다.

## 기쁨 외 1편

허수산

이 땅에선  
태어나는 모든 기쁨  
나와 인연이 없는것  
없구나

매일아침  
찬이슬을 헤치며  
두렁길을 걷는 분조장이여  
그대 조금이라도 낯알을 더 거둬들였을 때  
그대처럼 기쁜 이 마음이고

찍 벌어진 군복가슴에  
금빛훈장 달고  
모교를 찾아온 제자앞에서  
그대의 어머니보다  
더 긍지높은 이 심정이어라

신문에서 잡지들에서  
좋은 글 한편 읽고도  
내 제자가 쓴 글이라고  
어디 가나 자랑하며 기뻐하는  
이내 심정이어

아, 어찌하여서이라  
자신보다

제자들의 기쁨에서  
한생의 보람을 찾는 나의 삶이어

사랑하는 어머니  
아들이 공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  
자식보다 더 기뻐함이  
어디에 있었던가

아, 손끝에 물마를새 없이 자식을 키웠기에  
그렇다  
교육자  
나도 술한 제자들을 키우며  
어머니처럼 진정을 쏟았을 때  
어머니처럼 사랑을 다 주었을 때

어머니처럼  
그대들의 성공을 기뻐할  
권리가 있노라  
행복이 있노라

세상에 기쁨이 있다 한들  
뜨거운 정성을 기울여  
후대들을 키운 사랑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랴  
그것으로 이 마음 그 언제나 명절이더라

## 한그루 나무라도

태어났다 하여  
고향이라  
나서 자랐다 하여  
조국이던가

저 푸른 하늘가에  
숲처럼 일어난 은빛지붕들  
벌가득 설레이는 금나락이  
내 살점처럼 간직되지 않을 때

지나가는 바쁜 걸음이라도  
넘어진 한포기 강냉이모  
다시 세워 북 돌아주고가는  
그런 마음 없을 때

그 어찌  
그대에게 나에게  
고향이  
조국이 깃들었다 하라

땀을 바치라  
성실하고 뜨거운 땀  
붉고 진한  
피를 바치라  
저 높아가는 층층 높은 건물에  
뻗어가는 두줄기 궤도밑에

자기의 땀방울 스몄을 때  
그대는 가슴아파하리라  
밝은 유리창 금 하나 가도

눈뜩에서 가는 물 새어나와도

심장을 바치지 않고  
땀을 들이지 않았을 때  
이 땅의 모든것은  
제 한몸처럼 간직하지 못하리

아이들의 놀이터에  
그네 하나 매주지 못한 삶  
푸르러가는 산밭에  
재목이 될만한  
나무 한그루 심지 못한 삶이라면  
분발하라

부끄럽게 한생을 총화짓지 말고

아, 어찌  
태어났다 하여  
고향이라  
나서 자랐다 하여  
조국이라

그대와 나  
사랑하는 조국과  
피줄로 이어졌을 때  
어머니조국은  
우리를 참된 인민으로 안아주리

## 점 검 시 간

### 한철흡

밤,  
벽시계가 열점을 칠무렵이면  
내 마음 저절로 달려간다  
옛 중대의 점검대렬에  
조국앞에 병사의 하루를 총화짓던  
그 대렬에 말없이 자기를 세워본다

어디에 있는가  
락동강 모래밭에 묻고온 영웅사수의 이름을  
울먹이며 대답하던 분대장동무여  
점검대오의 마갑에 울리던  
애어린 목청의 주인 교수머리 병사여

비내리는 삼남의 황토벌에  
군화자욱 남기고  
1211 고지 전호에서 마라초를 나누며  
위훈의 길 함께 걷는 전우들아

세월이 흘렀으니  
석침해졌으리, 행행하던 그 목소리  
돌보기가 없었으리, 별갈던 그 눈우에  
흰서리 내렸으리, 그날의 검은 머리에

구령으로 헤쳐졌다 구령으로 모이는  
병사생활에 젖은 마음들  
쉬이 한대오에서 다시 만날듯  
제대배낭 메고서 떠나들 왔건만

그 시절의 그 나이  
배를 넘기였어도  
모인적 없었구나  
우리 서로 소식조차 모르고있구나

생사를 같이한 목숨이여서

그리움은 이리도 절절하고  
청춘의 보람짓든 초소여서  
언제나 못잇는 그 대오인가

그날에 못다한 병사의 입무속에  
조국의 절반땅이 남아있어  
이룩하지 못한 통일이 있어  
병사로 살아가는 이 마음인가

오, 최고사령관동지 명령 한마디면  
불길이 되고  
우뢰가 되고  
산악이 되어 일떠서던 사람들

충성의 그 한길에  
심장을 둔 삶이기에  
손자손녀 거느린 나이되여도  
못잇는 대오구나, 병사시절이구나

그대들 이 시각에  
천길 막장에서 동발을 세우고있건  
만리 바다길에 조타를 잡고있건  
점검의 그 대오에 마음을 세워보리니

이제 구령만 내리면  
그날의 총 그대로 잡고  
그날의 령장 그대로 달고  
그날의 그 대오 그 구령따라  
한전호에 얹드릴 그 마음에 살려니

신호나팔은 울리지 않아도  
그날의 점검시간, 이무렵은  
옛 중대에 모이는 시간이구나  
우리 서로 만나는 시간이구나



## 작가의 문체

(제 9 회)

오영환

###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지금까지 소설가의 관찰력과 문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제부터는 시인의 관찰력과 문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설가와 마찬가지로 시인도 일생동안 남다른 관찰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묘사문장으로서의 소설문체와 주정토로 문장으로서의 시문체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있으나 달성하려는 표현적 질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즉 소설가나 시인이나 다같이 문장이 안고있는 깊은 뜻과 생동한 표상 그리고 높은 격조와 절절한 느낌을 개성적인 문체의 표현적 질로 삼는다.

이러한 표현적 질을 획득하는 길은 오직 남다른 관찰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만 열리게 된다.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는데서 시인에게는 소설가보다 수월한 길이 있는듯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편집자는 많은 작가들과 작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남다른 관찰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서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소설가들보다 지구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관찰자료》와 《어휘수첩》, 《명문장집》의 축적만 놓고보아도 소설가, 시인들간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차이는 곧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의 차이로, 인간과 그 생활을 파악한 폭과 깊이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설작품과 시작품의 부피에서 오는 차이로써도 합리화할수 없는 문제이며 묘사문학과 주정문학의 특성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는 문제이다.

창작을 필생의 업으로 삼는다는것은 바꾸어 말하면 남다른 관찰력을 키우는것을 필생의 업으로 삼는다는것과 같은것이다. 여기서는 소설가도 시인도 극작가도 예외로 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의 창작적재능도 결국 현실에 대한 다방면적이며 심도있고 폭넓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축적을 전제로 하는것입니다.》**

이 명제는 창작적 재능의 발생발전과정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작가의 창작적 재능은 생활에 대한 다방면적이며 심도있고 폭넓은 체험에서 발생하며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축적과정에서 발전한다.

그러므로 창작적 재능은 타고나는 숙명적인것이 아니라 뼈심에서 생겨나고 자라나는것이다.

남다른 관찰력 다시말하여 제 눈으로 보는 능력은 작가의 첫째가는 재능이다.

남과 구별되는 사유능력과 표현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재능은 체험과 지식, 숙련에서 생겨난다.

체험과 지식, 숙련에서 폭과 깊이를 가지면 가질수록 창작적 재능은 커진다.

그러면 제 눈으로 보는 능력이 시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 눈으로 보는 능력은 시작품에서 명문장과 그 수량으로 헤아려볼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한바와 같이 명문장은 그 작품의 사상예술적 가치를 대변하는 결정체로 된다. 그것이 비록 작품의 어느 한 대목에 있는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무게는 작품의 무게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깊은 뜻을 가진 문장과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 격조높은 문장과 절절한 느낌을 주는 문장은 명문장들이다.

작품마다 명문장의 분량은 같지 않다. 작품마다 명문장의 분량이 다른것은 그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과 관련된다. 명문장이 많은 작품으로서 졸작이 없고 명문장이 적은 작품으로서 명작이 없다.

이것은 제 눈으로 보는 능력이 명문장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시인 최승철의 작품집 《빛나는 모습들》에 수록된 서정시들을 통하여 제 눈으로 보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시 《갑무도로》를 들어본다.

(첫련)

수풀의 바다속에 아물하구나

고역에 등굣은 한많은 거레들앞에

슬픔만 눈보라같이 몰아오던 길

그 호령소리에 날새도 떨어지던

일제교형리들의 《갑무경비도로》

(둘째편)

그러나 우리의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께선

이 길을 거쳐 안개 자욱한 대흥단별로

혁명군을 이끄시고 당당히 가셨어라

먹장구름 찢러가는 번개와도 같이

원썬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면서

(셋째편 3, 4 행)

지금은 우리모두의 슬기로 된 그 정열

지나온 옛길들을 추억케 한다

(넷째편)

...천리에 불이 불고

천리에 물이 울던 길

목갈리게 부른 투쟁의 노래

하늘땅을 흔들던 포성과 함께

수령님을 따라 우리는 왔다

수없는 갑무도로

(다섯째편 3, 4, 5 행)

그렇다 전쟁과 폐허를 지나

폐허 위에 화려한 락원을 일으키며

우리는 왔다, 수없는 갑무도로

(여섯째편 5, 6, 7 행)

설레는 수풀이여, 갑무도로여

우리는 영광의 이 길에서 백전백승할

우리 당의 빛나는 앞길을 본다

여기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일행천리전술로 횡단한 《갑무경비도로》를 해방후 수령님따라 우리가 걸어온 전쟁과 복구의 길로 연결시켜본것이라든가 《갑무경비도로》에서 백전백승할 우리 당의 빛나는 앞길을 내다본 것 등은 시인이 자기 눈으로 본것이다.

제논으로 본것은 우선 대상, 현상에서 받은 느낌과 주장으로 나타난다. 레문에서 본바와 같이 이시는 첫편 첫행부터 마지막편 마지막행까지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어있다.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면 반드시 음악이 울리게 된다.

이 시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은 자량과 궁지의 감정이다. 그것이 이 작품의 서정이다. 그것이 어떤 표현수법들에 의하여 풍만해졌는가를 분석해보자.

혁명군을 이끄시고 당당히 가셨어라

먹장구름 찢러가는 번개와도 같이

수령님을 따라 우리는 왔다

수없는 갑무도로

우리는 왔다, 수없는 갑무도로

이 세계의 레문은 자리바꿈법의 리용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자리바꿈법이란 문장에서 성분의 자리를 바꾸어 표현적 질을 높이는 수법이다.

자리바꿈법은 대체로 네가지의 표현적 효과를 나타낸다.

문장에서 어느 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박력을 나타내는것이 그 하나이고 그속한 서정을 깔아주는것

이 그 다른 하나이며 순탄한 호흡과 선율을 나타내면서 시적 정취를 나타내는것이 그 또하나이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심리상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것이 그 또다른 하나이다.

우의 레문들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순서를 바꾸어본데서 얻어진것이다.

슬픔만 **눈보라같이** 몰아오던 길

먹장구름 찢러가는 **번개와도 같이**

이 두개의 레문은 직접비유법의 리용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시인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진 비유인것으로 하여 그 표상이 매우 생동하며 화폭적이다. 이것은 비유해본데서 얻어진 효과이다.

수풀의 바다속에 아물하구나

이 레문은 숨은 비유법의 리용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문맥상에서 《드넓다》는 새 뜻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아물하구나》와 어울리면서 숨은 뜻이 더욱 강조되었다.

《아물하다》는 표현은 시인이 새로 만들어낸 말이다. 동사, 형용사로 쓰이는 《아물아물하다》에서

《아물》 하나만을 취하였지만 그 뜻이 쉽게 이해된다. 이해될뿐아니라 강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숨겨본데서 얻어진 효과이다.

그 **호령소리에** 날새도 떨어지던

이 레문은 과장법의 리용으로 이루어진것이다.

호령소리에 날새가 떨어질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표현이 진실치 못한 감을 주는것이 아니라 일제교형리들의 잔악성을 드러낸것으로 하여 매우 진실한 감을 준다. 이처럼 대상, 현상의 본질과 특징을 확대해보는 눈이 비상할수록 그 표현적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

...천리에 불이 불고

천리에 물이 울던 길

이 레문은 대구법과 되풀이법의 어울림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서로 편관이 있는 두가지 현상을 짝을 맞추어 대구를 이루게 한것은 대구법의 리용이며 머리구 《천리》를 반복하고있는것은 되풀이법의 리용이다.

이 두가지 수법의 어울림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운율을 조성하고있다. 즉 남으로 천리 북으로 천리 고난에 찌던 시련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헤쳐온 자량과 궁지의 감정으로 장중한 음악을 울리고있다.

여기서 《물이 운다》는 표현은 총포성과 합성을 다 련상시키는것으로 하여 매우 예술적 가치가 높다. 이것은 짝을 맞추어 되풀이해본데서 얻어진 효과이다.

피를 이룬 주검우에 엮드려져  
성조기에 얼굴 묻고 통곡하던 미제

이 레문은 수식법과 사람비유법의 어울림으로 이루어진 표현이다.

주검을 한정된 《피를 이룬》은 수식법의 리용이며 미제국주의가 《주검우에 엮드려져 성조기에 얼굴 묻고 통곡》하는것은 사람비유법의 리용이다.

그것을 차례로 분석해보자.

수식법이란 대상, 현상을 감정적으로 특징짓는 수법이다.

이 수법의 표현적 기능은 두드러진 감정적 태도와 생동한 표상을 주는데 있다.

《피를 이룬 주검》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통해 보는 감정적 태도와 표상을 주고있다.

사람비유법이란 자연현상과 추상적인 개념에 사람의 표식을 주는 수법이다.

이 수법의 표현적 기능은 자연현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수행할수 없는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뚜렷한 감정과 참신한 표상을 주는데 있다. 그것이 높은 형상적 질로 된다.

추상적인 개념인 《미제》가 《주검우에 엮드려져 성조기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게 함으로써 그 몰골에서 자랑과 긍지를 느끼는 뚜렷한 감정과 대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참신한 표상을 주고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높은 형상적 질로 된다. 이것은 비유해보고 꾸며본데서 얻어진 효과이다.

이 시와 언어수단리용측면에서 상기시키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 전쟁과 폐허를 지나

여기서 《그렇다》는 감동사가 아닌 느낌말이다.

느낌말이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감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다》, 이 한마디가 이 시에서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자랑과 긍지에 찬 서정적 주인공의 생각과 태도를 이 한마디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있다.

이 시인이 자기 작품들에서 이런 느낌말을 얼마나 다양하게 또 경향성을 띠고 리용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시 《갑무도로》에는 이외에도 언어수단과 표현수법 리용에서 더 언급하여야 할것이 있다.

6련으로 된 이 짧은 시에 표현수법만 보아도 앞에서 분석한 8가지 수법외에 보충법, 렬거법이 더 리용되었다.

이것은 소설에 비하여 시에서는 표현수법의 리용이 더 많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것은 시문장의 형상적 밀도와 관련된다. 시문장의 형상적 밀도는 소설문장의 부피를 감당하는 그러한것이다. 시문장에 형상적 밀도가 없다면 어떻게 소설의 부피가 안고있는 사상에술적 무게를 시가 동일하게 안을수 있겠는가.

시는 느낌과 주장이다.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면 시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산문이 된다. 산문이 된 시는 산문으로서도 쓸모가 없다. 산문화 된 시의 그릇에는 그 어떤 사상에술적 무게도 깃들수 없기때문이다.

여기서 명백한것은 시문장과 소설문장을 가르는데서 근본으로 되는것이 느낌과 주장이라는것이다.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면 소설문장에서도 시가 깃든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문장은 시문장과 가까와질수록 가치가 있고 시문장은 소설문장과 멀어질수록 가치가 있다.

이처럼 시문장의 형상적 밀도는 느낌과 주장의 일관성에 의하여 보장되고 따라서 그러한 느낌과 주장의 일관성이 많은 표현수법들의 리용을 요구하게 된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가보다 현실에 대한 다방면적이며 심도있고 폭넓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축적을 더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느낌과 주장은 손쉽게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특히 그 느낌과 주장의 차원이 높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직선의 차원보다 평면의 차원이 높고 평면의 차원보다 립체의 차원이 높다. 그러나 립체의 차원은 그앞의 순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리치를 깨달은 한 시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는 혁명시인 리찬이 남긴 가정유물가운데서 당보사설을 발취한 기록장이 한 트렁크가 넘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1960 년대에 한 청사에서 사업하면서 그가 당보사설을 빠짐없이 발취하는것을 여러번 보기도 하였고 그가 전쟁시기에 더러 잃어버린 기록장을 두고 아쉬워하는 말을 여러번 들은적도 있었다.

1974 년 1 월 5 일 그는 운명하기 전날에 직장에 쪽지글을 내보낸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신년사를 해설한 제강을 좀 들여보내주기 바랍니다》라

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직장의 한 동무가 해설제강을 가지고 찾아가기전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는 병석에서도 운명하는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1974년 신년사를 연구하고있었다.

그는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엇을 구상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하는것을 알기 위해 일생을 두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그가 해산땅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던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산땅에 살면서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온 그는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평양에 개선하신 장군님의 목소리에서 찾았다. 그후 30대의 청년시인으로 함흥으로 나와 기자생활을 하던 그는 드디어 1946년 4월 어느날, 도안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함흥에 오신 장군님을 환영하여 마련한 연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시인에게는 백두산에 태양을 그려넣은 조선지도를 가슴에 품고 혁명의 총성이 울려오는 압록강반을 헤매이던 해방전 방랑의 그 시절이 떠올랐고 압록강반의 쓰러져가는 귀틀막 팥술불아래서 재생의 광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연설을 전해듣던 잊지 못할 그밤이 떠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회참가자들앞에서 하신 연설이 끝나자 그이 앞으로 다가간 청년시인은 《장군님! 설움많은 식민지청년시인이었던 리찬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문안드립니다》라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헌시를 읊었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릴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이것이 연회장에서 그가 환회에 넘쳐 심장으로 뒤흔 즉흥시 《김일성장군 찬가》의 한 구절이다.

이 송가는 해방전 인민들속에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를 체험하면서부터 이미 서서히 태어나고있었다.

이 송가는 또한 해방직후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오로지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만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선명하게 태어나고 있었다. 다음 이 송가는 직접적으로는 수령님께서 도안의 각 정당, 사회단체, 무소속일군협의회를 여시고 지방할거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박해를 받고있던 량심적인 지식인들과 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대표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보람찬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이의 한량없이 넓은 도량을 체험하면서 태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있던 오해를 말끔히 가시고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모두 영원히 변함없이 손잡고 나아갑시다.

그러시고는 잔을 높이 들어 그들의 양양한 앞날과 행복을 축원해주시였던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인 계기로 되어 송가 《김일성장군찬가》가 태어날수 있었다.

그의 시랑송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폭풍같은 박수갈채와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바로 그런속에서 김책동지가 청년시인에게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우리 장군님을 칭송하여 만민이 부를수 있는 노래를 지어보지 않겠는가고 윙겨주었다.

그 순간 청년시인은 만장을 격동시킨 시를 읊고도 마음이 후련하지 못했던 그 열망을 다 표현할수 있는 새로운 충동을 받게 되었다.

청년시인은 불덩어리를 안은것처럼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는 연회장에서 돌아온 날 밤부터 새노래창작에 달라붙었다.

바로 이런 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청년시인을 찾아오시여 김책동지를 통해서 함흥연회에서 읊은 시의 내용을 들었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를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장백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의 굽이마다에는 투사들의 피어린 자욱이 찍혀있지 않은곳이 없으며 만주광야와 백두의 천고밀림에는 투사들의 애국의 넋이 어디에나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투사들이 부르던 혁명가요들도 들려주시였다.

여기서 청년시인은 전설같은 이야기로만 들어오던 항일의 력사를 산 생활로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 나날에 불리운 노래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청년시인에게 또 다른 커다란 충격으로 되었다. 충격의 강한 진폭은 시인의 느낌과 주장, 그 차원의 높이를 결정해주었다.

그리하여 함흥연회가 있는 때로부터 두달후인 1946년 6월에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세상에 태어난 경위는 시인의 느낌과 주장, 그 차원이 바로 사상과 체험, 지식의 폭과 깊이에서 우러나온것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아울러 혁명시인 리찬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간직한 해방후 첫 작가들중의 한사람이었다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다음호에 계속)

## 남녘의 어머니에게

강립석

그렇게 보내자고 그 아들을 키웠던가  
잠결에도 끌어당겨 젖을 물리었던가  
민주의 제단에 아들을 바친 남녘의 어머니

정녕, 그렇게 보내자고  
허리띠를 조이며 학비를 장만했던가  
아래목 이불밑에 밥그릇 밀어넣고  
조금만 저물어도 잔주름 모았던가

아니 어머니는 념원하였다  
태어나 첫걸음을 떼일 때엔  
어서 자라 저 프락 마구 뛰놀기를  
그 어깨 대견하게 넓어갈 때엔  
어서 자라 집안살림 떠메주기를

몇번이였던가, 그러면서  
남모르게 혼자서 웃음짓던 일  
세월의 고달픔 가신듯 잊던 일이

그렇게도 믿고 아끼던 마음의 기둥을  
스무살 꽃나이로 너무나도 일찍 보낸 어머니  
우리는 안다  
영결사 끝난 묘지의 언덕을  
눈물도 없이 녀두리도 없이  
천천히 내려오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렇다  
아들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는 있다

날마다 찾아오던 그 동료들속에  
룡성의 교정에 함께 버티었던  
그 숫저운 너대생의 가슴속에

있다. 그는  
자유의 절규가 총칼에 짓밟힌  
민주의 불모지를 주먹으로 두드리는  
남녘겨레의 피에 젖은 뉘속에

아, 정녕  
그 어떤 위안의 말, 추도의 말이  
어머니의 그 아픔 덜수 있으랴  
어머니의 그 슬픔을 가실수 있으랴

기억하라  
그 아들이 숨겨두던 시각  
어떤자가 《청와대》에 앉아있었던가를  
어떤자가 백악관에 앉아있었던가를

금시라도 문열고 들어서는데  
못견디게 그리울 때면  
어머니여, 그 이름 조용히 부르시라  
오늘도 잠들줄 모르는  
저 시위의 길가에 나가서서  
그리고 들어서시라, 그 대오속에  
그러면 대답하리라  
천만 항쟁의 심장들이 대답하리라  
-어머니 ! 어머니 !

## 위훈으로 부르는 기발

안병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사람들은 레사로운 하나의 사실에서도 숭고한 것을 느끼며 깊은 감회에 잠기는 때가 가끔 있다.

우리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 단계 확장공사장에 취재갔을 때의 일이다.

계절은 벌써 봄이라고 하지만 옷설을 헤치며 파고드는 쌀쌀한 바람이 진눈까비를 흩날리며 불어와서 날씨는 몹시 추웠다.

하지만 우리가 첫 발을 들여놓은 석회배소로 건설전투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육옥 거세차게 일손을 다그치는 건설자들의 발같은 열기로 하여 하늘중천에서 날아내리던 눈송이 들조차도 비물이 되어 녹아내리는듯싶었다.

눈뿌리 아득히 치솟는 배소로굴뚝꼭대기에서 세찬 바람에 그네처럼 흔들리는 발판을 타고 휘틀을 붙이고있는 연공들을 바라보고있던 제 24 금속공장건설사업소 1 직장 부직장장동무는 등실한 얼굴에 저으기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저 친구들이 일하는것이 여기 지상으로부터 70 메터입니다.

오늘만은 바람이 세차서 내려와 좀 쉬라고 해도 통 말을 듣습니까. 이런 날 답새겨대기가 더 좋다나요. 꼭 폭풍우를 뚫고 날기를 좋아하는 날새들의 담찬 성미를 닮았나스까요.》

(폭풍우를 뚫고 날기를 좋아하는 담찬 성미!)

뜻깊은 그의 말에 우리는 《거 좋군요. 통이 큰 일욕심도 대담한 성미도 다 마음에 듭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이였다. 흩날리는 눈송이 가운데 유별나게 큰 눈송이 같은것이 굴뚝꼭대기에서 쏜살같이 날아내려 땅우에 떨어지는것이였다.

굴뚝우에서 일하는 연공들을 바라보고있던 못시선이 일시에 약속이나 한듯 땅우의 한곳으로 쏠렸다.

어느새 알았는지 방송선전차의 문이 쪽 열리더니 방송원처녀가 제일 먼저 그곳으로 달려갔다. 방금 떨어진 종이쪽지를 펼쳐든 그는 애티나는 얼굴에 보조개를 짓고 머무랄처럼 까만 눈을 깜박거리며 무엇인가 읽고있었다.

궁금증이 난 사람들이 그의 옆에 다가들었다. 우리도 따라섰다. 봄비는 어깨너머로 바라보니 연

공들이 내려보낸 굴쪽지에는 이런 글발이 적혀있었다

《방송원동무, 힘이 솟구칩니다. <적기가>를 한번 더 올려주십시오. 굴뚝조 일동.》

때아닌 눈바람은 제아무리 심술을 부려도 아랑곳없이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는 건설장에는 다시 적기가의 장중한 선물이 건설자들의 달아오른 가슴을 흔들며 은은히 울려퍼졌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혁명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굴뚝꼭대기를 다시 바라보니 세차게 불어치는 눈바람속에 붉은 기발이 거센 날개와도 같이 펄럭이고있었다.

대전선행군에 펼쳐나선 대오를 이끄는듯 세차게 나뭇기는 붉은 기발을 바라보노라니 《적기가》를 다시 올려달라고 굴쪽지를 내려보낸 굴뚝조 연공들의 뜨거운 심정이 가슴에 안겨왔다.

그리고 방금전 우리와 마주앉았던 사업소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군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굴뚝치기작업이 60 메터 계선에 이르러 불리한 날씨때문에 난관을 겪던 어느날 새벽이였다.

제일 먼저 전투장에 오른 굴뚝조 조장인 공훈건설자 리길만동무는 굴뚝꼭대기에 가슴에 품고온 붉은 기발을 꽂아놓고 뒤따라 올라온 조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소.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붉은 기발이 우리를 대전군으로 부르고있으며 당과 수령이 안겨준 주체의 혁명정신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앞으로 떠밀고있다.>고말이요.》

사고로 붉은 기발은 혁명을 상징하는 투쟁의 기치, 혁명의 기치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대오의 진두에 높이 휘날리신 붉은 기발을 추켜들고 강도 일제를 무찌르는 험난한 싸움길에서 수령님께 다진 굳은 맹세를 지키였고 최후의 순간에도 혁명의 승리를 믿고 《적기가》를 부르며 공산주의 아침노을처럼 불타는 붉은 기폭에 싸여 눈을 감았다.

바로 이 혁명의 붉은 기발을 끝까지 지켜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은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침략자 미제를 때려눕히고 조국해

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고 수많은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의 한 길로만 걸을수 있었다.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붉은기 아래서 충성의 맹세를 다지자.

이 굴뚝을 빨리 앞당겨 쌓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

이것이 어찌 그들, 굴뚝조 연공들의 결의만이였겠는가.

한주일은 실히 걸려야 해제낄수 있다던 벽찬 일감을 단 9 시간동안에 끝내고 400 톤에 달하는 25 톤탑식 기중기를 레루까지 통채로 들어옮긴 설비조립직장 로력영웅 최봉남연공작업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연공들.

원형 농축장 건물기초치기가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퇴근걸음을 되돌려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하루 밤사이에 21 개나 되는 2 천립방메터의 기초를 다

져넣은 제 23 금속공장건설사업소의 굴할줄도 물리설줄도 모르는 당원들과 건설자들...

이들, 김철의 영웅건설자들은 60 메터, 65 메터, 70 메터...하늘을 치받으며 높아지는 굴뚝과 함께 그우에 높이 나뭇기는 붉은 기발을 우러러바라보며 산악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 억센 투지로 막아서는 난관을 박차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붉은 기발이 나뭇기는 70 메터 굴뚝꼭대기에 한달음으로 올라섰다. 완공을 앞두고 들끓어 번지는 건설장의 장엄한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높이 솟은 3 호 전로장이며 산소분리기, 조피장과 3 호 가열로...불과 몇달사이에 일떠선 이 모든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믿음의 편지를 보내준 우리 당중앙에 드리는 조국의 대지, 여기 대야금기지에서 쓴 김철 영웅건설자들의 충성의 회답편지의 구절구절처럼 빛나고있었다.

## 끊을수 없는 인연

허린정

바다여

너와 끊을수 없는 인연 맺은것은

해빛에 반짝이는 물결우에

미끄러져가는 흰돛

푸른 꿈 어린 아득한 수평선이

나를 부른 그때문이었던가

기슭에 밀려와 어리광 부리며

정답게 속삭이는 파도

반겨 웃는 빨간 해당화가

나를 유혹했던가

말해다오, 바다여 !

너의 높뛰는 격랑속에서

들쭉우는 파도를 길들이며

나의 청춘은 꽃렸나니

방수복에 맺히는 고드름 털며

쨍쨍 얼어드는 추위도 녹이는

사나이의 호탕한 웃음을 배웠노라

어창이 넘치게 물고기 퍼올릴 때

잔물에 젖으며 내 잔뼈도 굵어졌노라

기쁨과 자랑 한배 가득 싣고

그리운 포구로 돌아오는 밤이면

삶의 보람 노래가락에 터치며

기다리는 처녀의 사랑도 그랬나니

청춘이란 무엇인가를 내 알았노라

오, 사나운 파도 갈기를 추켜드는 밤이면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조국은 온밤 잠 못들며

사랑의 전파로 우리를 불렀나니

내 어떤 품에 안겨사는가를

나는 목메이며 느꼈노라

내 이제는 바다와 헤어져 못살리

그 어느 화려한 도시에 가도

시원한 푸른 바다 못견디게 그림더라

호젓한 숲속에서 산새소리 들어도

설레이며 반기는 파도소리 그림더라

층층 불빛은 창문들이 기다리는 포구

언제나 노래로 꽃다발로 맞아주는

조국의 은혜에 만선으로 보답하는 자랑

그것이 내 바라는 삶의 전부이거니

오, 해빛넘치는 조국의 바다여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너보다 정든곳 찾지 못하리

너는 나의 사랑, 나의 빛

나는 영원히 너처럼 변함없을

바다의 아들, 조국의 아들

# 선 생 님

리광선

누가 시켜서  
존경하며 따르던가  
영웅도 머리 허연 장령도  
선생님앞에서는 정중히 머리 숙이더라

제아무리 장난꾸러기  
말썽 많은 아이래도  
선생님앞에서는 학생이여라  
꾸중을 해도  
머리숙여 사죄할뿐

나이 많은 로인도 나라의 큰 일군도  
선생님앞에서는 다감해지는 마음이더라  
세월이 흘러도  
인생의 한시절에 배워준 그 진리가  
한생의 고임돌처럼 자신을 떠받들고있기에

그렇더라 선생님은  
누구든 그 어디서나 못잇을 첫 얼굴  
가슴속에 언제나 존경으로 자리잡은  
추억의 첫 모습

생각하면  
저 햇빛밝은 창가

지시봉을 높이들고 교단에 서서  
한자한자 글배워주던 수고많은 모습  
꿈처럼 아롱지는 작은 희망도 키워주며  
힘을 주고 열정을 안겨주던 고마운 모습

언제나 인정미로 그윽하던 그 눈빛  
꿈을 키워주고  
지혜를 주는 일이라면  
눈오는 밤길도 서슴없이 걸던 모습

머리 흰 로학자의 한시절에도  
그 모습은 잊을수 없어라  
대야금기지의 설계가도  
세계를 뒤흔든 영웅체육인의 가슴속에도  
존경으로 자리잡은 그 모습

아, 조국앞에  
혁명의 교대자를 땀땀이 키우며  
한생을 교단에 서있는 모습은  
아름다운 조국의 화원속에  
선뜻 눈에 띄우지 않아도  
한시절만이 아닌 세월을 넘어  
선생님은 누구나의 마음속에  
떠받들려있는 모습이여라